

제 8 편

정치와 행정

제1장 • 정치

제2장 • 선거

제3장 • 지방자치

제4장 • 행정구역의 변천

제5장 • 행정시책

제1장 정치

제1절 서설

한국은 668년 신라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일본이 한국을 침탈할 때까지 단일국가로서 고려(936년~1392년)와 조선(1392년~1910년)이 통치를 해 왔다. 그후 일본의 35년에 걸친 식민통치가 끝나 한국은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끝내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말았으며, 이 기간 동안(1945년~97년) 우리 나라는 7개의 공화국을 체험하였다.

즉 이승만의 제1공화국(1948년~60년), 장면의 제2공화국(1960년~61년), 박정희의 제3(1963년~72년)·제4공화국(1972년~79년), 전두환의 제5공화국(1979년~88년), 노태우의 제6공화국(1988년~93년), 그리고 김영삼의 문민정부(1993년~98년) 등이 그것이다.

남한은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나라를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군정 초 그들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고 한국 내의 정치 내막을 알지 못했다. 하지(Hodge)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조건 척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정부(軍政府)는 공산주의자들과 통일 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자들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외세를 통한 한반도의 인위적 분단은 패망 일본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사회·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북한에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소련의 정책과 미군의 견제정책은 한국인을 우익 혹은 좌익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미군정은 민족청년단 및 대한독립청년단을 포함한 많은 우익단체에 대하여 자금 및 조직적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좌익운동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미군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의 각종 정치적 폭동이 남한을 휩쓸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승만이 남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오랜 망명 기간 동안 미국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1920년대에는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통령을 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외교에 능한 영웅적 애국자로서의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여기에 미군정 당국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민들도 그를 새로운 공화국의 지도자로 환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2절 제1공화국(1948- 1960)

미국은 1947년 9월 UN총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였고, 여기에서는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에 대한 UN 결의를 거부하였다. 그후 총선거는 1948년 5월에 남한에서만 실시되었고, 국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국회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회제를 혼합한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헌법을 기초하였는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대표하였으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권한이 부여되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선출권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의 승인권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부는 국회해산권이 없었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이 없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수립되었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삼권분립에 의해 정부가 균형 있게 통치되도록 만든 헌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초의 정권은 대통령의 개인화된 통치로 특징지어졌다.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자인 이승만은 그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념적인 호소에서부터 정당 조작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1951년에 이르러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 국회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의 국회는 대통령선출권이 있었으므로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헌법수정안은 국회에서 1952년 1월, 149대 19로 부결되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임기가 그 해 8월까지였으므로 한국청년단 혹은 백골단 같은 조직을 이용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의회를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마침내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 대상은 국회의원들이었다. 많은 의원들이 체포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산주의자와 공모하여 반국가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1952년 7월 4일 국회는 경찰의 통제하에 대통령을 총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은 이즈음에 자유당을 조직하였고, 자유당은 그의 정치권력 유지에 이용되었다.

1956년에 이르러 이승만 독재에 대한 국회 내의 비판의 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동년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선거 1주일 전에 심장병으로 사망함으로써 무난히 재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선택한 부통령 후보 이기붕은 민주당 후보인 장면에게 패하였다. 더구나 자유당은 1958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선거 결과는 의회 내에서의 자유당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1960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승만의 지위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었다. 선거 직후 자유당은 국가보안법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 국가보안법은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대로 이용되었다. 3월 15일의 부정선거는 급기야 대규모 학생시위의 도화선이 되었고, 같은 해 4월 19일 대규모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동년 4월 26일 이승만은 스스로 권력의 정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볼 때 이승만의 권력 독점은 강력한 행정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입법부와 사법부는 자치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치를 점점 상실하게 되고, 급기야는 관료제(官僚制)를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마저 담당함으로써 관료제를 더욱 부패시키고, 그들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잃게 된다.

제3절 제2공화국(1960- 1961)

4·19학생혁명 결과 이승만은 1960년 4월 27일 국회에 사임원을 제출하였고,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이 2개월 간의 과도정부의 책임을 맡도록 지명되었다. 이 기간 중에 국회는 대통령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내각책임제로 대체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1960년 7월 29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당시 유일하게 조직화된 정당이었던 민주당은 참의원(58의석 중 31석)과 민의원(233의석 중 175석)에서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자유당은 이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당분간은 이승만의 독재정권 대신에 민주국가가 실현된 듯이 보였다. 신헌법의 기초자들은 입법부 중심적인 정부체제가 대통령중심체제의 산물이었던 독재정부를 방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승만의 독재적 통치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고, 그 지도자 장면(張勉)은 국무총리가 되어 민주주의 통치가 바야흐로 전개되었다. 반공은 이제 대중이 평가할 수 있는 공개된 이념이 되었고, 더욱이 언론이나 행동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약도 국민에게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급작스럽고 근본적인 민주정치로의 전환은 역설적으로 제2공화국의 단명을 가져왔다. 근원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이를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당수직을 둘러싸고 내적 권력투쟁을 전개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응집력이 와해되었다. 장면은 민주당 신파의 지도자로서 당내의 열띤 경쟁을 거쳐 가까스로 국무총리로 인준되었는데, 그가 내각의 다수(14명 중 11명)를 신파에서 임명하자 구파는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장면은 그의 첫 번째 내각의 조각(組閣) 후 겨우 20일이 지난 후에 이를 재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분열은 계속되어 1961년 2월 20일 구파는 마침내 민주당을 이탈하여 신민당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당쟁 때문에 정부는 조직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까지도 상실하였다.

또한 파벌 문제 이외에도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통합에 대한 당의 정통성 문제에 부딪혀 시련을 겪어야 했다. 비록 신정부가 선거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정권 변동이 주로 학생의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정치에 있어서 학생의 힘의 등장은 ‘정부의 제4부’를 낳게 하였다. 정부는 어떤 적당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변동을 요구하는 수많은 학생시위가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 이외의 여타 집단에 의한 정치적 시위가 학생세력과 합세하였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제2공화국 11개월 동안에 약 2000회의 시위에 9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시위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국내외의 정치적인 문제는 물론 가족윤리 문제까지를 포함하였다. 이들 가운데 부정선거의 처리 문제, 4·19혁명 참가자의 살상에 대한 보상 문제, 한국의 통일 문제 등은 당시 정부와 학생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면 정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지나치게 허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반면 학생세력은 정부 통치의 정통성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집단으로 성장해 있었다.

한편 반공이라는 이슈가 이승만 정권에게는 그의 정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장면 정권에서는 공개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북한 정권은

남한에서의 학생운동을 환영하였으며, UN의 감시 없는 자유선거와 남한의 군사력 감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거의 무정부적 상황에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무혈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장면 정권은 11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제4절 제3공화국(1963- 1972)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군사혁명위원회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6개 조항의 공약을 선언하였다. 즉 반공을 국시로 삼고,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우호적 유대를 강화하며,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승공을 통한 국가통일을 유도하며, 민정 이양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공약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제2공화국 기간 중에 문란해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의회정치체제는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포괄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대체되었고,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활동은 일시 중지되었다. 그리고 단호한 반공정책하에서 사회의 파괴적 요소를 조사하고 민중에 대한 정보체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가 설치되었다.

1962년 12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신헌법이 비준되었다. 이것은 대통령을 권력의 핵으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로의 복귀였다. 부통령제는 폐지되었고 국무총리는 실권이 없는 위치가 되었다. 입법부는 다시 단원제로 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상 보장되지만,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었다. 부통령제가 폐지된 것을 제외하면 제1공화국의 입헌 조직을 연상케 하는 이 대통령 중심 구조는 1972년까지 존속되었다.

1963년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었고 야당도 창당되기에 이르렀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현역에서 예편하여 민간인으로 민주공화당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피선되었고, 민주공화당은 국회의원선거 결과 지배 정당이 되었다.

제3공화국은 사회적·경제적 성취와 어려운 정치적 조치의 연속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정부는 2회 연달아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국가는 ‘제1차 5개년경제계획’ 기간(1962년~66년) 중에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제2차 5개년경제계획’ 기간(1967년~71년) 중에는 11.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한국 독립 이후 처음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과 가격보다 빠른 비율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강조하면서 행정부는 급속히 기구를 팽창하였고 행정권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관료의 부패는 고질적인 문제로 존재하였고, 그것은 1967년과 1971년의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계획의 성공을 고려해 볼 때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행정적 성과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된 것이었다. 한 연구는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행정 엘리트는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도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전의 엘리트에 비해 보다 더 성취지향적·변동지향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행정 주도의 경제발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타 정치제도의 발전은 늦어지거나 퇴행의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부정선거 문제는 박정권을 계속 괴롭혔고 정권을 제도적으로 약화시켰다. 예를 들면 1967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고 국회를 폐회하였다. 이에 민주공화당이 부정선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많은 수의 공화당 의원들을 제명하고 난 다음에야 국회는 재개될 수 있었다.

1971년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신민당이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안보와 민주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는 “올해는 안보상 국운을 좌우할 시기”라고 함과 동시에 그 동안의 경제발전을 크게 앞세웠다. 투표 결과 김대중 후보가 100만 표 미만의 표차로 패하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44.3%의 득표율을 보여 이를 기점으로 양당은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 게임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소위 10월유신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였고, 새로운 대통령 1인체제를 구축하였다.

제5절 제4공화국(1972- 1979. 10)

소위 유신체제라고 불리는 제4공화국은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와 체제 능력의 향상을 이유로 같은 해 10월 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산, 정당활동의 중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 권한의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10일 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10월 17일 대통



사진 1-1 제4공화국 대통령 박정희.
1970년대 중반 반월신공업도시
건설현장을 순시하고 있다.

령특별선언을 ‘10월유신’이라 부르기로 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유신 작업의 진행을 결의하였다.

새로운 헌법개정안(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같은 해 11월 21일에 실시되었다. 헌법 내용에 대한 국민 이해의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일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 유권자의 91.9%가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91.5%라는 찬성률로써 유신헌법을 확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統代)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통대에서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이미 언급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일을 위한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설치하여 이 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에 의한 불신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였고 국회의 권한은 극소화하였다. 또한 간선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가지는 외에도, 유신정우회(유정회)라 불리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다른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제청이 있어도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약하였다. 바야흐로 유신체제는 전통적인 삼권분립주의를 벗어나 대통령을 정치권력의 최고 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정부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를 한때는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 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정치적인 차원으로 볼 때 정부의 권위주의적 강압정책과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체제 운영의 경직성을 면치 못하였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김대중 납치사건은 한·일간의 외교관계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국내에서는 신민당과 재야세력이 유신헌법의 부당성을 들어 개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2호를 선포하여 개헌 논의를 금지시켰다.

그러던 중 같은 해 8·15 경축식전에서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함을 계기로 정국에 잠깐 동안이나마 평온이 찾아왔고, 이어서 긴급조치 1호와 4호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개헌 및 민주화에 대한 주장이 다시 신민당, 재야인사, 학생 및 언론인들에 의해 크게 일어났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반대 세력은 끊임없이 유신체제에 도전하였고, 1978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득표율에서 1.1%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1979년에 이르러 신민당의 대정부 투쟁은 조

직화되었고, 같은 해 10월 4일에는 국회에서 여당 의원만으로 당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였다. 이에 신민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통일당의원 3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10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소위 ‘부마사태’가 발생하였다. 뒤이어 10월 26일에는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됨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6절 제5공화국(1979. 11- 1988. 2)

제5공화국은 사실상 10·26사태 이후 위기관리정부로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두환 정권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던 1988년 2월까지를 지칭한다고 보겠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최규하 국무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12월에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소위 12·12사태라고 불리는 군부 내의 하극상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사관 출신 젊은 장성들이 군뿐 아니라 정부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10·26사태와 12·12사태를 거치면서 사회는 극도의 혼란상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이 조치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대학의 휴교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한편 당시의 많은 국민들은 과도기적인 사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었고,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지도자로서 부각된 소위 ‘3김’이라 호칭되던 김종필·김영삼·김대중 등은 대권에 도전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5·17조치와 더불어 김종필은 부정축재 혐의로 재산이 몰수되고, 김영삼은 가택연금되었으며, 김대중은 내란음모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어서 5월 18일에는 흔히 ‘광주사태’라 불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정규군과 일반 시민의 유혈 충돌로 발전하여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태는 10여 일 만에 무장군인에 의해 강제로 진압되었으나 그 상처는 너무나 엄청났다. 그리하여 제6공화국에 와서도 ‘광주민주화운동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진상을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5·17조치가 있는 다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保衛)’가 설치되어, 예편한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제11대 대통령으로 피선됨으로써 새로운 군사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1981년에 신헌법에 따라 새로운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전두환은 전체 투표의 90.2%를 획득하고 제12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처럼 항거와 탄압이라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전두환 정권은 시초부터 정통성 문제에 부딪혔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과감한 개혁,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전략을 세웠다. 개혁의 핵심은 구정치의 청산, 부정부패의 일소라는 측면에 두었다. 1980년 11월에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56여 명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는 제5공화국 통치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시위의 주요 이유는 정권의 정통성 문제, 광주사태 해명,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문제 등 민주화 주장 등이 중심이 되었다. 대학생과 야당 및 재야세력의 저항에 대해 정부는 물고문·성고문 등을 포함한 폭압적 물리력으로 대항하였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대학생과 재야 및 야당의 강력한 개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마침내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소위 4·13 선언을 통하여 당시의 헌법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김영삼·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야당지도자와 재야세력은 드디어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따로따로 행동하던 정당과 재야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마침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조작 사건은 정부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했다. 더욱이 학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을 맞은 이한열 군이 중태로 입원하게 되자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이리하여 6월 10일과 6월 29일에 있었던 민주화 대행진에서는 전국 중요 도시 시민들이 동시에 시위에 가담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소위 ‘6·29선언’이라 불리는 결단이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으로 있었던 노태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선언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의 수용, 김대중을 포함한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들의 해금,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통령선거법 개정,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의 창달,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의 확대, 과감한 사회정화조치 강구 등 8개 항으로서 당시 시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그 뒤를 잇는 대통령선거와 더불어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7절 제6공화국(1988. 2- 1993. 2)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확정되자 각 정당에서는 제13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동년 11월 7일에는 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에서는 1987년 12월 16일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였다.

한편 민정당에서는 1987년 7월 10일 전두환 대통령이 당 총재를 사퇴함으로써 노태우 대표위원이 당 총재로 선출된 후 대통령 선거 준비를 타당보다 먼저 착수하였다. 그리고 통일민주당은 평화민주당과의 분당을 겪은 뒤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으며, 평화민주당은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신민주공화당은 김종필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여 선거전에 착수하였다. 또한 무소속의 백기완 후보, 사회민주당의 홍숙자 후보, 일체민주당의 김선적 후보, 통일한국당의 신정일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1987년 1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는 8명이 되었다.

그후 치열한 선거전을 거쳐 1987년 12월 16일 시행된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총 선거인 수 25,873,624명 중 23,066,419명이 투표한 가운데 8,282,73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6공화국의 막을 열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있어서 현재의 김영삼 정부를 제외한 6개 정권의 변동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황과 리더십 유형은 정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정권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나 제도화의 노력에 있어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인위적인 국토의 분단을 전제로 하여 이승만은 그의 반공주의적 입장과 개인적인 신망을 이용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데는 일단 성공하였으나 동일한 수단이 그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용되면서 이승만은 축출되고 그의 정권도 몰락하였다.

장면의 제2공화국은 앞선 정권에 비하여 사회에 실질적인 자유를 허용함과 아울러 이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장면 정권에는 응집력 있는 이념과 인기 있는 인물 및 강력한 정치적 제도가 결여되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 혼란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결국 제2공화국은 단명하고 말았다.

제3·제4공화국은 경제계획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비대해졌고 다른 정부체제는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포석으로 등장한 유신체제는 출발에서부터 체제의 정통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헌과 민주화라는 이슈를 놓고 여·야가 끝없이 격돌하는 가운데 민주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한 채 유신체제는 무너지고 말았다.

끝으로 광주사태라는 엄청난 정치적 과오를 안고 출발한 제5공화국은 그 어느 공화국보다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 봉착한 나머지 강압과 비리의 정치를 전개했고, 급기야는 시민의 민주항쟁의 벽에 부딪혀 몰락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유신체제와 그 뒤를 이은 제5공화국 체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이에 부응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열망을 강압적으로 저지하고자 반동적으로 나타났던 절대적 권위주의체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체제가 몰락하는 과정은 각각 다르나 그 비참함은 우리에게 깊은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고 있다.

요컨대 제5공화국 정부는 정치 평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정권이었다. 법적·제도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평등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군부에 의한 과두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정치적 평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억압하였다. 한 마디로 한국 사회의 정치 민주화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정권이었으며, 체제 능력의 한계를 보여 준 정권이었다. 정경유착, 공무원 비리, 친인척 비리 등이 제5공화국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은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극심했다. 사회적으로 부패와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체제 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해 깊은 불신과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 능력의 감소는 당연한 일이었다.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사회는 분화가 가속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져 간 데 비해 제5공화국의 정치는 독재자 한 사람의 결단에 의존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분화된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지 못하고 더욱 분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노·사 대립, 지역간 대립 등을 보다 가열시키는 촉매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통치력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정치 평등의 지향성에 있어서 제5공화국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부터 3당합당에 이르는 정치적 상황의 전개는 노태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서게 하였다. 바로

이 점이 군부독재를 와해시키고 민간이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평등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사법부가 점차로 독립성을 회복해 갔으며,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행되었다. 시민들은 정치적 자존심을 점차 회복하고 정치 과정에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도 체제 능력과 구조 분화 및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는 제5공화국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의 차이는 제5공화국은 반민주적인 군부독재체제였으나, 제6공화국은 비민주적인 국민체제였다는 것이다. 제5공화국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부정하였으나, 제6공화국은 민주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제6공화국 정부는 제5공화국 정부에 비해 민주 발전을 위해 한 걸음 진보한 정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정국을 타개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결국 1990년 2월 15일에 민자당으로의 합당을 선언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노태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개성 없고 우유부단한 통치를 하게끔 하였다.

제8절 김영삼 정부 시대(1993. 2- 1997. 1)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로 뿌리를 내리는 정치체제 변동 과정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인 민주주의 정착기의 첫 번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아직 그 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성격을 결론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제창한 문민정부의 개혁정치는 1997년 3월 현재 거의 실종되었고, 민주주의의 발전은 오히려 후퇴한 정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가 내세운 정치개혁, 경제·사회 개혁의 구호와 최초 1년의 실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정치개혁

김영삼 정부는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후 1994년 3월까지 약 1년여 간 일련의 정치개혁을 실현시키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크게 ‘문민정치와 깨끗한 정치’ 두 가지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민정치’란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과거의 군사문화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권력 기반 그 자체를 제14대 대선 결과에 따라 형성했던 것을 말한다. 제3~제6공화국 시대의 ‘군 출신’ 대통령들은 비민주적·비합리적 과정을 거쳐 집권하였기 때문에 권력 기반을 군사문화적·권위주의적 요인에 의하여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제14대 대선은 비교적 공정하게 치뤄졌기 때문에 그 결과 형성된 김영삼 정권은 ‘정통성’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안기부·기무사 등의 폭력담당기구와 군부 내의 소위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음 ‘깨끗한 정치’를 살펴보자. 김영삼 대통령은 제14대 대선 때부터 ‘윗물맑기운동’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윗물맑기운동’은 공직자윤리법의 성립, 금융실명제의 실시, 그리고 정치관계법의 제정비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윗물맑기운동’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4일 공표한 ‘정치자금근절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임기 중 한 푼의 정치자금도 안 받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과거 청와대가 막대한 검은 돈을 각출하여 한국 비리의 원천지 역할을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두 번째의 ‘윗물맑기운동’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나타났다. 그는 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그 실시를 선언하고 8월 19일 국회의 인준을 받아냈다. 과거의 한국의 금융거래제도는 금융거래시 가·차명의 사용을 허용하고 기업체에게 가·차명의 비자금 조성을 가능케 하여 기업인과 정치인 사이의 검은 정치자금 거래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윗물맑기운동’의 세 번째의 추진은 ‘돈 안 드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94년 3월 4일 제166회 임시국회를 통하여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정치개혁법을 성립시켰다. 새 법은 적어도 한국의 과거 정치관계법과 비교하면 ‘선거혁명·정치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였다. 새 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는 돈 안 드는 선거, 공명선거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2. 경제·사회 개혁

김영삼 정부는 1993년 2월 25일 출범 직후 ‘신경제100일계획’을 세워 당시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걸고 있었던 ‘경기활성화’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

였다. 김영삼 정부 처음 1년간에는 외적 요인으로 소위 엔고(円高)·저유가·저국제금리 등 ‘신3저’ 현상이 나타나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성장률은 1992년 4.7%에서 1993년 5.3%로 개선되었고, 소비자물가는 1992년 6.2%에서 1993년 4.8%로 내려갔으며, 무역수지는 1992년 21억 달러 적자에서 1993년 22억 달러 흑자로 개선되었다.

한편 김영삼 정부는 국가의 대내외적 자율성 확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대내적 자율성의 경우 김영삼 정부가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한국의 금융제도는 가·차명의 금융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온갖 비리와 불건전성을 조장하였다. 그 제도는 금융제도상 사채와 돈세탁 등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형 금융사고의 소지를 제공하였고, 또한 조세제도상 이자·배당 등 자본이득에 있어서 실질이득자인 음성불로소득자들에게 탈세를 가능케 해 주었고, 나아가 정치·사회 제도적으로는 뇌물수수를 위한 돈거래, 부동산투기, 탈법적 정치자금의 운영, 음성적 자금거래를 통한 마약 거래, 밀수 등도 조장하였다.

다음으로 대외적 자율성의 경우 김영삼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와 같이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통합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김영삼 정부는 나라의 모든 역량을 ‘국제경쟁력강화’에 결집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원래의 태도를 바꾸어 좀 더 진보주의적 노동정책의 채택에 있어서 인색한 노선을 취하여 왔으며, 출범 초기에 추구하였던 재벌합리화(재벌의 소유 분산, 업종전문화, 전문경영인체제의 수립 등)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재벌자본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은 김영삼 정부가 한국경제의 대외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외교정책을 통해서도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북핵 대응의 일환책으로 지나치게 한·미·일 간의 공조를 추구하는 나머지 경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일본 등에 지나친 저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 김영삼 정부가 WTO 가입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경제체국주주의 틀을 맞아 그 대비책으로 ‘국제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성공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제2장 선거

제1절 제헌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미국은 1947년 9월 UN총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였고, 여기에서는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후 총선거는 1948년 5월에 남한에서만 실시되었고, 국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국회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내각제를 혼합한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헌법을 기초하였는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대통령에게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을 임명·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그는 행정부를 대표하였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선출권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대법원장의 승인권이 있었다. 행정부는 국회 해산권이 없었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이 없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수립되었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직접·보통·평등 선거가 광복 후 1948년에야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임기 2년의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총 유권자 8,132,517명 중 96.4%인 7,840,671명이 등록하여 이 중 95.5%에 해당하는 7,487,64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무소속을 포함하여 49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모두 948명이 출마하였고, 이 중 제주도의 2명을 제외한 198명이 당선되었다.

당선자들의 소속 정당별 분포를 보면 전체 의원 정수 200명의 42.5%에 해당하는 85명이 무소속이었고, 다음으로 대한독립촉성 국민회가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대한독립촉성 농민총연맹 1명, 기타 10명 등으로 나타난다. 후보자를 냈으나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정당 및 사회단체는 31개나 되었다.

시흥군이 속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 1,088,515명의 96.5%인 1,050,39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전국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현 안산시가 속해 있었던 시흥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무소속으로

표 2-1 제헌국회의원 선거 상황(1948년 5월 10일)

선거구	후보명	성별	나이	주 소	직 업	경 력	소 속	득표 수	비 고
시흥군 (4인)	유지연	남	43	시흥군 수암면 목감리	농업	휘문고보 졸, 면장		6,259	
	장배근	남	40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조선방직회사 안양공장장	초등학교 졸, 회사원	한국민주당	3,986	
	이영섭	남	50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회사원	중졸, 면장, 회사원		10,589	
	이재형	남	33	시흥군 남면 산본리	금융업	일본대전문부법과 졸, 금융조합 이사		13,528	당선

입후보한 이재형(李載瀾)이 13,52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당선자인 이재형은 일본대학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금융조합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차점자는 이영섭으로 10,589표를 얻었고, 그 밖에 유지연 6259표, 장배근 3986표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제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임기 2년의 제헌국회가 만료됨에 따라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초대 국회는 그 임기 동안 국회 프락치 사건, 내각책임제 개헌안 부결 등 여러 사건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민국당의 영향력이 비대해지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를 연기할 것을 고려하였다가 거센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5·30 선거를 실시하였다.

5·30선거는 제헌국회의 의석보다 10석이 증가한 210석에 총 2209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그러나 정당별 소속을 보면 이들 중 1513명이 무소속으로 대한국민당의 165명과 민주국민당의 154명을 압도함으로써 아직도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못한 것을 반영하였다. 5·30선거에서 후보자를 낸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39개나 되어 정당의 난립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더욱이 이들 중 30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고작 10명 이내의 후보자를 내었으며, 겨우 후보 1명만을 출마시킨 정당·단체가 무려 18개나 되었다. 특히 210명의 의원 정수 중에서 3분의 2선에 가까운 126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는데 비하여, 당시 양대 정당이었던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은 각기 24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군소 정당이나 사회단체로서 국민회 14명, 대한청년단 10명, 대한노동총연맹 3명, 사회당 2명, 일민구락부 3명, 민족자주연맹·대한부인회·불교·여자국민당이 각기 1명씩

표 2-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나이	주 소	직 업	경 력	소 속	득표 수	비 고
시흥군 (5인)	이재형	남	35	시흥군 남면 산본리 343	금융업	일본대전문부법과 졸, 국회의원	국민당	12,148	당선
	전규설	남	43	시흥군 동면 시흥리	회사원	중졸, 공장장	무소속	7,520	
	양서홍	남	41	시흥군 동면 시흥리	농업	중졸, 교원	한청	6,855	
	이영섭	남	51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잠사업	중졸, 면장, 회사원	무소속	10,059	
	김상기	남	50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목사	초등 졸, 농업	무소속	2,062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당선되었다. 당시 양대 정당이었던 국민당과 민국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9.7%, 9.8%로 극히 저조하였다.

경기도에서의 선거 결과를 보면, 전체 의석 수 210의 7분의 1인 30명이 경기도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었다. 그런데 이 중 19명이 무소속 출마자들이어서 전국적 추세와 일치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국민당 6명, 민국당 3명, 사회당과 일민구락부 각기 1명씩이 당선되었다. 총 314명의 경기도 출마자들 중에서 30명이 당선됨으로써 약 10대 1을 보인 경쟁률도 전국적 경향과 거의 흡사하였다.

시흥군의 경우 5명이 출마하여 국민당 소속인 이재형이 초대에 이어 2대에도 당선되었다. 차점자는 무소속의 이영섭, 무소속 전규설, 한청 소속 양서홍, 무소속 김상기 순이었다.

제3절 제3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은 ‘발췌개헌’에 의하여 끝을 맺었다. 그 중요한 골자는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시하의 복잡한 정세로 말미암아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한 채 제2대 국회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선거법에 의해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1954년 5월 20일 실시되었다. 제3대 총선은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각기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당정치에의 기틀이 법적으로나마 마련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자유당 정권의 지나친 독주로 인해 실효를 거둘 수는 없었다.

그 당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수는 총 8,446,509명이었다. 무소속을 비롯한 14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한 이 선거에서 후보자는 총 1207명

표 2-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나이	주 소	직 업	경 력	소 속	득표 수	비 고
시흥군 (3인)	백봉운	남	30	시흥군 남면 소하리 30-9	회사원	일본법대법과 중퇴 회사 중역, 국민당중앙위원	민국당	8,433	
	이재형	남	39	시흥군 남면 산본리 343	민원의의원	일본중앙대학법학과 졸, 전 상공부장관, 민의원의원	무소속	사퇴	
	이영섭	남	54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농업	중앙중 졸, 회사 사장, 안양중학 이사장	자유당	24,359	당선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으로 평균 5.9대 1의 비율을 이루었다. 개표 결과 당선자는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무소속과 민주국민당은 각각 67명과 15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득표 수에서는 무소속이 3,591,617표로 47.9%를 획득한 데 비해, 집권 자유당은 2,756,601표로 36.8%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시흥군에서는 본래 3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나 초대와 2대에 걸쳐 연거푸 당선되었던 이재형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중도 사퇴하고 이영섭과 백봉운 2명만 선거에 임하여 그 당시 자유당으로 출마하였던 이영섭이 야당으로 출마한 백봉운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4절 제4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상술한 바와 같이 양원제의 개헌안 공포에 따라 참의원 선거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자유당 정부는 몇 차례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3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에서 상반된 견해가 너무 많았으므로 국회는 ‘국회의원선거법안 여야협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그리하여 무려 80여 회의 협상을 거쳐 민의원의원 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완성되었다. 개정된 양원 선거법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의원선거법은 선거구 수의 증가(233구), 기탁금제도(50만 원) 도입, 선거 비용의 제한, 투표함 보전 신청권 부여, 공명선거를 위한 벌칙 강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표 2-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나이	주 소	직 업	경 력	소 속	득표 수	비 고
시흥군 (4인)	이재형	남	43	시흥군 남면 산본리 343	농업	일본대전전문부법과 졸, 제헌국회의원, 상공부장관	자유당	15,128	당선
	홍현표	남	51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변호사	경도제대경제학부 졸, 군수, 재무부사계국장, 기획처 차장, 내무부차관, 성균관대 부총장·총장	민주당 (공천)	8,455	
	황의성	남	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1	청부업	경기공립직업학교 토목과 졸, 조흥토목회사 취체역 사장, 대한토목학회 이사	자유당 (공천)	13,414	
	이영섭	남	58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633	민의원	중앙고 졸, 민의원	무소속	3,881	

자료: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둘째, 참의원선거법은 인구 60만에 2명씩 선출하고,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는 각각 35개 구, 70명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는 민의원의 그것을 준용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1958년 5월 2일 제4대 총선이 실시되었다. 당시 시흥군에서는 이재형(李載瀾)이 1~2대에 이어 3선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당시 직업이 농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 일본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고 제헌국회의원과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한때 상공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촌야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무소속이 급격히 퇴조하면서 양당정치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 선거는 유례 없는 부정선거로 기록되었다.

제5절 제5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여 1960년 7월 29일 실시되었다. 양원 국회를 위한 7·29 총선거가 있기까지는 그 간에 실로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자유당 치하의 3·15 부정선거, 이에 항거한 대대적인 4·19 학생시위, 4월 26일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과 4월 27일 국회에 사임서 제출, 그에 따른 당시 수석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외무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으로 4·19 이후의 사태 수습을

표 2-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나이	주 소	직 업	경 력	소 속	득표 수	비 고
시흥군 (6인)	박영성	남	28	시흥군 서면 하안리 476	회사원	단국대 졸, 전국학도호국단 중앙위원장	무소속	6,923	
	김용진	남	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가 109-2	치과의사	경성치대 졸, 대한치과의사회장, 서울치대 이사	무소속	2,705	
	홍현표	남	53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73-21	변호사	경도제대 졸, 내무부 차관, 성균관대학 부총장	무소속	8,696	차점
	백봉운	남	36	시흥군 서면 소하리 30-9	무직	일본법대 중퇴, 민주당 군당위원장	민주당	8,515	
	정병학	남	4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7	대학교수	서울대 졸, 서울대 강사	무소속	2,658	
	이재형	남	45	시흥군 남면 산본리 343	민의원	일본중앙대 졸, 상공부장관, 4대민의원	무소속	15,112	당선

자료 : 시흥군지(시흥군지편찬위원회 간 1988)

위한 허정과도체제의 출범, 뒤이어 양원 국회와 내각책임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 등이 그것이었다.

민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7·29총선은 이렇듯 정치적 격동기를 거친 직후의 선거였으므로 제헌국회의원 선거 때와 유사한 정치적 혼란과 과열현상을 빚었다. 전국의 민의원 입후보자는 1562명이었고, 참의원 입후보자는 218명이었는데, 의원 정수 58석을 놓고 약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선거 결과 민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 175명, 무소속 49명, 사회대 중당 4명, 자유당 2명, 기타 정당에서 3명이 당선되었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31명, 무소속 20명, 4명의 자유당 의원과 기타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민의원 25명 정수에 민주당 14명의 당선자를 내어 56%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무소속 후보들이었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수 6명에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자유당 1명이 당선되었다. 시흥군의 경우 민의원에 6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당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었던 이재형이 압도적 다수로 당선되었다.

참의원의 경우 경기도의 정수가 모두 6명이었으나 시흥군의 경우 1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참의원 선거는 민의원 선거와는 달라 대선거구제로서 시흥군만의 선거는 없었다.

제6절 제6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5·16군사쿠데타는 헌정의 중단을 초래하였다. 이에 장면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하고 곧이어 군사정부가 수립되었다. 특히 군사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공포한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제도의 커다란 개혁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선거구의 개편(전국구와 지역구로 양분), 부재자 투표제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화, 정당추천제, 투표 시간의 연장(오전 7시~오후 5시) 등이 개정의 주요 골자였다. 요컨대 제3공화국의 국회의원선거법은 정당국가적 조향을 도입하고 선거운동의 주체가 정당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방법도 극히 제한하는 공영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가 1963년 11월 26일에 실시되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수는 1963년 11월 10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사된 인구 수 26,278,025명의 50.8%에 해당하는 13,344,149명이었

표 2-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나이	본적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제 13지역구 시흥군 부천군 옹진군 (6인)	1	자유당	박계상	남	28	경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산 10-12	무직	한양공업고등학교 졸	범민여론사기자, 지구당위원장	4,345	
	2	신민회	김억배	남	48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65-2	회사원	일본대학법과 전문부 졸	대한물산 이사	1,719	
	3	자유 민주당	정용규	남	33	경기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585	실업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수료	우주문화사 대표	2,609	
	6	국민 의당	박제환	남	58	경기	부천군 소사읍 벌웅절리 165	농업	일본동지사대학 졸	제2,5대 민의원	18,388	차점
	8	민주당	박승희	남	44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327	회사원	일본경도대학원 졸	대한정밀공업 회사 사장	12,320	
	9	민정당	엄기옥	남	50	서울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377	회사원	구 보전상과 졸	월산산업회사 이사회장	10,032	
	10	정민회	김재호	남	30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4-20	상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	고등학교 교사	2,122	
	11	추풍회	이범석	남	51	서울	수원시 화서동 17	무직	서울상업부기전문 학교 졸		2,390	
	12	민주 공화당	육조남	남	45	서울	부천군 소사읍 중리 675	회사 중역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졸	경희대학교 법과 대학 주임교수, 고등고시위원	19,522	당선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고,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은 유권자 총수의 72.1%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개표 결과 정당별 당선자는 민주공화당이 의원 정수의 62.8%에 해당하는 110명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민정당은 41명을 차지하였다. 이를 정당별로 나누어 보면 공화당·민정당·민주당이 각각 33.5%, 20.1%, 13.6%를 획득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공화당이 투표자 총수의 32.4%를 얻는 데 그쳤음에도 의석 수에서는 전체 175개 의석 중 무려 110석을 장악함으로써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당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시흥군은 부천군·옹진군과 더불어 한 개의 선거구가 되었다. 이 개정된 선거법 아래 3개 군을 합쳐서 모두 9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민주공화당 옥조남 후보가 당선되었다. 옥조남 후보의 주소는 부천군 소사읍이었고 직업은 회사 중역으로 되어 있었다. 그의 최종학력은 동경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이었고, 경력은 경희대학교 교수와 고등고시위원 역임이었다.

제7절 제7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되었다. 제6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가 131석이었고 전국구가 44석이었다. 모두 11개 정당에서 지역구에 702명이 출마하였고, 전국구 후보는 119명이었다. 지역구 대표는 전국 평균 5.4대 1이었고, 전국구는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선거 결과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지역구에서 131석 중 102석을 확보하였으며 전국구에서 44의석 중 27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위한 의석 수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추후 1969년 9월 14일 3선 개헌의 큰 파동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야당인 신민당은 지역구에서 28명, 전국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고, 나머지 1명은 대중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선거의 특징은 전형적인 여초야도 현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야당이 선거전을 군부세력과의 투쟁으로 규정지은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었다. 당시 야당은 통합에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이 빚어낸 부의 편중이나 권력의 독점 등을 대대적으로 비난하였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동안 박정희 군사정권이 양적인 고도 성장을 추진해 온

표 2-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나이	본적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제 13지역구 시흥군 부천군 옹진군 (6인)	2	자유당	박제상	남	31	경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산 10-12	육영 사업	독학	중앙예술학원장, 자유당중앙당무위원	2,501	
	3	민중당	이병상	남	44	충남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2-3	농업	대졸	민중당시흥군당위원장 및 중앙책임위원, 경기도당위원장	1,526	
	5	대중당	장석규	남	32	경기	부천군 소래면 옥길리 산 59	농업	대졸		1,371	
	6	신민당	박제한	남	62	경기	부천군 소사읍 벌응절리 165	농업	대졸	제2대 국회의원, 농림부장관	30,620	차점
	7	민주 공화당	오학진	남	39	경기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608	국회 의원	대졸	민주공화당 경기도 제13지구당위원장	56,024	당선
	11	민주당	안동선	남	31	경기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415	무직	대졸	신민당 경기도지부 선전위원장·신민당 중앙당유세부차장	2,157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앙당의 지원을 받아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한 점이나 무소속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선거법이 정당정치 기틀을 마련한 점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당이 무려 11개나 난립하는 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당시 시흥군은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부천군·옹진군과 함께 경기도 제13지역구가 되어 모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다. 개표 결과 민주공화당 후보 오학진(吳學鑑)이 56,024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당선되었고, 민주당 소속으로 이병상이 겨우 1526표를 얻는 데 그쳤다. 당선된 오학진은 당시 민주공화당 경기도 제13지구당 위원장이었다.

제8절 제8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1970년 12월 18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1971년 5월 25일에 일제히 실시되었다. 지역구가 153개로 늘어났고 전국구도 51개로 증설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6개 정당이 지역구 후보로 577명, 전국구 후보로 121명을 출마시킴으로써 지역구가 3.8대 1, 전국구가 2.5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표 2-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나이	본적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제15지구 선거구 시흥 (3인)	1	민주 공화당	이영호	남	57	서울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산 701	국회 의원	중앙대학교 법대 졸업	국회예산결산위원	24,324	차점
	2	신민당	이택돈	남	36	경기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391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34,535	당선
	3	국민당	박제상	남	35	경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동 149-2	정치인	독학	중앙학원 원장, 모범 운수주식회사 사장	1,364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전국의 총 선거인 수는 1,697,587명으로 이 중 72.4%인 1,229,019명이 투표하였고 유효투표는 1,206,033표였다. 선거 결과 정당별 당선자 수는 전국에서 민주공화당이 86개의 지역구 의석과 27개의 전국구 의석을 확보한 데 비하여 신민당은 지역구 65석과 전국구 24석을 얻었고, 나머지 군소 정당으로는 국민당과 민주당이 각기 1석씩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16명의 지역구의원 정수 중에서 민주공화당이 11명, 신민당이 4명, 그리고 민주당이 1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특히 경기도에 있어서의 민주공화당(여당)과 신민당(야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주공화당은 전체 유효투표의 49.5%인 608,693표를 얻어 11명을 당선시킴으로써 18.8%의 의석 점유율을 보인 반면, 신민당은 전체 유효투표의 39.8%를 얻고서도 겨우 4명밖에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괴리현상은 전국의 투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민주공화당은 5,460,581표(48.8%)를 얻어 신민당의 4,969,050표(44.4%)보다 불과 4.4% 더 득표하였으나, 의석 점유율에 있어서 민주공화당은 55.4%로 신민당의 43.6%보다 무려 11.8%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흥군은 다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제15지역 선거구로 단독 편성되어 시흥군에서만 3명의 후보자를 내었다. 당시 특기할 만한 점은 야당인 신민당으로 출마하였던 이택돈이 여당(민주공화당)으로 출마하였던 이영호를 1만 표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이택돈은 시흥군 고잔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었다.

제9절 제9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1972년 10월 17일 소위 ‘10월유신’으로 알려진 민주헌정사의 굴절로 국회가 해산되고, ‘유신헌법’에 대하여 동년 11월 2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총 유권자의 91.9%가 투표에 참가하여 91.5%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다.

이어 제4공화국이 출범되었고 72년 12월 30일 새 국회의원 선거법과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새 국회의원선거법은 중선거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모두 73개의 선거구에서 1구 2명을 선출토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146명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73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정수는 219명으로 증가하였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금지되었던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다시 허용되었다. 1973년 2월 27일 시행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전국에서 모두 33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침으로써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들의 정당별 소속을 보면 민주공화당 80명, 신민당 87명, 민주통일당 57명, 무소속 115명이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의원 정수 16명에 대해 34명이 출마함으로써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들의 정당 소속은 민주공화당 9명, 신민당 7명, 민주통일당 7명, 무소속 11명이었다. 선거 결과는 우선 전체 인구의 49.8%인 15,690,130명이 국회의원 선거인으로, 이 중 72.9%인 11,196,484

표 2-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본직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제 6선거구 부천 시흥 용진 (5인)	1	민주 공화당	오학진	남	1928. 1. 4	경기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608	무	육대 졸업	국회상공분과위원장	42,209	당선
	2	신민당	이택돈	남	1935. 1. 27	경기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391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	서울고법 판사, 제8대 국회의원	49,646	당선
	3	민주 통일당	안동선	남	1935. 10. 5	경기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415	무	성균관대 중퇴	신민당 경기도제16 지구당위원장, 민주통일당 경기도 제6지구당위원장	22,394	
	4	무소속	김낙진	남	1928. 1. 19	경기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130-1	의사	서울의대 졸업	도정자문위원	5,186	
	5	무소속	김봉기	남	1936. 12. 1	경기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860-50	회사 사업	경희대 법대 4년 중퇴	승공연합 경기도 단장	3,957	

자료: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투표 결과 민주공화당이 73명, 신민당이 52명, 민주통일당 2명, 무소속 후보 19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경기도의 경우 민주공화당 9명, 신민당 6명, 무소속 후보 1명 등 모두 16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시흥군의 경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부천·옹진과 함께 경기도 제6선거구로 편성되었는데, 제6선거구에서는 5명이 출마하여 2명이 당선되었다. 1위 당선자는 제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택돈이었고, 차점 당선자는 여당의 오학진이었다. 특이한 것은 1위 이택돈과 2위 오학진의 표차가 불과 437표였다.

제10절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제10대 총선을 앞두고 1977년도 정기국회에서는 20여일 간의 여야 협상 끝에 국회의원선거법 일부를 개정·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증원(231명), 기탁금 인상, 선거사무원의 교체 금지 조항 삭제, 정당 추천 투표 참관인제도의 신설, 일부 선거구의 조정 등이었다. 이 같은 선거법을 기반으로 이듬해인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의원 총수는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된 154명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77명을 합하여 총 231 명에 달하였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수는 인구 수 36,228,754명의 53.8%에 해당하는 19,489,490명이었고, 투표 수는 유권자 총수의 77.1%에 해당하는 15,023,370표로, 제9대 총선시의 72.9%보다 4.2%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유효투표 총수도 15,023,376표의 98.6%에 해당하는 14,812,443표로 지난 총선시보다 약 0.5%가 높았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이 전체 의원 정수 154명 중 68명의 당선자를 내었고 신민당이 61명, 민주통일당이 3명, 무소속이 22명이었다. 여당인 공화당은 신

표 2-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본직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제 6선거구 부천 안양 시흥 옹진 (4인)	1	민주 공화당	윤국로	남	1936.5.6	경기	시흥군 남면 당정리 85	회사 대표	경희대 경제과 졸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81,161	당선
	2	신민당	이택돈	남	1935.1.27	경기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391	국회 의원	서울법대 졸	서울민사·형사지방 법원 판사	108,066	당선
	3	민주 통일당	신하철	남	1934.2.15	경기	시흥군 의왕면 3리 192	농업	중앙대 대학원 수료	민주통일당 경기 제6지구당위원장	20,778	
	4	무소속	안동선	남	1935.10.5	경기	부천시 심곡동 415	상업	성균관대 법정대 중퇴	민주통일당 중앙당조직국장	36,678	

자료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민당에 비해 당선자 수가 7명이 더 많았지만 득표율에 있어서는 4,695,995표로 4,861,204표를 얻은 신민당에 1.1%를 뒤졌다. 잘못된 선거법의 영향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모두 1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에 42명이 입후보함으로써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시흥군은 안양·부천·옹진과 함께 경기도 제6선거구에서 4명이 출마하여 신민당 이택돈 의원과 민주공화당 윤국로 의원이 당선되었다. 수위로 당선된 이택돈 의원은 시흥군 수암면 출신의 3선의원이었고 여당인 윤국로 의원은 시흥군 남면 출신의 재선의원이었다.

제11절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분출된 이른바 ‘1980년 민주화의 봄’은 모든 국민들의 새로운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사회 혼란만 가중되었다.

그리하여 신군부 세력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을 기하여 내려진 전국적인 계엄 확대 조치는 헌정의 일시적인 중단을 가져왔고, 곧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였으며,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돌연 하야하고, 예편한 전두환 장군이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해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전문 10장 131조 부칙 10조의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를 거쳐 3월 3일 임기 7년 단임의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곧이어 1981년 3월 25일에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개 정당의 529명의 후보와 무소속 105명을 합하여 전체 634명의 후보들이 등록함으로써 평균 3.4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 21,094,468명 중 16,397,84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총 투표자의 98.8%에 해당하는 16,207,325표의 유효투표를 내었다.

경기도의 경우 총 유권자는 전체 도민의 57.9%인 2,795,272명이었고, 이 중 76.1%인 2,127,70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8.9%에 해당하는 2,105,598표의 유효투표를 내었다.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 12명, 민주한국당 10명, 한국국민당 1명의 당선자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제 6선거구 안양 시흥 웅진 (7인)	1	민주 정의당	윤국로	남	1936. 5. 6	경기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 85	정치인	경희대 경제과 졸	한국청년회의소 중앙 회장,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제10대 국회의원	81,351	당선
	2	민주 한국당	이석용	남	1938. 4. 26	경기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 91	정당원	서울법대 졸	대우실업(주) 이사, 대우전자(주) 사장,	57,444	당선
	3	신정당	김종면	남	1938. 10. 21	경기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 290-23	언론인	중앙대 사회 개발대학원 수료	경기신문 기자, 광명라이온스크럽 회장, 시흥군행정자문위원	9,758	
	4	통일 민족당	신하철	남	1934. 2. 15	경기	시흥군 의왕읍 3리 192	농업	중앙대 사회 개발대학원 수료	민주통일당 경기도 위원장, 정당 간부로 동남아 시찰	20,368	
	5	민주 사회당	박제상	남	1935. 6. 22	경기	안양시 안양동 503-33	공익 사업	동국대 행정 대학원 수료	신민당중앙상무위원, 6·7·8대국회의원 입후보 치안문제연구소 사무국장	19,234	
	6	민권당	염재평	남	1925. 3. 2	경남	안양시 안양동 814	무	서울농대 졸	안양원예협동조합장 피선, 농촌진흥청 공무원 교육원 강사, 일본농림 성 초청 기술농업 시찰	12,636	
	7	한국 국민당	권수창	남	1943. 1. 17	경기	안양시 안양동 627-202	상업	중앙대 경영대 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대), 한국반공연맹 안양시지부장	40,163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시흥군의 경우 웅진군·안양시와 함께 경기 제6선거구에 속하였는데, 제6선거구에는 민정당의 윤국로, 민한당의 이석용, 신정당의 김종일, 신민당의 신하철, 민사당의 박제상 등 7명의 후보가 의석을 놓고 다투어 민정당의 윤국로가 81,351표, 신한당의 이석용이 57,444표를 얻어 함께 당선되었다.

제12절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군

1985년은 벽두부터 총선의 열기로 가득찼다. 정치활동의 규제에서 풀려난 해금인사들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이 1월 중순 창당되어 제12대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합동유세에 돌입한 총선은 김영삼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었던 신민당 돌풍을 일으킴으로써 기존 야당인 민한당이 와해되는 등 새로운 정치 풍토를 낳기에 이르렀다.

표 2-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87년 2월 12일)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제 선거구 안양 광명 시흥 옹진 (6인)	1	한국 국민당	김종면	남	1938. 10. 21	인천 북구	광명시 광명 4동 158-1387	회사 대표	중앙대 사회 개발대학원 수료	신정사회당대변인, 광명라이온스클럽 3대 회장, 제11대 국회의원 입후보	8,805	
	2	신한 민주당	이택돈	남	1935. 1. 27	경기 시흥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390	변호사	서울법대 졸	대법원재판연구관, 제8, 9, 10대 국회의원, 신민당대변인·정책 심의회 의장	194,690	당선
	3	민주 한국당	이석용	남	1938. 4. 26	경기 시흥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 91	국회 의원	서울법대 졸	대우전자(주) 사장, 민주한국당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3차)	70,973	
	4	신정 사회당	김정길	남	1944. 8. 20	경기 시흥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4동 1584-22	정치인	서라벌 예대 문예 창작과 졸	통일사회당 간사, 민사당 당무위원, 신정사회당 사무차장	6,196	
	5	민주 정의당	윤국로	남	1936. 5. 6	경기 안양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 85	국회 의원	경희대 경제학과 졸	한국청년회의소 중앙 회장, 제10, 11대 국회 의원, 민주정의당 원내 수석부총무	121,949	당선
	6	민권당	곽인수	남	1948. 5. 20	충남 홍성	광명시 철산동 56-169	회사 이사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반석교회 집사, 민권당 정무위원, 민권당 홍보대책위원장	10,940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이 같은 복잡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제12대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는 반년 전에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다수 득표제(2명), 기탁금제도, 선거운동의 제한, 투표 시간 조정(오전 7시~오후 6시), 그리고 지역구 의석 정수의 2분의 1을 전국구로 선출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985년 2월 12일 실시되었는데, 전국의 유권자 수는 인구 수 40,361,844명의 59.4%에 해당하는 23,987,830명이었고, 이 중 20,286,67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4.6%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87석과 전국구 61석 등 총 148석을 차지하였고, 선명야당의 기치로 창당된 신민당은 지역구 50석과 전국구 17석 등 총 67석을 확보하여 일약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제11대 국회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은 지역구 26석과 전국구 9석을 합해 35석을 얻는데 그

쳐 참패를 당하였다. 한국국민당도 지역구 15석과 전국구 5석을 합해 20석을 얻는데 그쳤다. 정당별 득표율은 민정당이 35.25%, 신민당이 29.26%, 민한당이 19.68% 등이었다.

한편 제1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신민당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제기함에 따라 여당과의 충돌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이 1987년 10월 12일 재적의원 272명 중 254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동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흥군의 경우는 경기도 제4선거구에 편입되었는데, 다른 군은 안양·광명·옹진이었다. 선거 결과는 모두 6명이 출마하여 신민당 이택돈 의원이 194,690표, 민정당 윤국로가 121,949표를 얻어 두 사람이 동반 당선되었다.

제13절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와 안산시

제13대 총선은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이 출범한 후 동년 4월 26일 실시되었다. 제6공화국의 첫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가 선거구제의 결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거듭하다가 야당측에서 강력히 주장해 온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전국 224개 선거구와 75명의 전국구위원을 선출하는 새 국회의원선거법이 확정되었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소형인쇄물 배포의 허용 등으로 선거운동의 기회가 확대된 가운데 실시되었다. 선거일이 공고되고 각 정당 후보들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는데, 선거전의 가장 커다란 이슈는 제5공화국의 비리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었다.

투표 결과는 예상을 넘어 정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여당인 민정당이 전체 의석 299석 중 불과 125석만을 차지하여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야당에서는 호남지방에 지지기반을 두고 서울 등에서 우세를 보인 평화민주당이 70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정당이 의석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공화당과의 3야 협력체제를 이룰 때 여소야대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제13대 총선에서 우리의 안산시는 1986년의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표 2-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88년 4월 26일)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안산시 웅진군	1	민주 정의당	장경우	남	1942. 4. 12	경기 안산시 성포동	지구당 위원장	고대 경영 학과 졸	11대 국회의원, 사단법인 중·소도시 발전연구소 위원장	35,161	당선
	2	통일 민주당	정진일	남	1944. 2. 17	경기 안산시 고잔동	지구당 위원장	서울대 사회 학과 졸	한국학생총연맹부위원장, (주)화승그룹 임원	18,518	
	3	평화 민주당	송진섭	남	1949. 8. 13	경기 안산시 초지동	지구당 위원장	덕수상고 졸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한국 기독교청년협의회회장	16,805	
	4	무소속	이영복	남	1942. 2. 23	경기 안산시 원곡동	회사원	동인천고 졸	삼기물산오산공장 근무,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체육회 사무국장	5,977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흥군에서 독립하여 비로소 명실상부한 독립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 개
정된 선거법에 따라 웅진군과 함께 소선거구로 확정되었다.

제13대 총선에서 안산시와 웅진군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후보자
의 출신지는 4명 모두 안산시였는데, 그 중 민주정의당의 장경우가 당선되었
다. 장경우는 11대 국회의원과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었다. 차
점자는 정진일이었는데, 그의 소속은 통일민주당이었고 지구당위원장을 역임
하였다. 3위 득표자는 평화민주당 소속 송진섭이었는데, 그는 대한예수교장
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을 역임한 기독교인이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영복은 회사원 출신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당시 경기도에서는 총 유권자 3,13,513명 중 2,435,115
명이 투표하여 71.3%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민정당이 16석, 평민당이 1석,
민주당이 4석, 공화당이 6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여 집권 여당인 민정당
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제14절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와 안산시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권(제6공화국)은 국정지표를 “보통사람들의 위대
한 시대를 연다.”로 설정하고 (1) 민족자존, (2) 민주화합, (3) 균형발전, (4) 통
일번영 등의 4대시정방침을 설정하였다.

국정지표의 실천적 이념으로는 정치·사회적으로 인권과 자율의 보장과 통

일 대국을 위한 북방정책의 추진이었다. 이와 함께 노태우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므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처리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체제의 하위체제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기할 만한 헌법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국회의 경우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다. 둘째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박정희·전두환 두 정권에 비하여 강화되었다. 셋째로 사법부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여 법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이상 요약한 제6공화국의 중요 헌법 내용은 민주헌법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정체제에 있어서도 민주화 요구에 맞는 행정기구의 정비, 새로운 행정수요 팽창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불필요한 기구 정비 등을 이룩하려는 일련의 구조조정 노력이 돋보였다. 체육부와 문교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조정하고, 외무부·보건사회부·노동부·교통부 등의 일부 기능을 행정수요에 따라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능 조정은 국제화·산업화·도시화 등에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노태우는 12·12사건으로 정치에 등장하였으나 박정희의 후반 체제, 전두환체제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정치체제를 구성하지 못하여 정통성이 빈약하였던 것에 비하여,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정치체제를 구성하였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정통성 빈약에서 오는 약점은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었으나 국민소득의 증가, 도시화, 사회구조의 분화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는 행정체제의 대응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 마디로 노태우 체제는 국민의 지지에 의하여 정통성을 확보하고는 있었으나 행정체제는 박정희·전두환 체제의 성격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다. 즉 행정체제는 군부와 관료집단에 의하여 주도되는 조합주의적인 관료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자 계층의 권리 확대 행정과 민간영역과의 업무 조정,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산업구조정책 등의 과제를 행정체제가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 중반부터 발생한 외형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촉진된 토지가격의 상승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장애로 등장하였다. 1980년 중반 3저현상으로 인한 국제수지 흑자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생겨나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

표 2-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1992년 3월 24일)

지역	번호	소속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	비 고
안산시 웅진군	1	민주 자유당	장경우	남	1942. 4. 12	경기 안산시 성포동	국회의원	고려대 졸	제11, 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사무부총장	51,837	당선
	2	민주당	김동현	남	1944. 7. 31	경기 안산시 성포동	변호사	영남대 졸	제천고교 교사, 중앙 일보 신춘문예 당선	47,496	
	3	통일 국민당	송진섭	남	1949. 8. 13	경기 안산시 선부동	정당인	숭실대노사 관계대학원 2년 수료	(구) 평화민주당 안산시· 웅진군지구당 위원장, 제13대 국회의원 입후보	27,036	
	4	민중당	전 성	남	1958. 10. 17	경기 안산시 본오동	정당인	고려대 졸	전국노동운동단체 협의회 중앙위원, 한국 노동당(가칭) 창준위 사무총장	4,859	
	5	무소속	장용렬	남	1962. 2. 3	경기 안산시 선부동	삼양금속 노동조합 위원장	동양공업 전문대 졸	90년경기남부지역노조 연합 교육국장, 92년 전국노조협의회민주 노조상 수상	6,179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는 등 이에 대한 대응에 행정은 크게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정관료의 충원은 시험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행정부처의 고위직 및 정부직도 행정관료 출신으로 충원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놓고 체제와 환경이 갈등을 빚는 사례는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분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한편 동서냉전의 국면에서 탈피하게 되면서 노태우 정권은 사회주의체제와도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교정책의 전환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외교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정책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노출시키게 되었다.

행정관료들의 역할과 범위는 확대되었고, 행정 권한의 증대는 규제와 조정 업무를 증대시키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 조정에 따른 문제가 행정체제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행정적·정치적 변화 속에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1992년 3월 24일 시행되었다. 안산시는 웅진군과 함께 4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는데, 여당(민주자유당)으로 입후보한 장경우 후보가 51,837표로 당선되었다. 차점자는 민주당의 김동현 후보로 47,496표를 얻었고, 3위는 통일국민당의 송진섭 후보로 27,036표를 얻었으며, 민중당의 전성 후보는 4859표에 머물렀다.



사진 2-1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
장의 모습이다.

당선된 장경우 후보는 안산시 성포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1대·제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3위 득표자 송진섭(96년 현재 안산시장) 후보는 숭실대학교 출신으로 평민당 안산·옹진 지구당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차위 김동현 후보는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었다.

제15절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안산시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정권으로서, 군인 출신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와는 달리 민간인 출신 정치 엘리트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된 정권이었다. 김영삼은 정치 엘리트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놓고 군부 세력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정권을 창출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간 정치인 출신인 김영삼 세력은 군부 세력과 3당통합을 통해 집권하였으므로, 정치체제에서 민간정부로 출범하였으나 민간 중심의 민주화 추구 세력과 군부체제에서 협력한 세력과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 말기의 인플레이에 따른 물가 양등의 해결,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해소, 성장 및 능률 위주의 행정 성과가 지배하는 행정문화의 재정립, 성장 이익에 따른 계층 간의 균형 개발을 위한 사회계층

간의 불균형의 해결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문민민주주의 시대의 선언에 따른 ‘신한국의 창조’를 상징적인 구호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화를 위한 3대 당면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 경제 회생, 국가기강 확립의 실현을 내세웠다.

군사정권과 군사문화의 성격에서 탈피한 민간정부의 출현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함께 권위주의 집권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에 대체하는 정치·행정 체제가 요구되었다.

“신한국은 살맛 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정의사회,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문명사회, 그리고 온 민족이 다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통일된 조국”을 의미하였다. 신한국은 인간다운 삶, 건강한 삶, 더불어 사는 삶, 풍요로운 문화의 삶, 그리고 세계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한국을 창조해 갈 국정지표로 문민정부로서의 김영삼 정권이 제시한 것은 (1) 깨끗한 정부, (2) 튼튼한 경제, (3) 건강한 사회, (4) 통일된 조국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체제는 권위주의 집권체제에서의 부작용과 부정적인 측면을 탈피하기 위하여 사회 분화에 따른 정치체제의 분화가 요구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과제는 제도적인 개편과 모든 분야에 걸친 참다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되었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기 위한 부패공직자에 대한 숙정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이 숙정 활동은 처음에 ‘윗물맑기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전·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 전·현직 장·차관 등과 많은 정·관계 인물들이 재산의 부정축재와 관련되어 도태 또는 형사처벌되었다. 그리고 사정활동은 점차 하위공직자들에게도 파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권위주의 조직체계 내에서 관료집단의 팽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체제는 행정적·사법적 통제활동의 전통적인 제약을 철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추구하였다. 과거 외부적 통제가 없었던 권력의 핵심부나 권력기관, 특히 군사조직들에게도 실질적인 감사와 수사를 실시하였다. 군의 인사비리를 파헤쳐 비리를 저지른 지휘관을 처벌하고, 대형 무기구입사업(울곡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검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와 소추도 김영삼 체제에서의 특기할 만한 일이다.

한편 부패 억제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표 2-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갑구·을구/1996년 4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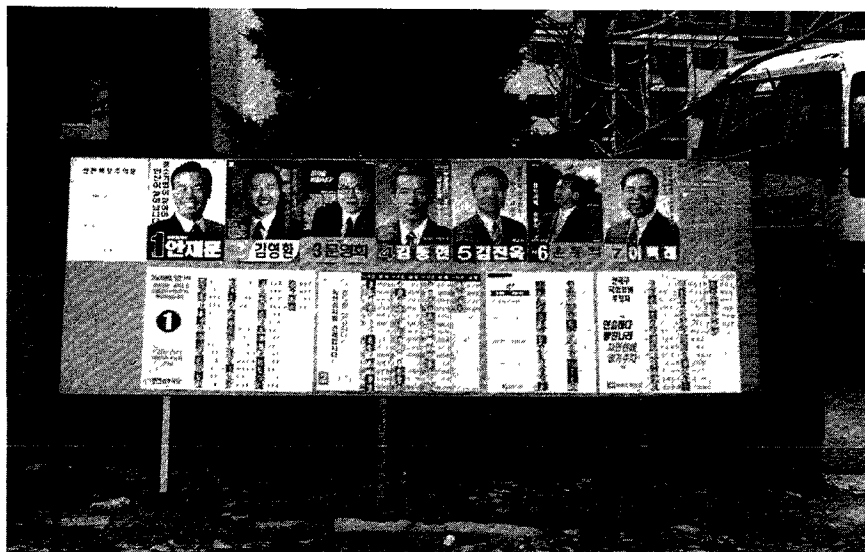
지역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 고
안 산 시 · 갑	1	신 한국당	안재문	남	1936. 2. 20	경기 안산시 본오동	대륙전선 (주)대표	한대 산업경 영대학원 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대륙전선(주) 대표이사	30,181 (32.5)	
	2	새정치 국민회의	김영환	남	1955. 5. 27	경기 안산시 성포동	치과의사	연세대 치대 졸	77년 긴급조치위반 2년 투옥, 87-95재야시민운동	31,997 (34.4)	당선
	3	통합 민주당	문영희	남	1943. 9. 2	경기 안산시 월곡동	정당인	서울대 독어 독문학과 졸	동아일보 정치·경제부 기자, 한겨레신문 논설 위원	8,546 (9.2)	
	4	자유민주 연합	김동현	남	1944. 7. 31	경기 안산시 본오동	변호사	영남대 2부 법학과 졸	대구 대명초등 교사 외 4개교, 중앙일보 신춘 문에 시 당선	17,102 (18.4)	
	5	무소속	김진옥	남	1951. 6. 7	경기 안산시 성포동	반월운수 (주)대표	육군제3사관 학교 졸	안산시장 애인후원회 회장, 안산시 야구연맹· 탁구협회장	2,765 (3.0)	
	6	무소속	윤동혁	남	1961. 1. 28	경기 안산시 본오동	상업	인천체육고 1년 중퇴	13대선 김대중선거대책 위원, 연청지도위원	788 (0.8)	
	7	무소속	이백래	남	1955. 5. 14	경기 안산시 팔곡2동	김두희법 무사무장	경희대 경영 대학원 졸	법무사 사무장, 한국 민생신문사 고문	1,505 (1.6)	
안 산 시 · 을	1	신 한국당	이상룡	남	1937. 8. 18	경기 안산시 선부3동	정당인	한양대 산업 경영대학원 졸	안산·수원시장, 부천시장	30,984 (32.6)	
	2	새정치 국민회의	천정배	남	1954. 12. 12	경기 안산시 선부동	변호사	서울대 법과 대학원 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해마루종합법률 사무소 대표	36,902 (38.8)	당선
	3	통합 민주당	장경우	남	1942. 4. 12	경기 안산시 선부3동	정당인	고대 경영 학과 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대우그룹 상무	11,274 (11.9)	
	4	자유민주 연합	윤문원	남	1953. 8. 28	경기 안산시 와동	정당인	한대 정치 외교학과 졸	21세기안산발전연구소장, 한양대총학생회장	13,897 (14.6)	
	5	무소속	김선필	남	1954. 7. 16	경기 안산시 선부동	한기프랜 트 대표	북부산고 졸	대한정 의사회구현봉사 회장, (주)한기프랜트 대표이사	2,037 (2.1)	

자료 :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실시한 것이 공직자 재산 공개와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다. 처음에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대통령이 출선하는 가운데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패와 부정축재의 사례가 노출되고 제재를 받았다. 그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 등록 의무자 가운데서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는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여 공직의 부패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 기대되지만 제도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관권선거·금권선거를 막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며 정치와 행정을

사진 2-2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안산시 갑구 7명의 입후보자 벽보이다.



정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제도적 장치의 기초는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이었고, 이에 대한 실천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정치 발전의 과정을 거쳐 문민정부하의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제15대)가 1996년 4월 11일 시행되었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안산시는 갑구와 을구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 갑구에서는 7명의 후보, 을구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투표 결과 7명이 출마한 갑구에서는 국민의회의 소속의 김영환이 31,997표로 당선되었고, 여당인 신한국당 소속 안재문 후보는 30,181표를 얻어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둘 다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으나 야당이고 재야 출신으로 한때 긴급조치위반으로 2년간 투옥되었던 김영환이 재기에 성공한 것이었다. 한편 안산시 을구에서는 국민의회의 소속 천정배가 36,902표로 당선되었고, 자민련의 윤문원이 3897표를 얻어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당선된 천정배는 안산시 선부동 출신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었다. 특히 3위로 낙선한 장경우 후보는 안산시 선부동 출신으로 상당히 기대를 모았으나 정치적 입지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하여 의외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상으로 1948년 5월 10일에 최초로 실시되었던 제헌국회로부터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시흥군 및 독립된 안산시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지어 그 결과를 개관하였다.

요컨대 한국의 선거제도는 1987년 제2차 민주헌법 시대의 개막으로 겨우

민주적인 성격을 회복하였다. 대통령은 제1·제3 공화국 시대와 같이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으나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제도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이 제1·제3공화국 시대와 다른 점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전국구는 그대로 두되 237개의 지역구는 상대적 최다수제를 적용하여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하였고, 전국구 의원 수는 제3공화국 시대의 전국구의원 비율보다 약간 적은 62명으로 하여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도록 하였다.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을 차지하는 정당은 총 득표율이 3% 이상일 때에는 우선적으로 1석씩을 배분받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있어 문제점은 국민들이 전국구 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지 못한 점과 또한 전국구 의원의 배분 방식의 비민주성이라 하겠다.

이정우(안양전문대 교수)

제3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제의 변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8장은 우리 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5차 개정헌법에 의하면 제5장 109조·110조와 새로 부록 조항이 신설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좀더 구체화되어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제7차 개정헌법에 의하면 부칙에서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를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 조항이 다시 보완되었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9조 1항에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고, 부칙 제10조에는 지방의회 구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였다.

이상 지방자치제의 변천에 관한 헌법 규정을 개관하였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건국 초기의 사회혼란과 6·25 전쟁으로 시행이 보류되다가 전시하, 즉 1952년 4월 25일 전국 시·읍·면 의회 선거와 이어 1952년 5월 10일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제외한 7개 도의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된 지방자치선거였다. 당시는 전시하였기 때문에 접적지역이었던 서울·경기·강원 지역은 실시할 수 없었다. 제도 내용을 요약하자면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는데, 지방자치 종류는 서울특별시 및 도·시·읍·면으로 구성되었고,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제로 구성하며 의원 임기는 4년 명예직이었다. 자치단체의 장은 서울 및 도는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시·읍·면은 의회에서 간선으로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장과 의회와의 관계를 보면 의회는 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주어졌고, 장은 의회에 대한 해산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56년 2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의 임기는 4년에

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시·읍·면장은 직선제를 채택하였고 임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장의 의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1958년 12월 26일 제4차 개정지방자치법은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부활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한적이거나 서서히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4·19혁명은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를 공고하였다.

1960년 11월 1일 제5차 개정헌법에 의하면 1960년 12월 12일 실시될 서울 및 전국 도의원 선거, 12월 19일 실시될 전국 시·읍·면 의원 선거, 12월 26일에 실시될 전국 시·읍·면장 선거, 12월 29일에 실시될 서울시장 및 전국 도지사 선거는 모두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건국 12년 만에 비로소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이듬해 일어난 5·16 군사 쿠데타로 해산되었다. 1961년 5월 16일에 새로 집권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동년 9월 1일자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조치법의 중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읍·면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새로 규정하고, 지방의회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는 내무장관의, 시·군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의회 의결을 대체하고, 모든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하였다. 더욱이 1962년 2월 9일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실로 놀라운 변화요 제도 개혁이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다시 후퇴하여 유명무실한 변천을 기록하였다.

원점으로 돌아간 지방자치제도는 제5공화국에 들어와 1985년 3월 29일자로 ‘지방자치제 실시연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 직속에 ‘지방자치제 실시연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밑에 3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제1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 제2분과위원회는 행정체제, 제3분과위원회는 지방재정 분야를 관장하며, 제1분과위원회는 내무부와 실무작업단, 제2분과위원회는 총무처와 실무작업단, 제3분과위원회는 경제기획원과 실무작업단으로 구성했고, 별도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안 정리를 전담하는 간사를 두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985년 2월 7일 ‘지방자치제 실시연구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동년 3월 14일 대통령령 제11,662호로 ‘지방자치제 실시연구위원회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어 3월 29일 ‘지방자치 실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제2절 안산시 승격 이전의 지방자치 선거

1. 1952년 제1대 면장 및 면의원 선거

전술한 바와 같이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장 및 면의회의원 선거와 같은 해 5월 10일에 도의회의원 선거가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전쟁 중이라 서울 및 경기·강원의 일부 지역 등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은 제외되었으나 안산 지역은 다행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표 3-1).

표 3-1 제1대 면장 및 면의원 현황

수암면(정원 13, 면장 유지윤)

	이름	생년월일 연령	본적 및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소속 정당
의장	김종덕	1897. 05. 03 55	시흥군 수암면 조남리 시흥군 수암면 조남리	농업	보통학교 졸	회사원	자유당
부의장	김 환	1921. 03. 28 31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	농업	경성보성 중학교 졸	회사원 7년	무소속
의원	김종성	1920. 01. 23 32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	농업	보통학교 졸	-	자유당
의원	이정만	1914. 12. 06 38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농업	보통학교 졸	-	무소속
의원	이병은	1916. 06. 14 36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	농업	중학교 졸	면서기 6년 면의회 내부위원장	자유당
의원	정숙현	1914. 10. 13 38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	농업	중학교 졸	부면장 3년	자유당
의원	정우철	1892. 09. 28 60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	농업	중학교 졸	회사원	자유당
의원	유해광	1911. 11. 03 41	시흥군 수암면 부곡리 시흥군 수암면 부곡리	농업	보통학교 졸	서기	-
의원	김항옥	1908. 08. 17 44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농업	중학교 중퇴	-	자유당
의원	박승혁	1915. 03. 18 37	시흥군 수암면 상하리 시흥군 수암면 상하리	농업	보통학교 졸	회사원 경제자격위원장	자유당
의원	이치용	1917. 01. 03 35	시흥군 수암면 논곡리 시흥군 수암면 논곡리	농업	보통학교 졸	면서기	자유당
의원	설태성	1913. 08. 26 39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농업	보통학교 졸	경찰관/면서기	자유당
의원	박희래	1914. 03. 12 38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의료업	중학교 졸	의사/산업분과위원장	자유당

표 3-1 제1대 면장 및 면의원 현황(계속)

군자면(정원 14, 면장 장순봉)

	이 름	생년월일 연령	본적 및 주소	직 업	학 력	경 력	소속 정당
의장	장세만	1910.09.01 42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	상업	보통학교 졸	면서기 5년	무소속
부의장	민찬기	1921.09.17 31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	농업	협성실업학교 졸	면서기 5년	무소속
의원	황영수	1916.04.14 36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농업	보통학교 졸	경찰관 5년/ 면의회 산업위원	자유당
의원	이상현	1915.03.16 37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농업	보통학교 졸	이장 6년/ 면의회 산업위원	자유당
의원	조병덕	1913.12.31 39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농업	보통학교 졸	이장 10년/ 면의회 산업위원	무소속
의원	권오택	1918.09.18 3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농업	일본대학 상과 졸	청년단장 4년/이장 2년/ 자유당 군자면당 부위원장	자유당
의원	이종환	1916.12.04 36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	상업	보통학교 졸	면기수 3년/이장 3년/ 면의회 산업위원	무소속
의원	김형무	1895.07.30 57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	농업	한문 수학	이장 6년/ 면의회 산업위원	무소속
의원	이복영	1906.12.05 46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	농업	보통학교 졸	이장 7년/ 면의회 내무위원	무소속
의원	김상목	1913.02.18 39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	농업	보통학교 졸	이장 6년/시흥군참사/ 면의회 내무위원	무소속
의원	한동수	1919.12.06 33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농업	보통학교 졸	이장 5년/ 면의회 내무위원	자유당
의원	유제화	1909.10.18 43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	농업	중학교 중퇴	부면장 3년/ 면의회 내무위원	무소속
의원	한장수	1915.03.26 37	시흥군 군자면 죽틀리 시흥군 군자면 죽틀리	상업	보통학교 졸	이장 3년/ 면의회 내무위원	무소속
의원	원웅상	1916.08.01 36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농업	보통학교 졸	이장 5년/ 면의회 내무위원	자유당

반월면(정원 13, 면장 한장수)

의장	홍성복	1898.07.11 54	화성군 반월면 팔곡 1리 화성군 반월면 팔곡 1리	농업	보통학교 졸	화성군 중등학교설치기성회 반월분회장/반월국민학교 사친회장/면의회 내무위원	국민회
부의장	최동규	1916.12.06 36	화성군 반월면 서리 화성군 반월면 서리	회사원	실수학교 졸	면서기 11년	무소속
의원	김정근	1914.02.20 38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	농업	반월학교 졸	구장 11년/면의회 산업위원	무소속
의원	김규홍	1900.12.17 52	화성군 반월면 동오리 화성군 반월면 동오리	농업	-	이장/동오리국민학교 사친 회 이사/면의회 산업위원	무소속

표 3-1 제1대 면장 및 면의원 현황(계속)

반월면(계속)

	이름	생년월일 연령	본적 및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소속 정당
의원	주병찬	1915. 12. 28 37	화성군 반월면 이리 화성군 반월면 이리	상업	반월보통학교 졸	본오리국민학교 사친회장/ 반월중학교설립기성회 부회장/면의회 산업위원장	국민회
의원	오완근	1920. 11. 15 32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의사	평양의학전문 학교 졸	의원 개설/면의회 내무위원	대한청년단
의원	정정화	1922. 05. 25 30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대서업	중학교 졸	수원읍사무소 서기/육군 소위/반월면 자유당위원장	자유당
의원	정일수	1908. 12. 17 44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농업	경기농업 3년	대반시립의원 서기/ 면의회 내무위원	무소속
의원	최신식	1905. 08. 10 47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	농업	반월공보 졸	화성군농회 농업진흥원	무소속
의원	황철성	1909. 01. 12 43	화성군 반월면 임북리 화성군 반월면 임북리	농업	일본 대판상업 학교 졸	한청 간부/면의회 내무위원장	국민회
의원	윤옥수	1914. 10. 04 38	화성군 반월면 동오리 화성군 반월면 동오리	농업	신평공보 졸	한청 감찰계장/동부락 단장	대한청년단
의원	박용덕	1898. 01. 03 54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농업	-	면의회 내무위원 겸 징계위원	국민회
의원	심재길	1912. 12. 15 40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농업	반월공보 졸	면서기/구장/대한산업주식 회사 사원/면의회 내무위원	국민회

대부면(정원 11, 면장 이창흠)

의장	공태영	1919. 08. 30 33	인천시 화수동 68 부천군 대부면 동리	양조업	경성명륜전문 학원 부속중학 3년 졸	대부부면장/경찰후생협회 수상서지부 이사/대한청년단 대부면단부 부단장	자유당
의장	이태성	1912. 06. 21 40	부천군 대부면 남리 부천군 대부면 남리	농업	대부국민학교 졸/ 한문 수학	농촌진흥회장/구장 8년	자유당
의원	김경의	1922. 09. 14 30	부천군 대부면 북리 부천군 대부면 북리	농업	경기공업학교 졸	대부면 서기/대한청년단 대부면단장/경기전기회사 인천지점 동력과 도전계 근무	자유당
의원	홍성락	1917. 07. 14 35	부천군 대부면 남리 부천군 대부면 남리	농업	인천사정고등 학교 졸	대부면 남리 구장	자유당
의원	이명흠	1902. 04. 04 50	부천군 대부면 남리 부천군 대부면 남리	농업	한문 수학	-	자유당
의원	정대준	1918. 01. 20 34	부천군 대부면 북리 부천군 대부면 북리	농업	대부국민학교 졸	면서기/한청대부면지부 총무과장	자유당
의원	최권옥	1924. 01. 17 28	인천시 경동 150 부천군 대부면 동리	농업	인천중등예비 학원 졸	인천동방극장 영화기사/대한 청년단 대부면 부단장	자유당
의원	장기원	1905. 09. 07 47	부천군 대부면 동리 부천군 대부면 동리	농업	대부면 대흥학당 졸	구장 5년	자유당

표 3-1 제1대 면장 및 면의원 현황(계속)

대부면(계속)							
	이 름	생년월일 연령	본적 및 주소	직 업	학 력	경 력	소속 정당
의원	차동옥	1916.09.17 36	부천군 대출면 오지리 부천군 대부면 풍도리	농업	대산보통학교 졸	산업위원회 위원/해운업	자유당
의원	노병철	1886.07.25 66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부천군 대부면 동리	농업	한문서당 졸	-	자유당
의원	노재원	1906.11.28 46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부천군 대부면 동리	염업	춘천공민교 졸	경기도피복공업조합 감사/피복공장 및 인천염업조합 감사	무소속

2. 1956년 제2대 면장 및 면의원 선거

1952년 제1차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1956년 8월 8일 시·읍·면장의 직접선거와 면의원선거를 실시하고, 5일 후인 8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즉 서울시장 및 도지사·군수 등은 종전대로 임명제였다. 당시의 안산 지역 선거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제2대 면장 및 면의원 현황

수암면(정원 12명, 면장 정숙현)					
이 름	연 령	직 업	학 력	경 력	소속 정당
설태성	44	상업	소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변철수	40	상업	중학교 졸업	면서기	자유당
이장수	46	농업	소학교 졸업	이장	자유당
강희창	40	농업	소학교 졸업	이장	자유당
이병은	41	농업	소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한범수	35	농업	소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김종성	37	농업	중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윤정현	42	농업	소학교 졸업	이장	자유당
김종덕	60	농업	소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유지창	40	농업	소학교 졸업	이장	자유당
이산덕	37	농업	소학교 졸업	이장	자유당
박승혁	42	농업	소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군자면(정원 12명, 면장 장순봉)					
유제화	48	농업	중학교 중퇴	면의원	자유당
정병희	61	농업	한문 수학	이장 2년	자유당
이상현	42	농업	소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민찬기	36	농업	중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권오택	40	농업	대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조병덕	44	농업	소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표 3-2 제2대 면장 및 면의원 현황(계속)

군자면(계속)					
이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정당
천방호	42	농업	소학교 졸업	이장 4년	자유당
문창영	68	농업	한문 수학	-	자유당
정규창	42	주조업	소학교 졸업	상업	자유당
김석규	35	농업	중학교 졸업	이장 2년	무소속
이복영	31	농업	한문 수학	면의원	무소속
김영희	41	농업	중학교 졸업	공무원	자유당
반월면(정원 12명, 면장 박인순)					
주병찬	42	상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최용하	35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이규택	42	농업	소학교 졸업	공무원	자유당
윤옥수	43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홍성복	59	농업	소학교 졸업	-	무소속
한백모	43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심재길	45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오완근	37	의사	전문학교 졸업	의사	자유당
김정근	43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황철성	48	농업	중학교 졸업	-	자유당
한명수	43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유귀봉	39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대부면(정원 11명, 면장 공태영)					
김경의	35	농업	중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배정의	33	상업	소학교 졸업	상업	자유당
홍성락	40	제염업	중학교 중퇴	면의원	자유당
김수열	34	농업	중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노승우	48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이태성	45	농업	소학교 졸업	면의원	자유당
정경선	45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임우선	33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임창선	31	농업	중학교 졸업	-	자유당
노백우	36	농업	소학교 졸업	-	자유당
이관옥	33	농업	중학교 중퇴	-	자유당

3. 1960년 제3대 면장 및 면의원 선거

1960년 4·19혁명 후 법률 제563호(1960. 11. 1)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60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 및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에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를, 26일에 시·읍·면장 선거를, 29일에 서울시장 및 도지사 선거를 연이어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인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해산되는 비운을 맞았다.

표 3-3 제3대 면장 및 면의원 현황

수암면 의회 의원 (13명) ¹⁾				
직 위	성 명	성 별	경 력	출 신 지
의장	조한석	남	안양경찰서 근무, 면사무소 근무	수암리
부의장	이산진	남	이장, 중앙우체국, 2대 면의원	광석리
의원	변철수	남	양조업, 2대 면의원	장상리
의원	강홍원	남	농업	장상리
의원	목영환	남	이 민방위대장	월피리
의원	한장명	남	농업, 이장	월피리
의원	이현돈	남	이장, 영등포경찰서 순경	고잔리
의원	장성두	남	농업, 이장	와리
의원	권중수	남	농업, 상업	능곡리
의원	이영권	남	농업	하중리
의원	강성두	남	농업	하상리
의원	김영철	남	농업	물왕리
의원	신현옥	남	농업, 이장	조남리
군자면 의회 의원 (10명) ²⁾				
의장	천방호	남	향토방위대 분대장, 2대 면의원	정왕리
부의장	이천수	남	농업, 이서기, 대한청년단 면 조직부장	군자리
의원	노수룡	남	농업, 이장	선부리
의원	김상태	남	농업, 면서기	원시리
의원	남문현	남	농업, 건축업	월곶리
의원	나태근	남	약방	원시리
의원	안진호	남	농업, 죽틀리 농업협동조합장	죽틀리
의원	전용안	남	농업	초지리
의원	오창성	남	-	정왕리
의원	한용석	남	농업	장곡리

당시 안산 지역의 선거 결과는 표 3-3과 같으나 화성군 반월면, 부천군 대부면 자료는 현재 찾을 길이 없어 이번 기회에 등재하지 못하였다.

제3절 안산시 승격 이후의 지방자치 선거

1. 제1대 안산시의회 선거

1991년 3월 26일 제1대 안산시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총 49명이 입후보하여 11개 동에서 19명이 당선되었다. 이는 1986년 시흥군에서 독립한 안산시가 새로운 지방자치선거법에 의해 실시한 최초의 지방자치선거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당시 시의회의원 당선자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 1) 자료 제공 : 전 수암면장 정숙현(시흥시 광석동 출신). 전 수암면장 윤기열(시흥시 산현동 출신).
- 2) 자료 제공 : 전 군자면 의원 민찬기(안산시 선부동 거주), 전 군자면 의원 안진호(시흥시 거모동 거주), 전 군자면 의원 이천수(시흥시 군자동 거주). 군자면 의원의 명단에 일부 누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3-4 제1대 안산시의회의원과 인적 사항

선거구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경 력
반월동	최종락	남	30. 09. 15	안산시 사동 1169-5	건설업	반월농업협동조합 이사
반월동	최명완	남	48. 09. 22	안산시 본오동 872-20	건설업	안산경찰서 방법자문위원
수암동	홍장표	남	59. 08. 19	안산시 월피동 447	건설업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수암동	박명훈	남	62. 02. 28	안산시 부곡동 714-1	상업	안산시 4H연합회장
고잔 1동	박홍무	남	44. 04. 26	안산시 고잔동 산95	기타	고잔국민학교 체육진흥회 부회장
고잔 1동	국중협	남	36. 02. 20	안산시 고잔동 산99	상업	안산시 위민봉사회장
고잔 2동	김송식	남	44. 08. 27	안산시 고잔동 672	상업	안산로타리클럽 회장
고잔 2동	이무순	남	58. 06. 20	안산시 고잔동 670	정당인	국회의원 보좌역
성포동	서병훈	남	57. 12. 14	안산시 성포동 583	상업	안산소비자협동조합이사
성포동	김영웅	남	37. 07. 23	안산시 성포동 583	기타	안산국영 성우협회 부이사장
군자동	안병권	남	50. 08. 04	안산시 신길동 54-2	상업	안산시 보디빌딩 협회장
군자동	정순민	남	40. 02. 18	안산시 원곡동 945-12	상업	안산종합시장대표이사
원곡 1동	전용장	남	47. 03. 12	안산시 원곡동 836-1	상업	새마을지도자 안산시협의회장
원곡 1동	박일도	남	55. 05. 04	안산시 초지동 604	회사원	안산시 축구협회회장
원곡 2동	최영덕	남	45. 05. 31	안산시 원곡동 938	약사	원곡 2동 체육진흥회장
초지동	양한수	남	51. 12. 08	안산시 초지동 603-1	상업	초지동 통장협의회회장
공단동	강창혁	남	54. 02. 13	안산시 원시동 726-4	회사원	삼기기공 노무부장
선부동	강선필	남	52. 01. 02	안산시 원곡동 835	건설업	안산시 축구협회 이사
선부동	노철수	남	46. 01. 10	안산시 선부동 993-1	상업	선부동 동정자문위원

2. 제3대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와 안산시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안산시에서는 총 12명이 입후보하여 3명이 당선되었다. 안산시에서는 제1선거구에서 4명, 제2선거구에서 4명, 제3선거구에서 4명이 각각 입후보하여 모두 3명이 경기도의회에 진출하였다. 특이한 점은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입후보한 3명이 모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당선자의 인적 사항은 표 3-5와 같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안산시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3명의 후보가 모두 여당인 민주자유당으로 출마하여 압도적 다수로 당선되었다. 각 3인의 득표율은 모두가 40%를 넘는 압도적 다수였다. 특히 안산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정한수와 차점으로 낙선한 김대영의 표차는 약 4천 표였다. 당시 중·소 도시에서의 시민들의 정치 성향과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제3대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1991년 6월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당시 부족한 대로 민주화 발전을 상당히 이룩한 때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표 3-5 제3대 경기도의회의원과 인적 사항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율)
안산시(제1)	1	민주자유당	정한수	남	28.12.13	안산시 본오동 880	학교법인 이사장	연세대 경영대학원 수료	노동부장관 한국노총사무총장	11,214 (41.3%)
안산시(제2)	1	민주자유당	이병우	남	52.12.02	안산시 고잔 2동 670	무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수료	충청도민회 부회장	11,375 (41.3%)
안산시(제3)	1	민주자유당	김봉식	남	46.04.17	안산시 원곡동 761-11	사업	연세대 관리과 대학원 수료	경기도 공도협회 부회장	10,069 (40.9%)

표 3-6 제2대 안산시의회의원과 인적 사항

선거구명	기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율)	비고
일동	1	송세현	남	52.02.19	안산시 이동 443-1	건설업	연세대경영대학원수료	일동 동정자문위원	2,864(27.9%)	당선
일동	7	박종원	남	57.12.20	안산시 고잔동 671	기타	경성고 졸	축산기업조합 상무	1,564(15.4%)	당선
사동	1	황호명	남	55.06.25	안산시 상동 1346	상업	충전대 졸	안산경실련회원	3,067(21.9%)	당선
사동	3	심장보	남	37.08.07	안산시 사동 1345-1	기타	수원농고 졸	안산시 중앙동장, 사동장	3,128(22.4%)	당선
본오1동	2	이병옥	남	51.04.15	안산시 본오동 667-2	농업	수원상고 졸	본오동 통장협의회회장	1,632(21.9%)	당선
본오1동	4	이범내	남	42.01.01	안산시 팔곡이동 438-2	농업	국졸	본오1동 재향군인회장	1,703(22.9%)	당선
본오2동	3	박선호	남	53.11.08	안산시 880 한양A27-505	기타	인하대 졸	삼진주류 대표이사	2,170(15.0%)	당선
본오2동	7	최명완	남	48.09.22	안산시 본오동 871	건설업	중앙대행정대학원 수료	안산시의회의원	1,892(13.1%)	당선
부곡동	2	유승돈	남	47.01.23	안산시 부곡동 537-12	기타	국졸	부곡동 동정자문위원	3,237(54.4%)	당선
월피동	1	홍장표	남	59.08.19	안산시 월피동 447	공업	인하대 졸	안산시의회의원	5,001(45.8%)	당선
월피동	2	황철연	남	55.09.29	안산시 월피동 448	공업	고졸	안산시 양궁협회장	2,646(24.2%)	당선
와동	1	김상열	남	45.10.30	안산시 와동 121-3	회사원	전남대 중퇴	소비자협동조합 이사	3,239(31.8%)	당선
와동	4	박명훈	남	62.02.28	안산시 와동 723-4	기타	경기대 졸	안산시의회의원	2,752(27.1%)	당선
고잔1동	2	홍연표	남	57.01.20	안산시 고잔동 575	상업	고졸	고잔1동 통장협의회장	3,257(27.0%)	당선
고잔1동	5	정종옥	남	52.01.21	안산시 고잔 1동 99	기타	명지전문대 졸	고잔1동새마을금고이사장	2,773(23.0%)	당선
고잔2동	2	이만승	남	52.08.12	안산시 고잔 2동 637-10	건설업	고졸	고잔2동 동정자문위원	3,543(34.0%)	당선
고잔2동	3	김송식	남	44.08.27	안산시 고잔 2동 670	건설업	고려대 중퇴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	3,388(32.5%)	당선
성포동	1	김수영	남	36.09.26	안산시 성포동 선경A 1-505	농업	진주농대 중퇴	안산시 월피동장	3,973(34.3%)	당선
성포동	5	김영웅	남	37.07.23	안산시 성포동 592	기타	서라벌예대 졸	안산시의회의원	2,657(23.0%)	당선
원곡본동	2	노세극	남	60.12.31	안산시 원곡동 784-13	기타	동대 행정과 중퇴	우리쌀대책회의 집행위원장	2,456(36.2%)	당선
원곡본동	3	정윤섭	남	47.06.27	안산시 원곡동 775-2	공업	고졸	안산영락교회 장로	1,997(29.5%)	당선
원곡1동	2	한기복	남	46.12.02	안산시 원곡동 883	건설업	고졸	법무부 갱생보호위원	2,018(30.9%)	당선
원곡2동	1	박공진	남	54.10.24	안산시 원곡동 207	기타	한국의국어대 졸	민자당 당무협의회장	2,129(53.1%)	당선
초지동	3	차평덕	남	45.03.27	안산시 초지동 593	건설업	인천대 졸	민정당안산지구당 사무국장	2,039(40.1%)	당선
공단동	2	맹명호	남	55.10.12	안산시 원시동 777	기타	고졸	공단동 동정자문위원	381(58.5%)	당선
선부1동	1	한만식	남	50.01.12	안산시 선부1동 964	상업	동아대 중퇴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2,038(20.8%)	당선
선부1동	2	김항남	남	50.07.12	안산시 선부동 1071-9	회사원	춘천고 졸	아태재단후원회 위원	2,982(30.4%)	당선
선부2동	2	김정철	남	54.06.20	안산시 선부동 1003	건설업	중학교 중퇴	민주당안산지구당 상무위원	2,442(27.7%)	당선
선부2동	5	박영철	남	58.07.02	안산시 선부2동 985-17	건설업	중졸	선부2동 동정자문위원	2,657(30.2%)	당선
선부3동	1	김장훈	남	58.04.23	안산시 선부3동 한양A235	의사	고대의대 졸	아태재단 후원회원	3,257(23.8%)	당선
선부3동	2	민병중	남	49.09.18	안산시 선부동 1085	기타	고졸	선부3동 재향군인회장	3,935(28.7%)	당선
반월동	1	장동호	남	47.01.16	안산시 건건동 262	기타	고졸	민자당반월당협의회 회장	2,891(55.2%)	당선
대부동	2	노령호	남	57.04.03	안산시 동동 513-1	농업	고졸	농어민후계자연합회장	1,555(54.9%)	당선
안산동	1	변형관	남	50.05.22	안산시 장상동 1	기타	건국대 중퇴	시흥시 시정자문위원	1,343(43.8%)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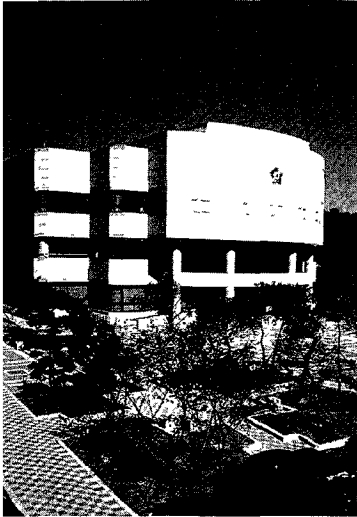


사진 3-1(좌) 안산시의회 청사.

1994년 2월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건물을 완공하였다.



사진 3-2(우)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

1995년 6월 27일 선거를 실시하여 7월 11일 정식으로 2대 의회를 개원하였다.

3. 제2대 안산시의회의원 선거와 안산시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2대 안산시의회의원 선거에서는 21개 동에서 총 9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34명이 당선되어 제2대 안산시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선자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4. 제4대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와 안산시

1995년 6월 27일 제2대 시의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제4대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안산시에서는 4개의 선거구에서 11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각 선거구에서 1명씩 4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입후보한 11명의 후보자와 당선자의 인적 사항은 표 3-7과 같다.

표 3-7 제4대 경기도의회의원과 인적 사항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 수(율)	비 고
안산시제1	1	민주자유당	한순석	남	34.12.20	안산시 사동 1345-1	회사원	서울공고 졸	안양시 만안구청장	16,085(36.6%)	당선
안산시제1	2	민주당	이기연	남	57.11.26	안산시 본오동 871	기타	전북산업대 졸	민주당안산지구당사무위원	16,456(37.5%)	
안산시제1	3	무소속	김봉식	남	40.04.17	안산시 사동 1344	기타	안양공고 졸	안산청년회의소 회장	11,367(25.9%)	
안산시제2	1	민주자유당	명석상	남	45.08.20	안산시 성포동	약사	서울약대 졸	안산시약사회장	18,914(36.3%)	당선
안산시제2	2	민주당	신일룡	남	57.04.27	안산시 성포동 583	약사	서울대학교원 졸	치의학 박사	23,802(45.7%)	
안산시제2	3	무소속	신호철	남	60.08.11	안산시 부곡동 658	기타	안면고 졸	세계환경신문사 발행인	9,423(18.1%)	
안산시제3	1	민주자유당	안천웅	남	41.02.15	안산시 선부동 968	회사원	성균관대 졸	민주공화당 사무국요원	15,210(35.8%)	당선
안산시제3	2	민주당	최종문	남	55.07.07	안산시 선부동 한양A237	기타	외대대학원 졸	안산제일교회 장로	19,703(46.4%)	
안산시제3	3	무소속	김선필	남	54.07.16	안산시 선부동 1098	기타	고졸	청년지도자연합회장	7,562(17.8%)	
안산시제4	1	민주자유당	국중래	남	36.02.20	안산시 고잔동 99	상업	동아대 졸	안산시의회의원	16,357(46.8%)	당선
안산시제4	2	민주당	권희근	남	39.04.14	안산시 원곡동 762	기타	고대 졸	안산시문화원 부원장	18,563(53.2%)	

표 3-8 초대 안산시장 선거의 후보자와 인적 사항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율)	비고
안산시	1	민주자유당	이상용	남	37.08.18	안산시 성포동 선경A15-1205	기타	건국대 졸	수원시장	57,550(32.8%)	
안산시	2	민주당	송진섭	남	49.08.13	안산시 선부동 주공A1103-304	정당인	수원신학교 졸	생명과 환경모임 이사장 평민당 13,14대 출마	66,478(37.9%)	당선
안산시	3	자민련	안병권	남	50.08.04	안산시 신길동 54-2	농업	인천남고 졸	안산시의회 의장	27,842(15.9%)	
안산시	4	무소속	윤문원	남	53.08.28	안산시 본오동 872	기타	한양대 정외과 졸	국회입법보좌관	23,573(13.4%)	

5. 초대 안산시장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초대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총 득표수 66,478표에 득표율 37.9%를 획득한 민주당 소속 송진섭(宋振燮)이 초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수원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로 재야에서 정당인 생활을 했으며, 한때 평민당으로 제13대·제14대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차점으로 낙선한 이상용은 여당인 민주자유당 출신으로 수원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기타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 사항은 표 3-8과 같다.

이정우(안양전문대 교수)

제4장 행정구역의 변천

행정구역의 변천을 살펴보자면, 먼저 오늘의 안산시 형성 이전의 행정 구역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76년 10월 시흥군(군자면·수암면) 지역과 화성군(반월면) 일부 지역에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이 발표되었고, 신도시 건설은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신시개발(新市開發) 이전에는 한적한 농어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역별(시흥군 지역, 화성군 지역, 용진군 지역)로 사적(史的)인 기록이 있는 한 최고(最古)의 시대부터 변천해 온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1절 시흥 지역

1. 삼국 시대의 행정구역

그 동안 발견된 유물로 보아 이 지역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집단생활의 터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한시대에 마한(馬韓)－또는 진한(辰韓)－에 속했던 시흥(始興) 지역은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 때에 정복되어 백제의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영락(永樂) 6년(396년)에 수군을 직접 이끌고 백제의 서해안을 공격하여 58개의 성과 700여 개의 촌락을 차지하였으며, 그후 장수왕 63년(475년)에 대규모의 결정적인 침공을 가하여 지금의 경기도 전역이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다. 이는 고구려의 남부에 해당되는 장항구현(獐項口縣)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시흥군 수암면(秀岩面)·군자면(君子面)이 이 지역에 해당된다.

한편 삼국시대에 있어서의 다양한 행정구역제도는 신라에 의하여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당연히 신라의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신라의 발전 과정은 동시에 영토의 확장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확장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지역 조직의 기본은 주(州)·군(郡)·현(縣)이었다.

주 밑에 군이 있고 군 밑에 현이 있었는데, 지방에 두는 장(長)으로는 주에는 군주(軍主), 군에는 태수(太守), 현에는 현령(縣令)을 두었다. 또한 말단 행정구역으로는 촌락(村落)이 있었는데, 촌락에는 촌주(村主)가 행정사무를 맡아 보았다. 촌락의 호수(戶數)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15호이고 제일 작은 것이 10호였다. 그리고 면(面)이란 명칭은 진평왕(眞平王) 13년(591년)에 세운 남산성(南山城)에 일대면(一代面)이란 곳이 있었다고 하나, 그것이 지금의 면(面)과 같이 말단 행정기구의 일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라 제35대 경덕왕(景德王) 16년(757년) 때의 장항구현의 행정구역 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명(州名)	속군명(屬郡名)	속현명(屬縣名)
주치(州治)	장항구현(獐項口縣) → 장구군(獐口郡)	
현재의 광주(廣州)	고구려 신라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에 이르러 장항구현이 장구군으로 개칭될과 동시에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 시대의 행정구역

신라 말기 이후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여 국가 건설에 힘쓰는 한편, 신라 시대 이래로 지방 각지에 웅거하고 있던 지방 세력들을 회유와 강제 양면정책으로 중앙정권에 굴복시키고 왕권에 복속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즉 지방도 중앙 관아에 해당하는 명칭의 향직(鄉職)을 주고 행정조직을 만들어 자치에 맡긴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향리(鄉吏)를 견제하기 위하여 그 자제를 인질로 선상(選上)케 하여 그 지방 사정의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기인제도(其人制度)를 실시하였다.

태조 18년(935년)에는 항복하여 온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敬順王; 金傳)을 경주의 사심관(事審官)으로 한 다음부터는, 건국 창엽의 공신들로 하여금 각기 출신주(出身州)의 사심관을 겸하게 하여 그 고을에 남아 있는 지방 세력을 조정·통제하였다.

한편 태조 23년(940년)에는 신라 시대 이래로 실시해 온 종래의 모든 주(州)·군(郡)·현(縣)의 이름을 고쳤는데, 그때 이 지역의 명칭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신라(757년)	고려(940년)
장구군(獐口郡)	안산현(安山縣)

고려의 관료제도는 그 기초가 고려 초 광종(光宗) 때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신라와 태봉(泰封)의 제도를 승습(承襲)하거나 당(唐)의 제도를 모방하는 등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었으며, 제대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된 시기는 제6대 성종(成宗; 982~997년)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종 2년(983년)에 설치된 12목제(牧制)가 고려 시대의 지방제도로는 최초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晋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해주(海州)·황주(黃州)·승주(昇州)에 두었던 이들 12목은 단순한 지방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지방 호족(豪族)들을 감독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성종은 이로부터 12년 뒤인 성종 14년(995년)에 종래의 행정구역을 재획정하여 지방을 10도(道)로 나누고 각 도 밑에는 주(州)·부(府)·군(郡)·현(縣)을 설치하는 한편 12주(州)에는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는데, 이때의 10도는 관내도(關內道)·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영남도(嶺南道)·영동도(嶺東道)·산남도(山南道)·해양도(海陽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溍西道)였다.

그런데 성종 2년(983년)에 성립된 12목제는 그후 12주(표 4-1)로 명칭을 바꾸고 직명(職名)도 목사에서 절도사로 바꾸었다. 그 외에 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團練使)·칙사(勅使)·방어사(防禦使) 등 대량의 외관을 일시에 거의 전국적 규모로 증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外官)의 비약적인 증설·배치는 불과 10년 후인 목종(穆宗) 8년(1005년)에 절도사·방어진사(防禦

표 4-1 성종 시대의 10도 12주

도 명	현재의 구역	소속 주
관내도	경기도, 황해도	양주(楊州), 광주(廣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중원도	충청북도	충주(忠州), 청주(淸州)
하남도	충청남도	공주(公州)
강남도	전라북도	전주(全州)
해양도	전라남도	나주(羅州), 승주(昇州)
영남도	경상북도 일부	상주(尙州)
영동도	경상북도 일부	
산남도	경상남도 일부	진주(晋州)
삭방도	강원도, 함경남도 일부	
패서도	평안남·북도	

鎭使)·현령·진장(鎭將) 등 외에 도단련사·단련사·척사 등의 외관을 모두 없앴다.

성종 시대의 이러한 행정구역은 그후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제8대 현종(顯宗; 1009~1031년) 초에 완비를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고려의 5도 양계제(兩界制)이다. 이때의 행정구역은 전국을 경기도와 5도 양계로 크게 나누고 그안에 4경(京) 4도호부(都護府) 8목(牧)을 두었으며, 다시 그 밑에 15부(府) 129군(郡) 335현(縣) 29진(鎭)을 두었다.

이때 5도는 일반행정구역으로서 양광(楊廣)·경상(慶尙)·전라(全羅)·교주(交州)·서해(西海)로 구분되었고, 양계(兩界)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특수 지역으로서 국경지대에 설치된 동계(東界)와 서계(西界)를 말한다. 도(道)의 장관(長官)으로는 안찰사(按察使)를, 또 계(界)의 장관으로는 병마사(兵馬使)가 임명되었는데, 그 명칭과 목적이 달랐던 만큼 임무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5도 양계는 그것을 통할하는 행정관서가 없었으며, 말기에 이르러서는 각 도에 전임장관으로서의 관찰사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때 경기도에는 '1경 1부 1군 12현'이 있었다.

한편 3경은 고려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온 풍수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개경(개성)·서경(평양)·동경(경주)을 3경으로 지칭하였으나 동경 대신에 남경(한성)이 들어가게 되었다.

4도호부는 원래 군사적인 방비를 위하여 사방의 요지에 설치된 것으로 안남(安南<全州>)·안서(安西<海州>)·안북(安北<安州>)·안동(安東)의 넷을 말하는데, 안남대도호부는 뒤에 전주목(全州牧)으로 개편되었고 그 대신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가 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 8목은 광주·충주·청주·진주·상주·전주·나주·황주였다.

그리고 군현(郡縣)은 영군현(領郡縣)과 속군현(屬郡縣)의 구별이 있어 영군현은 지방장관을 설치한 군현이고, 속군현은 지방장관을 설치하지 않은 군현에 예속시키거나 경(京) 또는 대도호부목(大都護府牧)에 직속시켜 운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진(鎭)은 군사적 요지로서 양계 밑에 두는 하부행정구역이었다.

각급 지방행정구역에는 장(長)을 두었는데 도(道)에는 안찰사, 계(界)에는 병마사, 경(京)에는 유수(留守), 대도호부와 목(牧)에는 목사, 군(郡)에는 지사, 현(縣)에는 현령 또는 감무(監務), 진(鎭)에는 진장(鎭將)을 두었다. 이들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되었고 그 밑에 지방사람으로 호장(戶長) 이하의 향리(鄕吏)를 두어 실제 행정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현·진 밑에는 촌(村)이 있었고 촌에는 토착민으로 촌장을 맡게 하였는데, 이들은 촌민의 지



사진 4-1 고려 시대의 안산읍성지.

안산시 수암동 일대에 위치하며, 기반부 석축 일부가 남아 있다.

배에 있어서 중개역할을 하였다.

현종 9년(1018년)에 있었던 행정구역 개편에서 안산(安山)은 양광도(楊廣道)의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수주군(水州郡)에 속하였다. 수주군(수원)의 안산현(安山縣)·영신현(永新縣)·쌍부현(雙阜縣)의 행정구역 개편은 그후 군현별로 그 지방 사정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안산현은 현종 9년(1018년)에 수주(수원)에 속하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안산현은 본래부터 중앙관의 파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영현(領縣)이나 그 외의 군현들에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인 감무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안산현에는 감무라는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까지는 호장(戶長)이 수령(守令)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지방을 통치하면서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 형태를 취했으라 추측된다.

현종 9년(1018년)의 행정구역 개편 중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경기(京畿)’라고 하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이다. 경기의 성립은 성종 2년(983년)에 설치한 개성부와 적현(赤縣<京縣>)·기현(畿縣)을 없애고 현(縣)을 두어 정주(貞州<豐德郡 지방>)·강음(江陰<金川郡 지방>)의 개성현을 두어 관할케 하고, 장단(長湍) 현령으로 하여금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兔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케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라 칭하였다.

경기는 그후 문종(文宗) 16년(1062년)에 우봉군(牛峰郡)을 합하여 13군이 되었고, 문종 23년(1069년)에는 다시 50군현으로 확장되었는데¹⁾ 그 확장된 경기의 범위를 보면, 종전 경기의 남쪽에 인접한 양광도로부터 한양(漢陽)·부원(富原)·견주(見州)·사주(沙州)·풍양(豐壤)·포천(抱川)·행주(幸州)·고봉(高峰)·황조(荒調)·교하(交河)·봉성(峰城)·양악(梁岳)·석천(石泉)·김포(金浦)·양천(陽川)·동성(童城)·수안(守安)·통진(通津)·부평(富平)·인주(仁州)·황어(荒魚)·금주(衿州)·안산(安山)·과천(果川)·남양(南陽) 등의 주현(州縣)과, 동쪽에 위치한 교주도(交州道)로부터 영흥(永興)·삭녕(朔寧)·안협(安峽)·철원(鐵原) 등의 주현(州縣), 서쪽에 위치한 서해도(西海道)로부터 연안(延安)·백주(白州)·평주(平州)·협주(俠州)·신은(新恩)·서흥(瑞興)·봉주(鳳州)·안주(安州) 등의 주현(州縣)이 새로 경기에 속하였다. 그후 경기는 제34대 공양왕(恭讓王; 1389~1392년) 때에는 좌우도로 분정하였는데, 그것은 전제(田制) 개혁과 병행한 조치였다.

즉 공양왕 2년(1390년)에 경기를 좌우로 분정·확정하여 과전(科田)을 반급(班給)에 비하게 하고 외방(外方)에는 군전(軍田)만을 두었는데, 그것은 경기

1) 「고려사지리지」
왕경개성부조(王京開城府條).

가 왕실과 가까운 땅이므로 여기에 과전(科田)과 공신전(功臣田) 등을 두어 왕실을 호위하는 경기의 사대부를 우대하고, 외방은 왕실의 울타리이므로 군전을 두어 군사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좌우도로 분정한 경기는 대체로 문종 때의 제도를 본받아 개정된 것이다. 그 중 좌도에는 임진현·송림현·마전현·적성현·파평현과 그 외에 양광도로부터 한양·인천·안산·교하·양천·금주·포천·단원·고봉 등의 여러 현과 교주도(交州道)로부터 철원·영평·이천·안협·연천·삭녕 등의 여러 현이 예속되었다. 그리고 우도에는 개성현·강음현·해풍·덕수·우봉 이외에 양광도로부터 부평·강화·교동·김포·통진 등의 여러 현과 서해도로부터 연안·평주·백주·곡주·수안·재녕·서흥·신은·협원 등의 여러 현이 예속되었다.

이상의 여러 현을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경기좌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장단·파주·고양·양주·포천·연천·안양·시흥·광명·과천·안산 및 화성군 일부, 그리고 철원과 이천이 여기에 속하였다.

고려 말기의 행정구역은 국초와 같이 대폭적인 개혁은 없었으나 그 지방 사정에 따라 소폭의 변동이 있었다. 안산현은 충렬왕 34년(1308년) 문종의 탄생지여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었다. 고려 이후 조선 말기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왕조와의 관계에 따라 주·부·군·현이 승격되기도 하고 강등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고려·조선의 정치적 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통치의 일환이었다.

주·부·군·현은 외군의 침략이 있을 때 그 고장에서 출생한 장수가 침략군을 격퇴시켰거나, 그 고장의 전장에서 적군이 패퇴하였거나, 그 고장 주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침략군을 격퇴하였거나, 혹은 왕 또는 왕비의 고향이거나 어태(御胎)를 맡은 곳이면 그 고장을 승격시켜 주었다. 반대로 적군에 투항하였거나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한 사람이 그 고을에 있을 때, 또는 역적의 고향이면 강등을 시켰다. 안산현이 안산군으로 승격된 것은 왕과 왕비가 탄생하였고, 또 고려의 왕자태를 맡은 태봉(胎封)이 있기 때문이었다.

3.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

태조 이성계(1335~1408년)가 조선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막강한 군사력과 신흥사대부들의 뒷받침이었다. 이렇듯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

고려 말의 사대부들이었고 그것은 또한 역성혁명(易姓革命)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초까지의 통치조직과 지방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점차 정치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수도인 한성부 주위의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즉 경기도에 포함되었던 서북쪽의 7개 지방을 분할하여 서해도(西海道)에 이속시키고 수도에 인접한 양광도의 여러 지방을 경기도에 이속케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여타 지역을 다시 충청도로, 그리고 좌우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광주·수원 관하의 한양 이남의 군현을 좌도로, 양주·철원·연안 등 한양 이북을 우도로 하였다.

안산·금주·과주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예속되었으나, 제3대 태종 2년(1402년)에 좌우도를 합하여 경기좌우도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태종 13년(1413년)에는 지방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도(道)에는 관찰사를 두어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태종 13년에 전개된 지명 개혁의 특징은 남발되었던 고려 시대의 ‘-주(州)’의 명칭을 대폭 정리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다분히 고려왕조의 잔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작용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도의 부관(府官)은 도호부(都護府)로 고치고, 감무(監務)는 현감(縣監)으로 고쳤으며, 무릇 군이나 현에 ‘-주(州)’자가 든 고을을 모두 ‘산(山)’자나 ‘천(川)’자로 고쳤다. 이러한 조치로 금주와 과주도 각각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으로 바뀌었다.

태종 13년(1413년)에 지명이 바뀐 금천은 그 이듬해(1414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다. 그것은 과천현을 병합하여 금천의 금(衿)자와 과천의 과(果)자를 합하여 금과현(衿果縣)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파한 후 다시 통일신라 때 과천군의 영현(領縣)이었던 양천현(陽川縣)을 병합하여 금양현(衿陽縣)이라 개칭하였지만, 이것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1년 만에 파한 후 태종 16년(1416년)에 예전대로 환원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 의하면²⁾ 안산군은 호수가 302호에 인구는 588명이었다. 사방의 경계는 동쪽으로 금천에 이르기 1리,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30리, 남쪽으로 광주 소리꽃(聲串)에 이르기 11리, 북쪽으로 부평에 이르기 10리이며, 수원도호부 소속이었다.

조선 시대의 지방행정제도가 제3대 태종 때에 그 체계가 확립되었다면 군사제도는 제7대 세조 때에 이르러 완비되었다. 즉 세조(世祖) 2년(1456년)에 지방방어조직을 일신하여 처음으로 내지 주현(州縣)도 모두 군상(軍上)으로

2) 「세종실록지리지」 제148권
안산군조.

편제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수개의 거진(巨鎭)을 두는 외에 광주·양주·부평의 3도(道)로 나누어 각 도마다 인근 각 읍을 중·좌·우익으로 분속시키고,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군사직(軍事職)을 겸임시켜 중익(中翼) 수령을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로 부르며 여러 군사(軍事)를 관장케 하였다.

그후 세조 3년(1458년)에는 중·좌·우익의 제도를 폐지한 후 세조 12년(1467년)에 지방군의 직제를 개혁하여 도에는 병마절도사를 두어 육군에 대한 지휘권을 맡겼는데 그 소재지가 주진(主鎭)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목사(正3품)가 예겸(例兼)하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거진을 단위로 하는 진영의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당시의 편제를 보면 금천현과 안산군은 수원진영 소속이었고, 과천현은 광주진영 소속이었다.

세조 때의 군사제도 확립은 자연히 지방행정구역에도 영향을 미쳐 그 지방 사정에 따라 일련의 변동이 있었다. 영조(英祖) 때 발간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중심으로 안산군의 인구 및 행정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안산군은 수원부진영 관할로서 6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6개 면의 호수는 2221호, 인구는 10,089명(남자 5081명, 여자 5008명)이었다.

정조 때에 금천·안산·과천의 행정구역은 커다란 변동은 없었으나 특기할 만한 것은, 정조 19년(1795년) 윤2월 1일에 금천의 행정지명이 시흥(始興)으로 변경되었으며, 또 정조 17년(1793년)에 안산군을 수원부에 일시 이속하였다가 곧 파하였다라는 것이다.

제26대 고종(高宗) 때 간행된 「경기지(京畿誌)」를 보면 안산군은 6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호수는 군내면(郡內面) 428호, 초산면(草山面) 331호, 잉화면(仍火面) 241호, 마유면(馬遊面) 422호, 대월면(大月面) 175호, 와리면(瓦里面) 381호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내적인 부패로 국력이 극도로 약화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흥선(興宣) 대원군(大院君)의 개혁이 있었지만, 외세의 강압으로 오랫동안 닫아 온 쇄국의 문이 열리면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우리 정부에 대해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31년(1894년) 6월 8일에 노인정회담(老人亭會談)이 개최되었는데, 이때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제시한 개혁안은 거부되고 일본군의 철수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황제를 감시하는 가운데 대원군을 입궐시킨 다음 친일 중립으로 정부를 개편하였고, 개혁 업무를 주관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오토리 게이스케가 고문으로 앉아 내정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고종 32년(1895년) 5월 26일에는 전문 6조의 칙령 제98호를 발표하여 지방 제도의 대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여기에서 태종 13년(1413년) 이래 482년간을 습용(襲用)하여 온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府制)가 실시되었다. 이 칙령의 주요 내용은 종래의 부(府)·목(牧)·군(郡)·현(縣) 등에 대하여 이를 통틀어 모두 군(郡)으로 통일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시흥현은 시흥군으로, 과천현은 과천군으로 각각 바뀌어 군수가 다스리게 되었고, 시흥·안산·과천의 3군 모두 인천부(仁川府)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고종 32년(1895년) 9월 5일에 칙령 제164호로 공포된 ‘군수 관등(官等) 봉급에 관한 건’에 의거 시흥·안산·과천의 3군은 모두 5등군(等郡)이 되었다.

그러나 23부제 지방행정구역제도 역시 불과 1년 2개월여의 짧은 기간으로 폐지되고, 건양 원년(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인 ‘지방제도, 관제, 봉급경비 개정의 건’을 발표하여 다시 13도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러 시흥군·안산

표 4-2 조선 말기의 안산군 행정구역

면 명	이 명
군내면 (郡內面)	수암리(秀岩里), 서정리(西亭里), 장상리(章上里), 장하리(章下里), 신리(新里), 동곡리(東谷里), 점성리(占星里), 부곡리(釜谷里), 성포리(馨浦里), 양상리(楊上里), 양하리(楊下里)
초산면 (草山面)	논곡리(論谷里), 조남리(鳥南里), 제청리(祭廳里), 울포리(栗浦里), 물왕리(物旺里), 산현리(山峴里), 궤곡리(櫃谷里), 상직리(上職里), 광석리(廣石里), 중직리(中職里), 목감리(牧甘里), 하상리(下上里), 하중리(下中里), 하하리(下下里)
인화면 (仁化面)	북곡리(北谷里), 능곡리(陵谷里), 화정리(花井里), 광곡리(廣谷里), 와상리(瓦上里), 와하리(瓦下里), 고잔리(古棧里), 월피리(月陂里)
마유면 (馬遊面)	조현리(鳥峴里), 장상리(長上里), 장하리(長下里), 조촌리(鳥村里), 응곡리(鷹谷里), 월동리(月東里), 월서리(月西里), 정왕리(正往里), 오이리(烏耳里), 죽률리(竹栗里), 구정리(九井里), 산북리(山北里)
대월면(大月面)	거모리(去毛里), 석곡리(石谷里), 선부리(仙府里), 달산리(達山里)
와리면 (瓦里面)	아곡리(芽谷里), 선곡리(船谷里), 신각리(新角里), 적길리(赤吉里), 무곡리(茂谷里), 성두리(城頭里), 이목동(梨木洞), 능내리(陵內里), 성내리(城內里), 원상리(元上里), 원포리(元浦里), 원하리(元下里), 초지리(草芝里), 시우동(時雨洞)
성곶면(聲串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본오리(本五里), 분오리(分五里)
북방면 (北方面)	속달일리(速達一里), 속달이리(速達二里), 속달삼리(速達三里), 팔곡일리(八谷一里), 팔곡이리(八谷二里), 둔대동(屯垵洞), 대야미리(大夜味里), 도마교리(渡馬橋里), 건지리(乾之里)
월곡면 (月谷面)	사사리(沙土里), 당수리(棠樹里), 오룡동(五龍洞), 상초평리(上草坪里), 일리(一里), 하초평리(下草坪里), 월암리(月岩里), 대대리(大垵里), 입북리(笠北里)

군·과천군은 경기도 (치소 수원에 속한) 4등군이 되었다.

광무 10년(1906년)에는 칙령 제49호로서 ‘지방 구역 조정 건’을 반포하여 그 동안 통치의 편의상 인근 두 개의 고을 간에 서로 엇물리게 경계를 정했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는데, 안산군의 경우 인근 광주군(廣州郡)의 성곶면(聲串面)·월곡면(月谷面)·북방면(北方面)의 3개 면이 안산군으로 편입됨으로써 종전의 6개 면에서 9개 면이 되었다.

새로 편입된 3개 면의 인구 및 구역을 「여지도서」를 통해 살펴보면, 성곶면은 328호에 인구 1725명(5개 이 ; 1, 2, 3, 4, 5리)이고, 북방면은 317호에 인구 1511명(8개 이 ; 속달리<速達里>·둔대리<屯垞里>·대야미리<大夜味里>·이리<二里>·도마교리<渡馬橋里>·삼리<三里>·팔곡리<八谷里>)이며, 월곡면은 351호에 인구 1173명(7개 이 ; 1리·2리·수유당수리<水酉棠樹里>·사사리<沙士里>·오룡동<五龍洞>·상초평리<上草坪里>·하초평리<下草坪里>)이었다. 표 4-2는 조선 말기의 안산군의 행정구역을 살펴본 것으로, 안산군은 총 9면 87동리였으며 치소(治所)는 군내면 수암리에 있었다.³⁾

4. 일제 시대의 행정구역

1910년 일제의 강점에 의해서 명목상으로도 완전히 주권이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통감부급이사청관제(統監府及理事廳官制)’는 폐지되고, 동년 9월 30일 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제(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制)’가 제정 공포되어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35년 간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한 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체제를 이식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였다. 즉 조선총독의 독재정권은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서 식민통치정책의 수행을 위한 정치적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권위적·절대적 통치 이념은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화를 확립한 일본의 행정적 기본 이념으로서 이것이 더욱 강화된 지배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행정 권력은 총독의 수중에 집중되었다. 도지사에 대한 자의적(恣意的)인 임명, 이들 행정관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권, 경찰과 사법관리에 대한 총독의 지휘권 등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여 강력한 국가적 통제에 의한 지방행정을 시도하였다.

1910년 9월 30일 ‘총독부관제(總督府官制)’와 함께 일제의 칙령 제357호로 ‘조선총독부지방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制)’를 공포하여 도(道)의 관찰사를 도장관(道長官)으로 개칭하고 각 도에 내무부와 재무부를 두도록 함과 아울러,

3)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 1912.

도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부(府)·군(郡)·면(面)을 재확인 하였는데, 특히 여기에서 각 부·군이 면을 두도록 하는 명문 규정과 함께 면에는 면장을 두되 이를 판임관(判任官) 대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칙령은 도와 부·군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에 대해서는 이를 총독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음날인 10월 1일 총독부령 제6호로 ‘도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제7호로 ‘부·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종전의 그것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때 정부 직할로 있었던 종전의 한성부(漢城府)가 경기부(京畿府)로 개칭되면서 경기도 직할로 들어가게 되었다. 도 및 부·군에 관한 부령(府令)과 함께 같은 날인 10월 1일 총독부령 8호로 ‘면(面)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것이었다. 면에는 한말(韓末)에 이르기까지 지방관이 배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 또한 면사방(面社坊) 등 다양하게 불려왔고, 그 장(長)도 풍헌(風憲)·약정(約正)·집강(執綱)·면임(面任)·방수(坊首)·방장(坊長)·사장(社長)·검독(檢督)·도평(都平)·이정장(里正長)·관령(管領) 등 여러 가지로 호칭되었다.

한편 고종 32년(1895년)에는 이미 이들 면·방·사의 장(長)을 ‘집강’으로 통일하는 한편, 그 밑에는 서기·하유사(下有司)·면주인(面主人)을 두었다. 따라서 면은 이미 일제 강점 이전부터 그 명칭은 다양했지만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1906년의 지방구역정리와 함께 총 4338면으로 정비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 시기에 이르러 법적 근거를 재정립한 것이었다. 이로써 일제 강점 직후의 지방행정구역은 ‘13도 12부 317군 4322면’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에는 경기도령 제3호에 의거 경성부에 군·면제를 도입하는 등의 부분적인 도·부·군·면 간의 경제 변경이 있었을 뿐 제도적인 큰 변화는 없었다가,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그 이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 총독부령 제111호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의거 도의 관할구역과 군·부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이 대폭 정리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 도의 도령(道令)과 도고시(道告示)에 의하여 면과 이·동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대체로 이때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대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였다. 한말에 있어서 이른바 기간행정구역(基幹行政區域)이었던 부·군의 경우는 그 규모가 다양하여 면적상

의 차이가 최대 503평방리로부터 최소 3평방리까지였고, 인구 또한 제일 큰 곳이 28,000호인 데 비하여 제일 적은 곳은 1800호에 불과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면에 있어서도 그 면적·인구·재력 측면에서 격차가 극심하였고, 규모가 너무 작아 단위행정구역으로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하였다.

그리하여 개편의 기준을 부(府)에 대해서는 부제(府制)의 시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이를 한축(限縮)하고, 군(郡)에 있어서는 면적을 약 40방리(方里), 호수는 약 1000호를 한도로 하여 이에 미달하는 곳은 인접 군에 병합하는 한편, 면(面)에 대해서는 대체로 면적 약 4방리, 호수 800호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미달하는 곳은 이를 합병·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입각한 행정구역은 도와 부·군에 있어서는 1914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면과 이·동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개편이 이 이후에도 계속되어 충북·충남·평북은 1915년에, 그리고 경기·강원·황해·평북·평남·함남의 경우는 1916년에 이르러서야 완결되었다. 이로써 전국의 지방행정구역이 ‘13도 12부 220군 2518면 28,181리’가 되었다.

표 4-3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의 시흥군 행정구역

면 명	이 명
북면 (北面)	영등포리(永登浦里), 신길리(新吉里), 번대방리(番大方里), 도림리(道林里), 구로리(九老里), 당산리(堂山里), 양평리(楊平里), 노량진리(鷺梁津里), 본동리(本洞里), 흑석리(黑石里), 동작리(銅雀里)
신동면 (新東面)	우면리(牛眠里), 양재리(良才里), 서초리(瑞草里), 잠실리(蠶室里), 반포리(盤浦里), 방배리(方背里), 사당리(舍堂里)
동면 (東面)	시흥리(始興里), 안양리(安養里), 독산리(禿山里), 신림리(新林里), 상도리(上道里), 봉천리(奉天里), 가리봉리(加里峯里)
서면 (西面)	소하리(所下里), 일직리(日直里), 철산리(鐵山里), 하안리(下安里), 박달리(博達里), 광명리(光明里), 노온사리(老溫寺里), 가학리(駕鶴里)
과천면 (果川面)	관문리(官門里), 문원리(文原里), 갈현리(葛峴里), 하리(下里), 막계리(莫溪里), 주암리(注岩里)
서이면(西二面)	호계리(虎溪里), 안양리(安養里), 일동리(一洞里), 이동리(二洞里), 비산리(飛山里)
남면(南面)	당리(堂里), 산본리(山本里), 금정리(衿井里), 부곡리(富谷里)
수암면 (秀岩面)	화정리(花井里), 와리(瓦里), 고잔리(古棧里), 월곡리(月陂里), 능곡리(陵谷里), 수암리(秀岩里), 장상리(章上里), 장하리(章下里), 부곡리(釜谷里), 양상리(楊上里), 성포리(聲浦里), 조남리(鳥南里), 목감리(牧甘里), 물왕리(物旺里), 산현리(山峴里), 하상리(下上里), 광석리(廣石里), 하중리(下中里), 논곡리(論谷里)
군자면 (君子面)	거모리(去毛里), 선부리(仙府里), 초지리(草芝里), 원곡리(元谷里), 신길리(新吉里), 원시리(元時里), 목내리(木內里), 성곡리(城谷里), 군자리(君子里), 죽울리(竹栗里), 정왕리(正往里), 월곡리(月串里), 장곡리(長谷里), 장현리(長峴里)

이상의 부령 제111호에 의한 부·군 통폐합 조치로 삼국 시대 이래 1400여 년 간 시흥(금천)·안산·과천은 3개의 군으로 나뉘어 내려오다가 마침내 시흥군에 흡수·통합되었다. 그리고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의거해 안산군에 편입되었던 성곶·북방·월곡의 3개 면은 8년 만에 수원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한말 이래 3군의 행정구역 수가 22면 162개 이(里)였던 것이 부·군의 통폐합 조치로 9면 83개 이로 대폭 줄어들었다. 통폐합 후의 시흥군의 군청은 북면 영등포리(永登浦里)에 있었으며, 당시의 행정구역은 표 4-3과 같다.

일제가 이 땅에서 실시한 지방자치제도란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지방행정의 민주적 수행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적대 감정을 완화·회유하기 위한 형식적 처방의 하나였으므로 관치적인 중앙집권적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일제는 자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제(道制)를 부·읍·면제보다 훨씬 뒤에 실시하였다. 즉 1930년 12월 1일 총독부령 제15호 ‘도제(道制)’가 공포된 3년 후인 1933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도(道)가 법인격을 갖게 되어 도의 공공사무와 법률·칙령·제령에 의하여 도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부제(府制)는 1913년 10월 30일 총독부령 제7호에 근거하여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법인으로 등장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일제강점 당시의 도시행정조직은 복잡하였다. 부윤(府尹)이 통할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직 이외에도 일인거류민단, 개항지의 외국거류지와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 그리고 경성(京城)에 있어서의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와 기타 도시의 위생조합 등의 조직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정조직들을 정리·통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총독부제령 제7호였다. 그리하여 거류민단·거류사회·한성위생회 등이 폐지되고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만을 학교조합에서 계승케 하고, 그 밖의 모든 사무는 부(府)에서 이를 인수하는 한편 공법인으로 일반 공공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읍면제(邑面制)는 1913년 3월 총독부령 제16호로 ‘면경비부담방법(面經費負擔方法)’이 공포됨으로써 면사무의 경비 지변(支辨)에 필요한 면부과금의 과징(課徵)이 가능하게 되었고, 1914년 구역 조정을 거쳐 1917년 6월 9일에 총독부제령 제1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면제(面制)’에 의하여 면이 사업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오늘날 읍의 전신인 지정면제(指定面制)가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들 지정면은 상담역을

두고 기채(起債) 능력까지 인정되어 총독의 인가에 따라 차입(借入)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면은 지방인의 부담으로 지방공공사업의 경비를 지불하는 재정 주체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20년 제1차 지방제도 개정으로 지정면에 있어서는 선거제에 의하여, 그리고 보통면에 있어서는 임명제에 의하여 자문기관인 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지정면(指定面)의 지정 요건은 일본인이 많고 재력이 풍부하고 상공업지로서 비교적 도시적인 곳이었다. 그리고 협의회원(協議會員) 선거권을 지닌 자가 수백 명 이상이고, 면부과금으로 1호 평균 7원(圓) 이상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흥군 영등포면을 비롯하여 24개 면이 지정면이 되었는데, 이들 지정면은 1930년 12월 1일 제령(制令) 제12호로 공포되어 다음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읍면제(邑面制)'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리하여 종전의 면이 읍과 면으로 갈라지면서 각각 법인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1920년대 지방행정구역의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1927년 광한서림(廣韓書林) 간행의 「현행조선부군도면정동명칭일람(現行朝鮮府郡島面町洞名稱一覽)」에 의거하여 1914년 부·군 통폐합 후 변경된 시흥군의 행정구역 내용을 살펴보면, 면사무소가 화정리(花井里)에서 수암리(秀岩里)로 이전되었으며, 당

표 4-4 1942년의 시흥군 행정구역(총 8면 71리/군청; 경성부 영등포리)

면 명	이 명
안양면(安養面)	안양리(安養里), 일동리(一洞里), 이동리(二洞里), 비산리(飛山里), 호계리(虎溪里)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 박달리(博達里), 하안리(下安里), 가학리(駕鶴里), 노온사리(老溫寺里), 일직리(日直里), 철산리(鐵山里), 광명리(光明里)
신동면(新東面)	잠실리(蠶室里), 방배리(方背里), 반포리(盤浦里), 양재리(良才里), 사당리(舍堂里), 우면리(牛眠里), 신원리(新院里), 서초리(瑞草里)
남면(南面)	당리(堂里), 산본리(山本里), 금정리(衿井里), 부곡리(富谷里), 당정리(堂井里)
과천면(果川面)	관문리(官門里), 주암리(注岩里), 문원리(文原里), 초계리(草溪里), 하리(下里), 갈현리(葛峴里)
동면(東面)	시흥리(始興里), 안양리(安養里), 독산리(禿山里), 신림리(新林里), 가리봉리(加里峯里), 봉천리(奉天里)
군자면(君子面)	거모리(去毛里), 장현리(長峴里), 월곡리(月串里), 죽률리(竹栗里), 장곡리(長谷里), 정왕리(正往里), 군자리(君子里), 선부리(仙府里), 신길리(新吉里), 목내리(木內里), 초지리(草芝里), 원곡리(元谷里), 성곡리(城谷里), 원시리(元時里)
수암면(秀岩面)	수암리(秀岩里), 장상리(長上里), 장하리(長下里), 양상리(楊上里), 부곡리(釜谷里), 성포리(聲浦里), 월곡리(月陂里), 고잔리(古棧里), 와리(瓦里), 화정리(花井里), 능곡리(陵谷里), 하중리(下中里), 하상리(下上里), 광석리(廣石里), 물왕리(物旺里), 산현리(山峴里), 조남리(鳥南里), 논곡리(論谷里), 목감리(牧甘里)

시의 군청소재지는 영등포면 영등포리였으며, 행정구역은 10면 83리였다.

한편 경성부에 인접한 시흥군은 경성부의 구역 확장에 따라 군역(郡域)의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제1차 편입을 보면, 즉 1936년 2월 14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일 시행을 본 부령(府令) 제8호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개정’에 의거 영등포읍 좌안 지역을 제외한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와 북면의 노량진리·본동리·혹성리·동작리·신길리, 그리고 반대방리 중 상도리 우안 지역, 도림리 중 상도리천(上島里川) 우안 지역, 동면의 상도리가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1940년대 시흥군의 행정구역상의 변동 사항으로서는 1941년 10월 1일 서이면(西二面)이 안양면으로 개칭된 것이었다. 서이면의 개칭 이후 1945년 광복까지 시흥군의 행정구역에는 변동이 없었다. 1942년 현재의 시흥군의 행정구역 내용을 조선지리학회가 펴낸 「조선일람(朝鮮一覽)」을 통해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5. 광복 후의 행정구역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우리 나라는 잔악한 식민지 정책에서 벗어나 미군정(美軍政)의 잠정적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점령정책은 그것이 비록 군정이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행정적 질서를 정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군정 2년 11개월 간의 지방행정은 한 마디로 확고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적 제도 개편으로 일관한 과도기적 행정이었다. 즉 군정 기간 중 지방제도는 식민지적 색채가 짙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제하의 지방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때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하여 도와 동등한 지위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그 관할구역으로서 종로구·중구·마포구·성동구·서대문구·동대문구·용산구·영등포구 등 8개 구를 설치한 것이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기하여 미군에 의한 군정에 종말을 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우리 정부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대과업과 함께, 지방제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 수립 3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법률 제8호로 유효기간 6개

월의 시한법인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지방제도에 새 장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동법 제5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道)·부(府)·군(郡)·도(島)의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었는데, 동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제34조에 의해 시(市)·도(道)·부(府)·군(郡)·도(島)의 관할구역은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하도록 하였다.

한편 6개월 시한법이었던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그 뒤 지방자치법이 9개월 후에야 제정·시행됨으로써 3개월 간의 법적 공백기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9개월 동안에 안양 등 7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수원 등 5개 읍이 부로 승격되었다. 또한 1959년 7월 4일에는 법률 제32호인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를 시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하는 외에는 종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후 1949년 8월 13일에 대통령령 제162호로 공포되어 8월 14일에 시행된 ‘읍 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 159호로 제정·공포된 ‘시도(市道)의 관할구역 및 구군(區郡)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의 건’에 의거 시흥군 동면 구로리(九老里)·도림리(道林里)·번대방리(番大方里)가 서울시 영등포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제2차 서울시로 편입).

표 4-5 1953년의 시흥군 행정구역(1읍 7면 71리/군청; 안양읍 안양리)

면(읍)명	이 명
안양읍(安養邑)	안양리(安養里), 일동리(一洞里), 이동리(二洞里), 비산리(飛山里), 호계리(虎溪里)
남면(南面)	당리(堂里), 산본리(山本里), 금정리(衿井里), 부곡리(富谷里), 당정리(堂井里)
동면(東面)	시흥리(始興里), 안양리(安養里), 독산리(禿山里), 신림리(新林里), 가리봉리(加里峯里), 봉천리(奉天里)
신동면(新東面)	잠실리(蠶室里), 방배리(方背里), 반포리(盤浦里), 양재리(良才里), 사당리(舍堂里), 우면리(牛眠里), 신원리(新院里), 서초리(瑞草里)
과천면(果川面)	관문리(官門里), 주암리(注岩里), 문원리(文原里), 초계리(草溪里), 하리(下里), 갈현리(葛峴里)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 박달리(博達里), 하안리(下安里), 가학리(駕鶴里), 노온사리(老溫寺里), 일직리(日直里), 철산리(鐵山里), 광명리(光明里)
수암면(秀岩面)	수암리(秀岩里), 장상리(長上里), 장하리(長下里), 양상리(楊上里), 성포리(磬浦里), 월피리(月陂里), 고잔리(古棧里), 와리(瓦里), 화정리(花井里), 능곡리(陵谷里), 하중리(下中里), 하상리(下上里), 광석리(廣石里), 물왕리(物旺里), 산현리(山峴里), 조남리(鳥南里), 논곡리(論谷里), 목감리(牧甘里)
군자면(君子面)	거모리(去毛里), 군자리(君子里), 장현리(長峴里), 장곡리(長谷里), 월곶리(月串里), 정왕리(正往里), 죽률리(竹栗里), 신길리(新吉里), 성곡리(城谷里), 목내리(木內里), 원시리(元時里), 초지리(草芝里), 원곡리(元谷里), 선부리(仙府里)



사진 4-2 1959년의 수암면사무소.
안산시 수암동 256번지에 있으며,
1965년까지 면사무소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에는 여순반란사건(麗順反亂事件)에 이어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쳐 1952년에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자치의 경험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기로 정국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는 그 출발부터가 순탄하지 못하여 1960년 4·19혁명에 이르기까지 무려 네 차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1950년대의 행정구역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 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흥군의 행정구역도 거의 변경 사항이 없었다. 문연사에서 발간된 「지방행정구역일람(地方行政區域一覽)」을 중심으로 1953년 10월 현재의 시흥군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4·19혁명과 5·16군사정변과 함께 지방제도에서도 일대 격동과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4·19 결과로 주민 참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기관 자기선임의 원칙에 입각한 시·읍·면장 직선제의 부활과 시장·도지사의 공선제를 새로이 채택하였으나, 반 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5·16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즉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는 폐지되고, 이어 1961년 9월 1일에는 법률 707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제로 다시 바뀌게 되었고 읍·면 대신에 군(郡)이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 행정구역의 조정 절차가 약간 달라졌다. 종래에는 이(里)·동(洞)에 한해서만 조례규정사항(條例規定事項)이었고, 그 밖의 시(市)·도(道)와 시(市)·군(郡)·구(區)의 명칭 및 구역 경계의 조정 및 시(市)·읍(邑)으로의 승격 등이 모두 법률 사항이었으나, 읍(邑)과 구(區)의 설치 및 읍·면의 폐치분합(廢置分合), 그리고 시·군·읍·면 간의 경계 조정의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 규정 사항으로 완화하였다. 이때의 행정구역 개편 기준은 자치단체 규모의 적정화, 정치적 변경지역의 시정, 주민생활의 불편 제거, 소도·소읍의 육성, 소요경비의 절약이었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자치단체 규모를 적정화하는 차원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 당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은 1949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총면적 268km²에 인구가 1,418,000명으로 1km²당 5,000여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2년 7월 말 현재의 주민등록 인구는 무려 그 두 배가 넘는 2,923,000명으로 늘어났고, 이에따라 인구밀도는 또한 1km²당 10,000명을 넘게 되어 교통·위생·공안상의 많은 도시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인구집중현상이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어 나감으로써 적잖은 사회문제와 행정상의 애로에 직

표 4-6 1963년의 시흥군 행정구역(1읍 6면/군청; 안양읍 안양리 660-7)

면(읍)명	이 명
안양읍(安養邑)	안양리(安養里), 비산리(飛山里), 일동리(一洞里), 이동리(二洞里), 신안양리(新安養里), 호계리(虎溪里), 박달리(博達里)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 하안리(下安里), 철산리(鐵山里), 광명리(光明里), 노온사리(老溫寺里), 가학리(駕鶴里), 일직리(日直里)
과천면(果川面)	관문리(官門里), 문원리(文原里), 갈현리(葛峴里), 초계리(草溪里), 하리(下里), 주암리(注岩里)
의왕면(儀旺面)	고천(古川), 이리(二里), 삼리(三里), 왕곡리(旺谷里), 오전리(五全里), 학의(鶴儀里), 내손리(內蓀里), 청계리(淸溪里), 포일리(浦一里)
수암면(秀岩面)	수암리(秀岩里), 장상리(長上里), 장하리(長下里), 양상리(楊上里), 부곡리(釜谷里), 성포리(聲浦里), 월곡리(月陵里), 고잔리(古棧里), 와리(瓦里), 화정리(花井里), 능곡리(陵谷里), 하중리(下中里), 하상리(下上里), 광석리(廣石里), 물왕리(物旺里), 산현리(山峴里), 조남리(鳥南里), 논곡리(論谷里), 목감리(牧甘里)
군자면(君子面)	거모리(去毛里), 군자리(君子里), 장현리(長峴里), 장곡리(長谷里), 월곶리(月串里), 정왕리(正往里), 죽물리(竹栗里), 신길리(新吉里), 성곡리(城谷里), 목내리(木內里), 원시리(元時里), 초지리(草芝里), 원곡리(元谷里), 선부리(仙府里)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구역을 대폭 확장코자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정비를 목표로 시흥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을 흡수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2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 군·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흥군 신동면(新東面)의 잠실리·방배리·반포리·양재리·사당리·우면리·신원리·서초리와 동면(東面)의 시흥리·독산리·가리봉리·신림리·봉천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다(제3차 서울시로 편입).

한편 같은 날(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5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 시행된 ‘시·군 관할구역 변경 및 폐치(廢置)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면(東面) 안양리와 서면(西面) 박달리가 안양읍(安養邑)에 편입되었는데, 동면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읍 내에 안양리가 있어 신안양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서울시의 구역 확장으로 신동면 및 동면 일부 등 시흥군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된 반면, 같은 법률 제1175호에 의거 화성군(華城郡) 일왕면(日旺面) 중 이리(二里), 삼리(三里), 고천리(古川里), 왕곡리(旺谷里), 오전리(五全里), 학의리(鶴儀里), 내손리(內蓀里), 청계리(淸溪里), 포일리(浦一里)가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칭되면서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신동면과 동면의 대부분 지역이 서울시에 할애되고 화성군 일왕면(의왕면)이 시흥군에 편입된 직후인 1963년 1월 1일 현재의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표 4-6과 같다.

1970년대의 행정구역 개편은 주로 행정의 관할구역 영역으로서의 지역

적·사회적 여건과, 주민의 생활영역으로서의 생활권 내지 경제권 등에 변화가 생겨서 행정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1970년 6월 10일 군조례(郡條例) 제199호에 의거 당시 인구 8056명의 서면 광명리와 철산리의 2개 법정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면광명출장소(西面光明出張所)가 설치되었다. 광명출장소가 설치된 것은 1963년 9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547호로서 서면 광명리와 철산리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으로 편입된 후, 1968년 7월 18일부터 1972년 8월 5일까지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가 380,000평의 택지 조성을 실시한 후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3월 12일에는 2건의 법률과 4건의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무려 192개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3개 시 33개 읍 4개 구가 새로이 설치되고 2개 군이 폐지됨과 아울러, 150개 지역에 달하는 시도(市道)·시군(市郡)·읍면(邑面) 간의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그 동안 무질서하게 팽창되어 온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조정과 서울시 주변 위성 도읍(都邑)의 시 승격이 시급하였다. 즉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주변의 인천·수원·의정부 등의 기존 위성도시와 서울 외곽도시의 합리적 육성을 목적으로 종전의 안양읍·소사읍·성남출장소 지역을 안양시·부천시·성남시로 각각 승격하였다.

서울 기점 20km권의 경부선에 위치한 안양읍은 1960년대 이래 급격히 발전하여 1960년의 30,000명 수준에서 1971년에는 90,000명을 넘게 되었다. 또한 서울로부터 20km권 밖의 경인선에 위치한 소사읍의 경우도 1960년에는 50,000명이 채 못되었으나 1971년에는 90,000명 가까이 됨으로써 그 규모 면에서 시 승격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울시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들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조성된 성남 단지에 있어서도 인구 규모 면에서는 물론, 앞으로 수도권 베드타운으로서의 육성이 바람직하였기에 이를 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시로 승격될 당시의 세 지역의 인가와 인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안양읍	소사읍	성남출장소
인 구	91,875명	86,534명	145,345명
시가지 인구 비율	84%	89%	80%

이 시기에 경기도 부천군이 폐치되었는데, 그것은 관내 소사읍(素砂邑)이 부천시(富川市)로 승격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이때에 내륙지역과 도서지

표 4-7 부천군 폐치에 따른 인접군의 조정

개편 전				시 승격(감)				개편 후(증)			
명칭	인구	면적	이	명칭	인구	면적	이	명칭	인구	면적	이
시흥군	186,665	312km ²	67	안양시	91,875	58km ²	7	시흥군 (부천군)	116,019 21,229	304km ² 54km ²	74 14
부천군	147,589	355km ²	84	부천시	56,534	27km ²	10	옹진군 (부천군)	58,425 43,182	290km ² 216km ²	42 34
김포군	78,084	239km ²	73					김포군 (부천군)	104,728 26,433	297km ² 58km ²	102 29

역(島嶼地域)으로 구분하여 도서 6개 면은 옹진군(甕津郡)에, 내륙 3개 면은 인근 김포군(金浦郡)과 시흥군(始興郡)에 나누어 편입시켰다(표 4-7).

시흥군은 관내 안양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군역(郡域)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간 반면, 부천군의 폐지로 인해 일부 지역이 보충되었다. 즉 부천군의 관할구역 중 소래면(蘇萊面)의 전역(全域)인 신천리(新川里)·대야리(大也里)·은행리(銀杏里)·미산리(米山里)·방산리(芳山里)·포리(浦里)·안현리(鞍峴里)·매화리(梅花里)·도창리(道倉里)·금리리(錦李里)·과림리(果林里)·옥길리(玉吉里)·계수리(桂壽里)·무지리(茂芝里) 등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시흥군은 1읍 6면에서 7면 74개리에 주민 116,100명, 면적 304km²가 되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시흥군 간에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직강공사(直江工事)로 실질적 경계선이 1973년 3월 12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즉 법률 제2596호인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 영등포구 개봉동과 시흥군 광명리 간에 관할구역이 교환되면서 경계가 변경되었다.

서면 광명리 등의 행정구역 개편은 그후에도 계속되어 1974년 6월 1일에는 군조례(郡條例) 제401호에 의거 서면 광명출장소가 시흥군 광명출장소로 승격되었다. 2년여 후인 1976년 4월 20일에는 7개 분소가 설치되었고, 다시 3년 후인 1979년 4월 7일에는 대통령령 9409호인 ‘미금읍 등 53개 읍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면이 소하읍으로, 남면이 군포읍으로 각각 승격되어 같은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는 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60년대에 증가한 시부 인구 5,710,000명 중 52% 2,980,000명이 서울특별시에서 증가된 인구이고 12%인 670,000명은 부산시의 증가분이며, 결국 서울과 부산이 10년 간 증가된 도시인구의 64%를 수용하고 있어서

대도시의 팽창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서울과 부산이 각각 증가된 도시인구의 33.1%와 14.8%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 서울 주변 60km 이내의 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 등에서는 인구 폭증에 따른 주택 부족, 교통체증, 쓰레기 처리장 부족, 환경오염, 공해공장의 유입 및 도시기반시설 마련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온갖 문제가 발생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도시권 인구집중억제대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7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였다. 1976년 7월 1일 서울의 공해공장을 소산(疏散)·수용할 수 있는 신공업도시 건설의 적지를 선정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건설부가 동년 9월 21일 반월(半月) 지역을 선정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신공업도시가 태동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동년 10월 2일 기준지가(基準地價) 고시 및 반월신공업도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12월 4일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결정 고시하는 한편, 12월 24일 반월신도시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경기도와 산업기지개발공사 간에 위수탁협약(委任託協約)을 체결하였다.

1976년 12월 31일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設置條例) 제757호를 공포하고, 다음해 1월 11일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去毛里)에 지원사업소를 개소해 용지매수사무를 비롯해 보상이주대책업무(補償移住對策業務) 등을 추진하여, 1976년 10월 시흥군 군자면·수암면 지역과 화성군 반월면의 일부에 신공업도시 건설이 발표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이 선정된 것은 (1) 서울에서의 소산 공장을 수용하고, (2) 서울의 인구 소산과 주택문제를 돕고, (3) 서울로부터 독립된 자기완결도시로 육성하고, (4) 서해안 개발의 거점 확보와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를 흡수할 기능을 지닐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976년 12월 31일 경기도 조례 제757호로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수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79년 8월 10일 공포된 경기도조례 제969호에 의해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로 승격되었으며, 반월지소·수암지소·군자지소가 설치되었다. 한편 출장소에서는 2군 3면의 지방행정을 통할하게 되었는데,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에 출장소를 개소하고 해당 군수 및 면장과 행정사무위수탁협약에 따라 종합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편입 구역은 2군 3면으로서 시흥군 수암면 22.22km²에 6개 법정리(고잔리·와리·월피리·부곡리·성포리·양상리), 군자면 30.35km²에 7개 법정리(신길리·성곡리·목내리·원시리·초지리·원곡리·선부리), 화성군 반월면 21.35km²



사진 4-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반월·수암·군자지소 현판식. 1980년
1월 18일 수암면 고잔리 현장 모습.

에 5개 법정리(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 2리)로서 총면적 73.92km²에 2군 3면 18개 법정리로 되어 있었다.

이후 계속적인 도시개발과 성장을 거쳐 법률 제3798호(1985년 12월 28일 공포)에 의해 1986년 1월 1일부터 안산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2절 화성(반월) 지역

화성(華城) 지역은 고려 초부터 광주군(廣州郡)에 속하였으며, 북방면(北方面)·성곶면(聲串面)·월곡면(月谷面)·달성면(達城面) 등 4개 면을 관할하였다. 그후 이 4개 면은 1906년 9월 24일 안산군(安山郡)에 이속되었고, 1914년 군면(郡面) 통폐합 때 안산군 소속 4개 면이 수원군(水原郡)에 이관되면서 반월면(半月面)으로 개칭되었다.

명칭의 유래는 중앙지역에 위치한 수리산(修理山)의 속칭인 반월산(半月山)의 이름을 따서 반월면이라 하였다. 이 당시까지 팔곡리(八谷里)에 있던 면사무소는 1925년의 을축년(乙丑年) 대홍수 때 수해를 만나 건건리(乾乾里)로 옮겼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의 반월동사무가 위치한 곳이다. 그 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될 때 화성군으로 이관되었다가, 1979년 8월 20일 5개 법정리(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 2리)에 13개 행정리가 신도시로 개발되는 경기도반월지구출장소(안산시청 전신)로 이관되었고, 1983년 2월 13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2개 법정리(초평리·월암리)에 5개 행정리가 시흥군(始興郡) 의왕면(儀旺面)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다시 1994년 12월 26일 공포된 안산시 조례 제572호에 의해 3개 법정리(건건리·사사리·팔곡 1리)가 법정동으로 되면서 안산시로 편입(반월동)되었다가, 동북쪽 4개 법정리(둔대리·속달리·대야미리·도마교리)는 군포시에, 2개 법정리(당수리·입북리)는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반월면은 자동 폐지되었다.

제3절 응진(대부) 지역

대부도(大阜島)는 홀곶 패총(貝塚)과 말부흥 패총 등에서 발굴·채집한 줄무늬 토기를 토대로 주민이 살기 시작한 연대를 신석기 시대 중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다른 서해 도서지방(島嶼地方)에서와 같이 어로활동과 더불어 사

냥과 원시농경 등으로 식량을 획득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도는 옛날부터 지형적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평지가 많아 농경생활에 적지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부도 패총에서 발굴된 타제석기(打製石器)와 마제석부(磨製石斧; 돌도끼) 등의 출토는 이와 같이 신석기 시대 중기의 주민 활동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홀곶 패총이나 말부흥 패총은 공통적으로 바닷가 구릉 언덕을 바람막이삼아 살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한강 유역과 남양만(南陽灣) 방면에서 황해를 건너 중국으로 통하는 해상로를 장악하기 위해 삼국 상호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곳 소속이 여러 차례 바뀌었을 것이다. 대부 지역을 당초부터 지배한 나라는 백제로 추정하는데, 4세기 경부터 5세기 경까지 고구려가 남하정책을 펴 백제를 공격해 음과 동시에 백제와 중국 간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대부도에 대한 백제의 세력은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때 고구려는 장수왕 63년에 한강 유역을 점령한 뒤 계속 밀고 내려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남양주 지역에 당성군(唐城郡)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부도 지역도 고구려에 소속되어 당성군 관할하에 있었을 것이다. 그후 백제는 고구려가 내분으로 혼란에 빠지자 신라와 동맹을 맺고 551년에 한강 유역을 다시 백제의 땅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2년 후인 553년에 신라 진흥왕은 백제를 기습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신라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대부 지역은 진흥왕 14년부터 신라 말까지 신라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대부도 지역은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에 소속되었다. 대부도(大阜島)라는 지명이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인데, 오늘날의 명칭과 음은 같으나 한자는 한 자가 달랐다. 즉 큰대(大) 자는 같으나 그 다음 자는 ‘部’ 또는 ‘府’를 써서 ‘大部島’ 또는 ‘大府島’ 등으로도 표기하였다. 대부도가 주위에 있는 다른 섬보다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여 사또가 머무는 중앙지역이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大阜島’라는 표기는 고려 시대에 사용되었고, ‘大府島’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성종 18년(1487년)부터 ‘大府島’를 ‘大阜島’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조선 말기에 와서는 ‘大阜島’로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도는 조선 초기부터 남양도호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선감도(仙甘島)·풍도(豐島)·탄도(炭島) 등이 모두 남양도호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중 풍도(豐島<楓島>)만은 성종 17년(1486년)에 수원도호부로 이속되었다가 중

중(1506년~1544년) 때 다시 남양도호부로 돌아왔다.

대부면은 17~18세기경에 시행된 면리제(面里制)가 남양도호부에 시행되어 설치되었다. 그 이전의 대부도면(大阜島面)의 하부행정구역이었던 동(洞)은 (대부도 진장(鎭長)인 첨사(僉使)가 통치할 때의 대부진(大阜鎭) 밑에) 동쪽은 영전동(營田洞), 남쪽은 흘곶동(訖串洞), 북쪽은 종현동(鍾懸洞)으로 나뉘어 편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진이 1894년에 폐지되고 1909년에 남양군으로 소속되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대부면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고유지(古油地)에다 두었는데, 1914년에는 남양군(南陽郡)에서 부천군(富川郡)으로 관할이 바뀌면서 주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고유지에 면사무소를 새로 건축하였다.

여기서 본섬인 대부도와는 25km 떨어져 있고 화성군 서신면과는 30km, 충남 당진군 난지도와는 4.5km 떨어져 있는 풍도(豐島<豐洞>)에 대해서 별도로 그 연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풍도는 삼한(三韓) 시대에는 마한(馬韓)의 땅이었는데 서기 11년 백제가 마한을 점령한 후부터 백제의 땅이 되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660년부터 935년까지 신라의 땅이 되었다. 그후에는 고려의 영토, 조선의 영토가 되었다.

풍도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선사시대의 지석묘(支石墓) 2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2500년~3000년 전에도 이곳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후 고려 초부터는 전라도의 조세곡을 실은 배들이 임진강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근처를 많이 지나다녔을 것이고, 따라서 차츰 사람 살 만한 곳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들어 단풍섬이라는 소문도 나고 사람들도 차츰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마을이 제대로 형성된 것은 조선 초기쯤이 아닐까 생각된다. 풍도는 조선 후기의 호적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이 행정구역 변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486년	성종 17년	수원도호부에 이속
1775~1823년	영조 51년~순조 24년	수원부 마정면(馬井面) 풍도리(楓島里)
1824~1872년	순조 25년~고종 9년	수원부 장안면(長安面) 풍도리(楓島里)
1873~1905년	고종 10년~고종 32년	남양부 대부면(大阜面) 풍도리(楓島里)
1906~1913년	고종 33년~고종 41년	남양부 대부면(大阜面) 풍도리(豐島里)
1914~1972년	일본 정부에서 개혁	부천군 대부면(大阜面) 풍도리(豐島里)
1973~1994년	법률 제2697호	웅진군 대부면(大阜面) 풍도리(豐島里)

1994년 12월 2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434호(?) 및 안산시 조례 제572호(1994년 12월 26일)의 공포로 대부분 전역의 5개 법정리(선감도·풍도·동리·남리·북리)가 법정동으로 되면서 대부동(행정동)이 설치되었다.

풍동(풍도)은 가장 가까운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로부터 4.5km 거리에 있는데, 당진팔경(唐津八景) 중 8번째의 풍도요망(豊島遙望)으로서, 멀리 보이는 모습이 천광수색(天光水色)과 어울려 매우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다.

제4절 안산시

1. 연혁

시청 위치 :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연 대	연 혁
1976. 12. 31	• 도조례 제757호(1976. 12. 31 공포)로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설치.
1979. 08. 10	• 도조례 제969호(1979. 8. 10 공포)로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경기도 반월출장소로 승격되고, 반월지소·수암지소·군자지소로 설치.
1986. 01. 01	• 법률 제3798호(1985. 12. 18 공포)로 반월출장소를 안산시로 승격(7동).
1988. 10. 01	• 시조례 제213호(1988. 9. 15 공포)로 중앙동을 고잔 1동·고잔 2동·성포동으로, 원곡동을 원곡 1동·원곡 2동으로, 원초동을 초지동·공단동으로 행정동 분동(11동).
1991. 11. 18	• 시조례 제416호(1991. 11. 13 공포)로 반월동을 일동과 본오동으로, 수암동을 월피동과 와동으로, 선부동을 선부 1동과 선부 2동으로 행정동 분동(14동).
1993. 12. 01	• 시조례 제509호(1993. 11. 18 공포)로 본오동을 사동과 본오동으로, 선부 2동을 선부 2동과 선부 3동으로 행정동 분동(16동).
1994. 01. 01	• 시조례 제500호(1993. 9. 13 공포)로 군자동을 원곡본동으로 명칭 변경.
1994. 07. 15	• 시조례 제545호(1994. 7. 1 공포)로 본오동을 본오 1동과 본오 2동으로 행정동 분동(17동).
1994. 12. 26	• 대통령령 제14,434호(1994. 12. 22 공포) 및 시조례 제572호(1994. 12. 26 공포)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 1리, 건전리, 사사리 일원과 경기도 용진군 대부면 일원을 안산시 편입으로 대부출장소, 반월동, 대부동 신설(1출장소 19동).
1995. 03. 02	• 시조례 제605호(1995. 3. 2 공포)로 월피동을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행정동 분동(1출장소 20동).
1995. 04. 20	• 대통령령 제14,629호(1995. 4. 20 공포) 및 시조례 제618호(1995. 4. 20 공포)로 경기도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 및 화정동 일부를 안산시 편입으로 안산동 신설(1출장소 21동)
1996. 01. 22	• 시조례 제665호(1996. 1. 12 공포)로 사동을 사 1동과 사 2동으로, 본오 2동을 본오 2동과 본오 3동으로 행정동 분동(1출장소 2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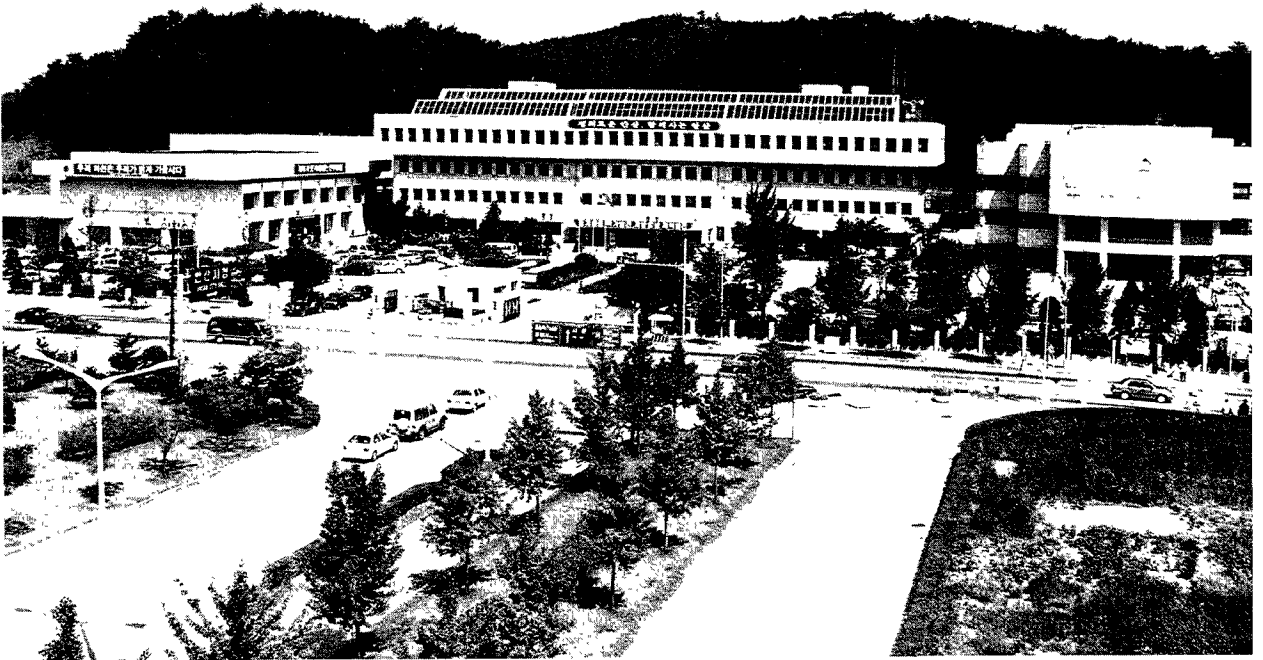


사진 4-4(상) 안산시청 전경. 고잔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안산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사진 4-5(하) 안산시의회. 1991년의 제1대 시의회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2.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안산시 조례 제91호]
1986. 1. 1

개정 1987. 06. 29 조례 제172호

개정 1988. 04. 30 조례 제197호

개정 1988. 09. 15 조례 제213호

개정 1991. 11. 13 조례 제416호

개정 1993. 09. 13 조례 제500호

개정 1993. 11. 18 조례 제509호

개정 1994. 07. 01 조례 제545호

개정 1994. 12. 26 조례 제572호

개정 1995. 03. 02 조례 제605호

개정 1995. 04. 20 조례 제618호

개정 1996. 01. 12 조례 제66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의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행정운영동에 두는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안산시 조례 제90호 □
1986. 1. 1

개정 1988. 04. 30 조례 제196호

개정 1994. 12. 26 조례 제571호

개정 1995. 04. 20 조례 제617호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구역) 안산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4. 20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연도별 행정구역 변화(1980년~1996년)

1980년도 행정구역

구분 지소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리	행정리	반	
계	70.35	18	41	224	
반월	18.01	5	13	56	
수암	20.46	6	14	60	
군자	31.88	7	14	108	

1981년도 행정구역

구분 지소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리	행정리	반	
계	70.35	18	41	224	
반월	18.01	5	13	56	
수암	20.46	6	14	60	
군자	31.88	7	17	108	

1982년도 행정구역

구분 지소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리	행정리	반	
계	72.55	18	44	263	
반월	21.43	5	13	56	
수암	22.01	6	13	60	
군자	29.11	7	18	147	

1983년도 행정구역

구분 지소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리	행정리	반	
계	72.56	18	54	340	
반월	21.43	5	14	63	
수암	22.01	6	15	61	
군자	29.12	7	25	216	

1984년도 행정구역

구분 지소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리	행정리	반	
계	72.87	18	65	481	
반월	21.35	5	16	86	
수암	21.97	6	16	99	
군자	29.55	7	33	296	

1985년도 행정구역

구분 지소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리	행정리	반	
계	73.21	18	65	481	
반월	21.34	5	16	86	
수암	21.97	6	16	99	
군자	29.90	7	33	296	

1986년도 행정구역

구분 동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73.92	18	154	785	
반월동	21.35	5	16	86	일동, 사동, 본오동, 이동, 팔곡 2동
수암동	13.73	4	8	32	와동, 월피동, 부곡동, 양상동
중앙동	8.49	2	32	203	고잔동, 성포동
군자동	10.58	2	34	135	원곡동 일부, 신길동
원곡동	1.51	1	25	139	원곡동 일부
원초동	13.42	3	22	109	원곡동 일부, 초지동, 원시동
선부동	5.82	1	17	81	선부동

1987년도 행정구역

구분 동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73.92	18	210	1,034	
반월동	21.35	5	18	89	
수암동	13.73	4	8	32	
중앙동	8.49	2	73	396	
군자동	10.58	2	35	148	
원곡동	0.53	1	31	158	
원초동	13.42	3	28	130	
선부동	5.82	1	17	81	

1988년도 행정구역

구분 동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74.26	18	227	1,126	
반월동	21.38	5	18	89	
수암동	13.73	4	8	32	
고잔 1동	4.78	1	9	62	
고잔 2동	1.78	1	39	206	
성포동	1.96	1	27	145	
군자동	7.89	2	34	141	
원곡 1동	0.95	1	30	141	
원곡 2동	0.56	1	14	86	
초지동	5.54	1	19	98	
공단동	9.99	3	5	22	
선부동	5.70	1	24	104	

- 안산시 조례 제213호(1988년 9월 15일)로 공포.
- 중앙동→고잔 1동, 고잔 2동, 성포동으로 분동.
 - 원곡동→원곡 1동, 원곡 2동으로 분동.
 - 원초동→초지동, 공단동으로 분동.

사진 4-6 안산시청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익에 기여한다.



1989년도 행정구역

구분 동별	면적(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74.26	18	272	1,311	
반월동	21.38	5	26	130	
수암동	13.73	4	10	39	
고잔 1동	4.78	1	15	95	
고잔 2동	1.78	1	41	219	
성포동	1.96	1	36	169	
군자동	7.89	2	41	161	
원곡 1동	0.95	1	32	150	
원곡 2동	0.56	1	14	86	
초지동	5.54	1	22	110	
공단동	9.99	3	6	24	
선부동	5.70	1	29	128	

1990년도 행정구역

구분 동별	면적(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74.79	18	406	1,902	
반월동	21.96	5	56	266	
수암동	14.56	4	33	169	
고잔 1동	3.92	1	41	217	
고잔 2동	1.78	1(1)	45	237	
성포동	1.83	1	47	229	
군자동	8.04	2(1)	48	180	
원곡 1동	0.95	1	35	156	
원곡 2동	0.56	1(1)	14	86	
초지동	6.27	1	25	117	
공단동	9.96	3	6	24	
선부동	4.96	1	56	221	

1991년도 행정구역

구분 등별	면적(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74.88	18	496	2,282	
일동	5.41	2	23	106	
본오동	16.60	3	59	267	
월피동	11.42	3	41	173	
와동	3.14	1	27	95	
고잔 1동	3.96	1	45	249	
고잔 2동	1.78	1	48	247	
성포동	1.83	1	50	239	
군자동	8.04	2	51	188	
원곡 1동	0.95	1	36	158	
원곡 2동	0.56	1	14	86	
초지동	6.27	1	25	117	
공단동	9.96	3	6	24	
선부 1동	0.79	1	26	109	
선부 2동	4.17	1	45	224	

안산시 조례 제416호(1991년 11월 18일 공포)에 의거

반월동→일동과 본오동으로 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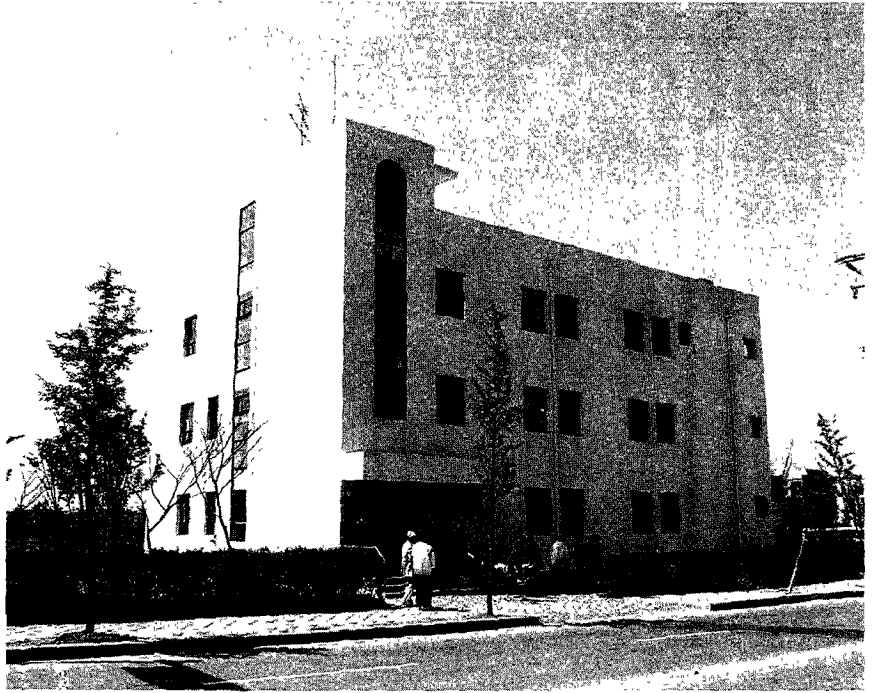
수암동→월피동과 와동으로 분동.

선부동→선부 1동과 선부 2동으로 분동.

1992년도 행정구역

구분 등별	면적(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74.88	18	539	2,494	
일동	5.41	2	23	106	
본오동	16.60	3	59	267	
월피동	11.42	3	41	173	
와동	3.14	1	27	95	
고잔 1동	3.96	1	45	249	
고잔 2동	1.78	1	48	247	
성포동	1.83	1	50	239	
군자동	8.04	2	51	188	
원곡 1동	0.95	1	36	158	
원곡 2동	0.56	1	14	86	
초지동	6.27	1	25	117	
공단동	9.96	3	6	24	
선부 1동	0.79	1	41	195	
선부 2동	4.17	1	73	350	

사진 4-7 성포동 노인회관. 실버
세대의 안락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각 동마다 노인회관을 건립하였다.



1993년도 행정구역

구분 동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77.45	18	615	2,817	
일동	5.38	2	29	125	
사동	8.65	1	19	89	
본오동	7.95	2	81	315	
월파동	11.43	3	49	212	
외동	3.87	1	28	106	
고잔 1동	3.83	1	48	273	
고잔 2동	1.78	1	48	247	
성포동	1.96	1	50	241	
원곡본동	7.70	2	52	190	
원곡 1동	0.95	1	36	158	
원곡 2동	0.56	1	14	86	
초지동	6.12	1	26	124	
공단동	12.48	3	8	32	
선부 1동	0.79	1	41	195	
선부 2동	2.81	1	38	191	
선부 3동	1.19	1	48	227	

안산시 조례 제509호(1993년 12월 6일 공포)로

본오동→사동과 본오동으로 분동.

선부 2동→선부 2동과 선부 3동으로 분동.

1994년도 행정구역

구분 등별	면적(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128.92	26	753	3,413	
일동	5.43	2	38	157	
사동	8.42	1	55	281	
본오 1동	6.44	2	16	74	
본오 2동	1.48	1	65	241	
월피동	11.33	3	63	284	
와동	3.90	1	41	165	
고잔 1동	3.80	1	48	281	
고잔 2동	1.84	1	48	247	
성포동	1.94	1	55	265	
원곡본동	7.72	2	52	190	
원곡 1동	0.95	1	39	170	
원곡 2동	0.56	1	14	86	
초지동	6.27	1	26	124	
공단동	9.96	3	8	32	
선부 1동	0.79	1	41	197	
선부 2동	2.81	1	52	235	
선부 3동	1.19	1	54	252	
반월동	13.21	3	18	77	
대부동	40.88	5	20	55	

안산시 조례 제545호(1994월 7월 1일 공포)로

본오동→본오 1동과 본오 2동으로 분동.

안산시 조례 제572호(1994년 12월 26일 공포)로

화성군 반월면 일부가 반월동으로, 용진군 대부면 전역이 대부동으로 편입.



사진 4-8 공원의 꿈나무들.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도심의 공
원에는 늘 시민들로 붐빈다.

사진 4-9 안산은 나의 고향.
유입 인구가 많은 신도시 안산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애향심이다.



1995년도 행정구역

구분 동별	면적 (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144.72	30	771	3,464	
일동	5.43	2	38	157	
사동	8.42	1	55	281	
본오 1동	6.44	2	16	74	
본오 2동	1.48	1	65	241	
월피동	5.57	2	41	194	
부곡동	5.90	1	22	90	
와동	3.90	1	41	165	
고잔 1동	3.80	1	48	281	
고잔 2동	1.84	1	48	247	
성포동	1.94	1	55	265	
원곡본동	7.72	2	52	190	
원곡 1동	0.95	1	39	170	
원곡 2동	0.56	1	14	86	
초지동	6.27	1	26	124	
공단동	9.96	3	8	32	
선부 1동	0.79	1	41	197	
선부 2동	2.81	1	52	235	
선부 3동	1.19	1	56	256	
반월동	13.21	3	18	77	
대부동	40.88	5	20	55	
안산동	8.35	3	16	46	

안산시 조례 제605호(1995년 3월 2일 공포)로

월피동→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

안산시 조례 제615호(1995년 4월 20일 공포)로

시흥시 안산동이 안산시로 편입.

1996년도 행정구역

구분 동별	면적(km ²)	행정조직			비고
		법정동	통	반	
계	144.77	30	901	3,927	
일동	5.14	2	48	165	
사 1동	4.68	1	20	92	
사 2동	3.87	1	48	225	
본오 1동	6.52	2	44	189	
본오 2동	0.81	1	37	149	
본오 3동	1.06	1	44	142	
월피동	5.90	2	51	232	
부곡동	5.89	1	22	90	
와동	3.23	1	55	230	
고잔 1동	3.90	1	56	311	
고잔 2동	1.85	1	48	250	
성포동	1.71	1	64	305	
원곡본동	8.05	1	52	190	
원곡 1동	0.95	1	40	178	
원곡 2동	0.56	1	14	86	
초지동	6.13	1	26	124	
공단동	13.37	3	8	32	
선부 1동	0.86	1	41	197	
선부 2동	2.10	1	52	235	
선부 3동	5.78	1	70	307	
반월동	13.13	3	24	91	
대부동	40.93	5	20	55	
안산동	8.35	3	17	52	

안산시 조례 제665호(1996년 1월 12일 공포)로

사동→사 1동과 사 2동으로 분동.

본오동 2동→본오 2동과 본오 3동으로 분동.

심장보(편찬위원)

제5장 행정시책

제1절 행정 개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 일생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누군가와 같이 살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즉 부모형제를 비롯해 이웃들과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모여 씨족을 이루며, 씨족이 모여 부족국가를 이룸으로써 사회가 형성된다. 또한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정착해 살아감으로써 영토가 생겨나고, 그 영토 위에서 함께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 나갈 때 국가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같이 형성된 국가의 국민들은 각기 삶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여 일정한 규약·규제가 생겨났으며,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는 행정제도라는 것을 앞세워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우리 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제1차산업인 농·어업의 원시적 산업사회에서 제2차·제3차 산업사회로 발전하였으며, 온 국민이 합심해 ‘앞서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행정행위란 여러 분야에 걸쳐 국민과 국가, 국민과 지방단체 간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 등을 어떤 규제 방법(법·조례·명령·규정·규칙·규약 등)을 동원하여 일정한 활동 방법, 생활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나 지방단체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행정의 효력이 발생되고, 사망과 동시에 사망신고란 행정행위가 발생되어 그 사람의 존재는 소멸된다. 즉 태어나는 일, 교육을 받는 일, 군 입대와 제대, 사회·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세금 납부 등 모두가 행정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움직이게 되고, 국가와 지방단체가 인정하는 각종 증명서라든가 개인생활 침해에 대한 보호

와 제재, 각종 범죄행위·재난행위에 대한 보호와 제재, 국민의 생활안정 보장 문제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생활의 불안과 고통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행정으로 보호하여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고 안정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고장 안산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므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란, 일정한 지역의 국민들이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기관의 일정한 감독하에서 그 지역 내에서의 공공문제를 해결키 위해 구성된 각자가 일정한 비율로 인적·물적 부담을 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키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자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과의 관계이다. 이 같은 분류는 자치권을 중심으로 한 분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시할 때 이를 단체자치라고 하고, 주민의 자치운영 참여에 중점을 둔 행정을 국민자치라고 정의한다.

1. 시의 변천 과정

(1) 행정구역의 개념

무릇 행정이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적 기준 안에서 수행되는데, 행정구역이란 보다 합리적·능률적으로 국가 목표를 추구하고 기능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행정의 지역적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정구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지방행정구역과 일반행정구역이 그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 구별 없이 혼재하여 움직이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격과 개념이 각기 다르다.

먼저 지방자치구역은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주민·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일반행정구역은 정통성이나 공동체의식과는 큰 관계 없이 행정을 합리적·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내부에 설정된

지역적 단위이다. 이른바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행정단위가 그것으로, 그 개념과 내용이 비교적 넓고 다양하다. 읍(邑)·면(面)·동(洞)과 같이 모든 행정의 포괄적 단위로서의 일반행정구역이 있는가 하면, 조세행정을 위한 각급 세무소의 관할구역, 체신행정을 위한 지방체신청의 행정관할구역, 지방경찰청 및 기타 각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정해 놓은 행정구역과 같이 전문행정기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 일반행정구역 간에는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독립하여 존립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은 서로 구별이 가능하고, 외국의 경우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일제 시대 이래로 거의 일치되어 내려오고 있다. 즉 일제의 국가행정구역은 도(道)·부(府)·구(區)·군(郡)·읍(邑)·면(面) 등의 구역이 이루어져 시행되었는데, 우리 나라도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시행해 왔다. 즉 오늘날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은 특별시(特別市)·광역시(廣域市)·도·시·군·구·읍·면·동·이(里)·통(統)·반(班)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교통·통신 등의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산맥·하천·호소(湖泊)·해안선 같은 지리적 조건들이 경계 설정을 위한 중요 기준이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지역마다 그 나름대로 오랜 전통과 공통된 가치관, 그리고 지역의 동일성이나 두터운 향토의식 속에서 하나의 공동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구역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었음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행정 여건과 주민생활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변동에 직면하게 되었고 행정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공업화 내지 산업화에 따라 주민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공간적 거리 대신에 시간적 거리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대단위의 국토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하여 종래의 자연적·지리적 환경이 적잖이 변형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행정 수요는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심화를 요구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 중점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었다면, 오늘의 행정은 개발과 복지를 지향해 나가는 적극적 행정이다.

이렇듯 과거 개념에 따른 행정구역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기능 면에서 이미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기능의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지방행정구역을 빈번히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의 하나인 종래의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전통성이나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것이 오늘의 행정구역 책정 문제의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행정구역의 변천(안산시의 연혁)

1) 삼국 시대

안산 지역은 처음에는 백제의 땅이었다가 고구려 장수왕 63년(A.D. 475년)에 고구려 영토가 되면서 장항구현(獐項口縣)이라 칭하였다.

2) 통일신라 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진흥왕 14년(553년)에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신라의 영토가 된 후景德왕(景德王) 16년(757년)에 장구군(獐口郡)으로 개칭하였다.

3) 고려 시대

태조 23년(940년) : 안산현으로 개칭.

성종 14년(995년) : 10도제(道制)의 실시에 따라 기내도(畿內道)에 속함.

현종조(1009~1031년) : 5도양계제(五道兩界制) 실시에 따라 양광도(楊廣道)에 속함.

현종 9년(1018년) : 수주(水州; 수원)에 속하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설치함.

문종 23년(1069년) : 경기(京畿)에 속함.

충렬왕 34년(1308년) : 덕종·정종·문종이 탄생한 고을이라 하여 안산군(安山郡)으로 승격.

공양왕 2년(1390년) : 경기의 좌·우 분정에 따라 경기좌도(京畿左道)에 속함.

4) 조선 시대

태종 2년(1402년) : 경기좌우도(京畿右左道)에 속함.

태종 13년(1413년) 8도제(道制)의 실시에 따라 경기도(京畿道)에 속하였고, 군수(郡守; 종4품)가 다스림.

세조 13년(1467년) : 안산의 별호를 '연성(連城)'으로 함.

성종 17년(1486년) : 남양부(南陽府)에 속했던 소홀도(召忽島)가 편입됨.

중종 14년(1519년) : 소홀도가 남양부에 환속됨.

효종 7년(1656년) : 초지진(草芝鎭)을 강화도에 이속시킴.

정조 17년(1793년) : 수원부에 임시 이속되었다가 곧 파함.

고종 32년(1895년) 05. 26 : 칙령 제98호에 따라 인천부에 속함.

고종 33년(1896년) 08. 04 : 칙령 제36호에 따라 경기도 4등군이 됨.

광무 10년(1906년) 09. 24 : 칙령 제40호에 따라 광주군의 성곶(聲串) · 북방(北方) · 월곡(月谷)의 3개 면이 편입됨.

5) 일제 강점기

1914. 03. 01 : 부령 제111호에 따라 안산군 · 시흥군 · 과천군이 흡수 · 통합되면서 안산군의 관할구역 중 성곶 · 북방 · 월곡의 3개 면은 반월면(半月面)이라 칭하면서 수원군에 이속되었고, 초산(草山) · 인화(仁化; 또는 잉화<仍火>) · 군내(郡內)의 3개 면은 수암면(秀岩面)이라 칭하였으며, 대월(大月) · 마유(馬遊) · 와리(瓦里)의 3개 면은 군자면(君子面)이라 칭함.

6) 현대(8 · 15광복 이후)

1949. 08. 15 : 대통령령 제161호에 따라 수원군 반월면이 화성군 반월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

1976. 07. 21 :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부 장관에게 신공업도시 후보지를 선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08. 18 : 박정희 대통령이 반월 신공업도시 계획안을 재가함.

10. 02 :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계획안을 공개함.

12. 31 : 반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조례가 공포됨.

1977. 01. 11 : 군자면 거모리에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됨.

03. 03 :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 기공식이 거행됨.

04. 22 : 반월 지역을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 · 고시함.

06. 18 : 반월 특수지역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됨.

1978. 10. : 반월 신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개설됨.

1979. 08. 10 : 경기도 조례 제969호에 따라 반월지구출장소가 설치됨과 동시에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 부곡리 · 와리 · 월곡리 · 양상리 · 성포리와 시흥군 군자면의 원곡리 · 선부리 · 원시리 · 신길리 · 성곡리 · 목내리 · 초지리 및 반월면의 일리 · 이리 · 사리 · 본오리 · 팔곡 2리가 반월



사진 5-1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 현판식. 1977년 1월 11일 군자면 거모리 현장에서 거행되었다.



사진 5-2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청사 준공식. 1981년 11월 11일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현장 모습이다.

지구출장소에 편입됨.

1986. 01. 01 : 법률 제3798(1985. 12. 28 공포)에 따라 안산시로 승격됨.

01. 01 : 안산시 조례 제90호에 따라 수암지소·군자지소·반월지소가 반월동·수암동·중앙동·군자동·원곡동·원초동·선부동으로 승격됨.

1988. 10. 01 : 안산시 조례 제213호(1988. 09. 15 공포)에 따라 중앙동이 고잔 1동·고잔 2동·성포동으로, 원곡동이 원곡 1동·원곡 2동으로, 원초동이 초지동·공단동으로 각각 분동됨.

1991. 11. 18 : 반월동이 일동·본오동으로, 수암동이 월피동·외동으로, 선부동이 선부 1동·선부 2동으로 각각 분동됨(안산시 조례 제416호).

1993. 12. 06 : 본오동이 사동·본오동으로, 선부 2동이 선부 2동·선부 3동으로 분동됨(안산시 조례 제509호).

1994. 07. 01 : 본오동이 본오 1동과 본오 2동으로 분동됨(안산시 조례 제545호).

1994. 12. 26 :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용진군 대부분 전체가 안산시로 편입됨(안산시 조례 제572호).

1995. 03. 02 : 월피동이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됨(안산시 조례 제605호).

1995. 04. 22 : 시흥시 화정동 일부와 장상동·장하동·수암동이 안산시로 편입됨(안산시 조례 제618호).

(3) 토지 공간의 이용과 변천

토지 지목별 현황은 표 5-1과 같은데, 여기에서 1994년과 1995년의 토지 공간이 증가한 요인은 웅진군(甕津郡) 대부분 전체와 화성군(華城郡) 반월면 일부, 그리고 시흥시(始興市)의 일부(수암동, 화정동 일부, 장상동, 장하동)가 편입된 결과이다.

표 5-1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km²)

구 분	1979년	1982년	1985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계	70,350	72,556	73,213	74,789	74,877	74,880	77,454	131,924	144,729
전	7,390	8,687	8,146	4,249	4,006	3,703	3,276	8,930	10,627
답	15,210	19,370	20,267	12,401	11,963	11,458	10,705	19,888	21,564
과수원		23	37	39	39	39	39	64	91
목장용지			62	62	62	62	64	208	261
기 타	17,750								
임 야	30,000	27,772	26,331	20,981	20,696	20,424	19,576	50,069	59,055
염 전		328	329	329	329	224	224	3,046	3,021
대 지		2,626	3,638	9,120	9,439	9,632	10,552	11,724	12,722
공장용지		2,904	4,373	8,129	8,129	8,221	10,214	10,560	10,581
학교용지		74	203	1,839	1,838	1,838	1,907	2,019	2,047
도 로		2,367	3,193	7,427	7,637	7,998	8,745	10,334	10,358
철도용지		174	168	217	217	287	520	795	742
하 천		475	470	474	500	485	709	1,012	1,030
재 방		233	241	191	191	181	176	404	404
주 거 지		937	981	956	914	891	867	1,601	1,713
유 원 지		1,850	1,838	1,452	1,121	1,030	1,008	1,761	1,825
수도용지		76	76	138	142	142	271	314	324
공 원		68	153	909	978	1,624	1,704	1,832	1,826
체육공원		32	79	538	556	1,605	1,631	1,631	1,631
유 원 지				1,039	1,672	633	633	633	633
종교용지		8	13	23	23	23	23	31	34
묘 지		340	468	451	450	433	433	584	657
잡 종 지		4,209	2,154	3,845	3,975	3,966	4,132	4,483	3,576

자료 : 「안산시통계연보(1990년~96년)」

참고 :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안산시의 총면적은 1995년 12월 3일 현재 144,729km²인데, 그 중 임야가 40.8%인 59,055km²를 차지하고 있고 논이 14.9%인 21,564km²이며 밭이 7.3%인 10,627km²이다. 나머지 37.0%인 53,483km²는 기타 지역이다.

대지·공장용지·도로·수도용지·공원용지·학교용지의 증대는 도시형 안산시의 모습을 갖추고자 함에서 기인된 것이다.

앞으로의 안산시 토지 공간 활용에 있어는 유원지 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대부 지역의 개발과 새로 편입된 수암·반월 지역의 도로망 구축 및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고잔 뜰 개발이 목전에 놓여 있으므로 안산시 토지 공간 이용의 변모는 날로 달라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군자·수암·반월 지역 등의 개발제한 구역(green belt)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행정적 완화책(법률적 제한 완화)이 관건일 것이다.

(4) 인구의 변화

표 5-2의 안산시의 인구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인구의 증가 폭은 컸으며, 1995년에는 507,952명의 인구가 형성되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안산시가 당초 세계 제일의 인공 공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지가 강력하였으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1000여 개의 공장 시설이 갖춰지면서 자연적 인구의 증가보다 외부로부터의 유입 인구의 증가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앞으로 인구의 증가는 더욱 심화되어 2000년 내에 100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면적 144.73km² 중 507,952명이 거주함에 따라 1km²당 3,510명이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1세대당 2.92명(약 3명)이 살고 있는 실정이다.

표 5-2 안산시의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세대	인구			인구밀도		세대당인구	비고
		계	남	여	밀도	면적		
1979년	4,354	21,162	10,765	10,406			4.86	
1980년	7,073	31,551	16,596	14,955			4.46	
1985년	23,059	96,487	50,533	45,754			4.08	
1990년	69,827	252,157	130,764	121,393	3,372	74.79	3.61	
1991년	104,778	309,921	160,084	149,837	4,155	74.88	2.96	
1992년	121,548	354,762	184,331	170,431	4,734	74.88	2.92	
1993년	137,554	401,100	208,511	192,589	5,357	77.45	2.92	
1994년	157,290	460,380	239,030	221,350	3,490	131.92	2.93	
1995년	174,139	507,952	263,762	244,190	3,510	144.73	2.92	

자료: 「안산시통계연보」, 1990~1996.

1) 안산시 각 동별 세대수 및 인구

표 5-3에서 동별 인구 추이를 살펴 볼 때 21개 동 중 가장 인구분포가 큰 동은 선부 3동으로 13,139세대에 40,086명(남 20,592/여 19,494)이며, 가장 적은 동은 공단동으로 3130세대에 3382명으로 평균 1세대당 1.1인이 살고 있다. 공단동은 단독·독신들의 거주가 많고 공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또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3337명(남 2,474/여 863)에 3207세대인데, 그 중 공단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무려 2058세대에 2058명이나 된다. 또한 초지동에도 539세대에 56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장지대와 가까운 인근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한 마디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근처 공장의 취업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3 안산시 각 동의 인구분포

(단위 : 명, km², 1995년 12월 31일 현재)

동 별	세 대	인 구			세 대	한국인			세 대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74,139	507,952	263,762	244,190	170,932	504,615	261,288	243,327	3,207	3,337	2,474	863
일 동	12,083	34,361	17,882	16,479	12,058	34,329	17,857	16,472	25	32	25	7
사 동	13,603	42,437	21,782	20,655	13,588	42,416	21,769	20,647	15	21	13	8
본오 1동	8,999	26,098	13,365	12,733	8,922	26,016	13,295	12,721	77	82	70	12
본오 2동	13,408	41,366	20,767	20,599	13,372	41,324	20,749	20,575	36	42	18	24
부 곡 동	6,139	17,819	9,285	8,534	6,103	17,773	9,263	8,510	36	46	22	24
월 피 동	10,882	33,788	17,198	16,590	10,840	33,738	17,168	16,570	42	50	30	20
와 동	12,304	35,038	18,253	16,785	12,293	35,023	18,246	16,777	12	15	7	8
고잔 1동	10,213	31,654	16,245	16,409	10,187	31,616	16,227	15,389	26	38	18	20
고잔 2동	8,973	27,677	14,029	13,648	8,928	27,620	13,984	13,636	45	57	45	12
성 포 동	10,466	34,009	17,041	16,968	10,418	33,951	17,009	16,942	48	58	32	26
원곡본동	8,935	19,844	11,311	8,533	8,809	19,704	11,271	8,433	126	140	40	100
원곡 1동	8,202	17,160	9,305	7,855	6,196	17,154	9,299	7,855	6	6	6	0
원곡 2동	3,825	10,070	5,320	4,750	3,817	10,061	5,315	4,746	8	9	5	4
초 지 동	5,045	13,792	7,417	6,375	4,506	13,229	7,003	6,226	539	563	414	149
공 단 동	3,130	3,382	2,684	698	1,072	1,324	1,037	287	2,058	2,058	1,647	411
선부 1동	8,300	26,182	13,418	12,764	8,268	26,144	13,385	12,759	32	38	33	5
선부 2동	10,359	27,519	14,877	12,642	10,340	27,490	14,867	12,632	19	20	10	10
선부 3동	13,139	40,086	20,592	19,494	13,125	40,069	20,583	19,486	14	17	9	8
반 월 동	3,949	12,758	6,476	6,282	3,916	12,724	6,456	6,268	33	34	20	14
대 부 동	1,958	5,786	2,907	2,879	1,956	5,784	2,905	2,879	2	2	2	0
안 산 동	2,227	7,126	3,608	3,518	2,219	7,117	3,600	3,517	8	9	8	1

자료 : 기획담당관실, 1995. 12. 31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결과임.

표 5-4 연도별 가구당 인구 수와 증가 추이

(단위 : 명)

연 도	인구수(명)	가구당 인구수(명)	증가분(명)	증가율(%)	비 고
1979	21,162	4.90			
1980	31,551	4.50	10,389	49.00	
1981	41,664	4.40	10,113	32.00	
1982	51,853	4.60	10,189	24.40	
1983	61,442	4.40	9,589	18.40	
1984	80,595	4.60	19,153	4.63	
1985	96,487	4.20	15,892	4.18	
1986	127,231	4.10	30,744	4.08	
1987	162,569	4.00	35,338	4.03	
1988	171,420	3.80	8,851	5.40	
1989	222,051	3.70	30,631	17.90	
1990	262,157	3.61	60,106	29.70	
1991	309,921	2.96	47,764	18.20	
1992	354,762	2.92	44,841	14.50	
1993	401,100	2.92	46,338	13.00	
1994	460,380	2.93	59,280	14.80	
1995	507,952	2.92	47,572	10.30	

2) 연도별 인구 추이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시 인구 변동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1979년까지는 자연 증가에 그친 실정이었으나, 1980년에 접어들면서 10%~49%까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자연 증가보다는 사회적 증가, 즉 외부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990년에는 무려 60,106명이 증가하여 안산시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의 안산시 전망도 고잔 뜰 개발이 완성되고 용진군 개발과 시흥시로 부터 편입된 안산동의 개발, 그리고 화성군에서 편입된 반월동 지역의 개발이 성황을 이루면 안산시 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 2000년대에는 약 100만의 인구가 형성되리라 생각된다.

(5) 안산시의 특수성

1) 위치

- 동쪽 안산시 사사동 북위 37° - 17 - 33.6 동서간
동경 126° - 56 - 29.1
- 서쪽 안산시 북동 변도 북위 37° - 17 - 30.6
동경 126° - 31 - 45.2
- 남쪽 안산시 풍도동 내육도 북위 37° - 04 - 39.8 남북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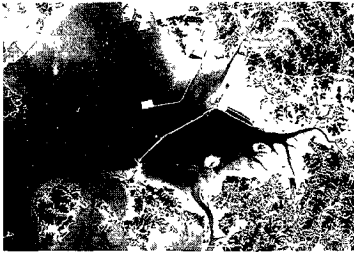


사진 5-3 안산시 위성 사진. 안산은 서해를 끼고 있는 계획된 전원공업 도시로서,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동경 126° - 28 - 01.3

• 북쪽 안산시 수암동

북위 37° - 22 - 25.9

동경 126° - 53 - 02.4

- ① 안산시는 경기도 남서부에 위치해 주위는 낮은 구릉지대에 둘러싸여 있으며, 서해임해공단을 형성하는 계획된 전원공업도시이다. 또한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대부동이 중심이다.
- ② 동단과 남단은 수원시와 충남 당진군 및 경기도 화성군과 인접해 있고, 서단과 북단은 각각 인천시·시흥시와 인접해 있다.
- ③ 시청은 고잔동 515번지에 있으며, 서울·인천·수원·안양 등과 불과 20~30km 거리이다.

2) 역사·문화

안산시는 찬란한 향토문화와 많은 유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충(忠)·의(義)·효(孝)의 정신 속에 학문과 예술을 함께 꽃피운 곳으로, 중요한 향토문화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익(성호) 선생의 묘 — 경기 기념물 제40호 (조선 중기)
- 별망성지 — 경기 기념물 제73호 (고려 시대)
- 사세충렬문 — 경기 기념물 제8호 (조선 중기)
- 안탄대묘 — 경기 기념물 제83호 (조선 중기)
- 팔곡향나무 — 경기 기념물 제31호 (고려 말기)
- 오정각 — 경기 문화재 제 7호 (조선 후기)
- 고송정지 — 경기 기념물 제101호(조선 중기)
- 안산읍성 및 관아지 — 경기 기념물 제127호(조선 시대)
- 한응인 묘역 — 경기 기념물 제157호(조선 중기)
- 한응인 영전 — 경기 기념물 제153호(조선 중기)

이상과 같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며,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가 있다.

3) 도시와 농촌의 병합 지역

안산시는 본래 농촌지역이었으나 이를 인공적으로 계획하여 만든 도시이다. 대부동·안산동·반월동·신길동·팔곡동 지역은 아직도 농촌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기타 특수성

안산시는 도농(都農)의 특수 여건으로 쌀 생산량이 1447ha에서 6307m/t으로 안산시민이 자급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타 잡곡류(두류·서류, 기타)도 고루 생산되고 있다. 특히 채소작물(과채류 134ha에서 2799m/t 생산, 엽채류 192ha에서 2799m/t 생산, 근채류 159ha에서 5354m/t 생산)의 생산은 안산 인근 대도시인 서울·인천·수원을 비롯하여 인접한 안양·부천·군포·의왕·시흥시 등의 소비자와 중간 마진 없이 직접 연결이 쉬워 재배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과수 재배 중 포도 재배는 대부분이 주요 생산단지인데, 당도가 높아서 먹거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 또한 바닷가와 접해 있는 사동(사리포구)의 횃집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근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성황을 이룬다.

한편 안산시의 도로망은 계획된 인공도시이므로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격화되어 있다. 구획정리도 공장·상업 지역, 고밀도·저밀도 지역, 위락·문화·종교·금융·교육 지역 등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민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전기·수도·가스·전화 시설 등이 완비된 상태이며, 교통도 안산-당고개 간 4호선전철이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또한 안산-안양·서울·인천·광명·시흥 간의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경·수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신갈 고속도로 등 위성도시로서의 교통망이 잘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산은 공업도시로서 1000여 개의 공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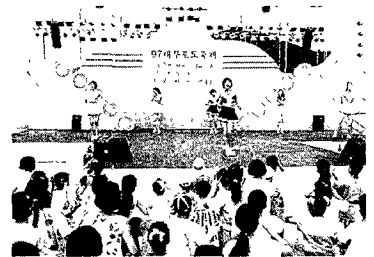


사진 5-4 대부도 포도축제. 특산물인 포도를 내외에 알리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이다.

2. 역대 기관장의 시정지표 및 시정방침

안산시는 1979년 8월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에서 개청한 후 18년 동안 4명의 출장소장과 8명의 시장, 도합 12명의 기관장이 거쳐 갔다. 1979년 8월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6년 4개월 간 출장소였던 안산은, 1986년 1월 1일 시(市)로 승격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정(市行政)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 1일 현재에 이르러 지방자치제도의 출범으로 명실공히 민주적 지자체 시대를 맞고 있다.

다음의 표 5-5와 표 5-6을 통해 역대 안산시 출장소장과 시장의 연혁 및 시정지표·시정방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5 역대 반월지구출장소장 시정지표 및 시정방침

역대	성명	생년월일	본적	재직기간	시정지표 및 방침
1	홍영기 (洪英基)	34.08.18	서울	79.08.23~80.11.29 (1년 3개월)	-이상적인 새 도시 건설 1. 화합안정 2. 신뢰행정 3. 개발촉진
2	지헌정 (池憲鼎)	34.08.20	충북 청원	80.11.30~82.07.09 (1년 7개월)	-활기찬 새 도시 건설 1. 화합정착 2. 책임봉사 3. 약진개발
3	김창진 (金昌辰)	34.12.01	제주	82.07.10~85.04.28 (2년 9개월)	-밝고 활기찬 새 반월 건설 1. 주민화합의 구현 2. 도시개발의 촉진 3. 질서생활의 확립 4. 신뢰행정의 정착
4	전창선 (全昌善)	33.12.19	인천	85.04.29~85.12.31 (8개월)	-활기찬 도시 새 안산 건설 1. 책임성실로 위민봉사 2. 애향인보로 화합안정 3. 창의개발로 복지증진

표 5-6 역대 시장 시정지표 및 시정방침

역대	성명	생년월일	본적	재직기간	시정지표 및 방침
1	전창선 (全昌善)	33.12.19	인천	86.01.01~88.02.10 (2년 1개월)	-활기찬 도시 새 안산 건설 1. 책임성실로 위민봉사 2. 애향인보로 화합안정 3. 창의개발로 복지증진
2	장의진 (張義鎭)	35.02.19	충북 영동	88.02.11~88.06.04 (4개월)	-살기 좋은 새 안산 건설 1. 시민본위의 행정 2. 애향화합과 안정 3. 도시개발의 촉진 4. 주민복지의 증진
3	이상룡 (李相龍)	37.08.18	경기 시흥	88.06.05~89.12.26 (1년 7개월)	-한뜻 모아 선진 안산 건설 1. 인화단결로 지역안정 2. 이상적 선진도시 건설 3. 건취적 문화시민상 창조 4. 성실과 봉사로 복지증진
4	이수영 (李秀永)	45.04.02	서울	89.12.27~92.01.02 (2년)	-희망의 도시 새 안산 건설 1. 화합행정 구현 2. 지역안정 확립 3. 자치역량 제고 4. 선진도시 건설
5	조건호 (趙健鎬)	35.12.11	경기 웅진	92.01.03~93.01.10 (1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안산 건설
6	김태수 (金汰洙)	35.05.05	충남 논산	93.01.11~94.09.30 (1년 9개월)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 1. 공정행정 2. 책임행정 3. 능률행정 4. 화합행정
7	최순식 (崔順植)	50.12.19	경기 화성	94.10.06~95.06.30 (9개월)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도시 안산 1. 수준높은 문화도시 2. 번영하는 경제도시 3. 아름다운 환경도시 4. 함께하는 화합도시
8	송진섭 (宋振燮)	49.08.13	서울	95.07.01~현재	-정의로운 안산, 함께사는 안산 1.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2.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 3. 문화가 숨쉬는 도시 4. 질서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

3. 행정기구의 변천

안산시 행정기구의 변천 과정은 행정구역 변천 과정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설립 이전에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의 5개 리(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 2리)와 시흥군 수암면의 6개 리(양상리·부곡리·월파리·고잔리·성포리·와리), 시흥군 군자면의 7개 리(신길리·목내리·성곡리·초지리·원시리·원곡리·선부리)를 관할구역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다가, 시의 팽창이 계속됨으로써 오늘의 행정기구에 이르게 되었다(표 5-7).

표 5-7 행정기구의 변천 상황

연도	실·국	과·사업소·동	변경 사항	비 고
1980		•본청 : 담당관 1, 실·과 8, 계 22 •보건지소 : 1 •지소 : 3	•보건지소·신설 1	•보건지소
1981		•본청 : 담당관 1, 과 9, 계 24 •보건지소 : 1 •지소 : 3	•본청 : 폐지-1실, 3과(6계)/신설-4과, 8계	•기획실, 재무과, 관리과, 건축과(홍보, 보상, 용지, 이주대책, 건설, 건축)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주택과(병무, 민원, 개발, 평가, 용도, 부녀아동, 양정, 관리)
1982		•본청 : 담당관 1, 과 9, 계 28 •보건지소 : 1 •지소 : 3	•본청 : 폐지-1과 2계/신설-2과, 6계	•주택과(수도, 주택) •건설과, 수도과(토목, 하수, 건축, 업무, 공무, 급수)
1983		•본청 : 담당관 1, 과 9, 계 30 •보건지소 : 1 •지소 : 3	•본청 : 신설-2계	•(공해방지, 공업)
1984		•본청 : 담당관 1, 과 10, 계 32 •보건지소 : 1 •지소 : 3	•본청 : 신설-1과, 2계	•민방위과(국토미화, 교육훈련)
1985		•본청 : 담당관 1, 과 10, 계 32 •보건지소 : 1 •지소 : 3		
1986		•본청 : 담당관 1, 실·과 15, 계 44 •보건소 : 1(2계) •사업소 : 2(4계) •동사무소 : 7	•본청 : 폐지-4계/신설-2실, 3과, 16계 •보건소 : 폐지-지소/신설-1(2계) •사업소 : 신설-2(4계) •동 : 폐지-지소 3/	•(행정, 세정, 평가, 농정)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과, 상공과, 주택과(공보, 문화, 감사, 서무, 시정, 통계, 세무1, 세무2, 세무조사, 관재, 호적, 농정, 축정, 하수행정, 보상, 주택) •보건지소 •(보건행정, 방역) •근로청소년회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서

표 5-7 행정기구의 변천 상황(계속)

연도	실·국	과·사업소·동	변경 사항	비 고
1986			신설-동 7	무, 교육, 관리, 기술) ·반월, 수암, 군자 ·반월, 수암, 중앙, 군자, 원곡, 원초, 선부
1987		·본청 : 담당관 1, 실·과 16, 계 48 ·보건소 : 1(2계) ·사업소 : 2(4계) ·동사무소 : 7	·본청 : 폐지-2계/신설-1과, 6계	·(부녀청소년, 공해방지) ·환경관리과(노정, 부녀아동,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 주택공동관리)
1988	1실3국	·본청 : 담당관 3, 과 18, 계 64 ·직속기관 : 1(3계), (보건소) ·사업소 : 3(6계) ·동사무소 : 11	·본청 : 폐지-1담당관, 2실, 1과, 8계/신설-1실, 3국, 3담당관, 5과, 24계 ·직속기관 : 폐지-1계(보건소)/신설-2계 ·사업소 : 신설-1(2계) ·동사무소 : 폐지-3/신설-7	·개발담당관, 문화공보실, 감사실, 상공과(기획예산, 국토미화, 위생, 부녀아동, 상장, 도시, 주택, 주택공동관리)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도시국,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 공업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녹지과(기획, 예산, 지도, 건전생활, 평가, 재산세, 세외수입, 의료보장, 식품위생, 환경위생, 가정복지, 부녀복지, 공업진흥, 지역경제, 연료, 교통행정, 도시계획, 도시정비,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택정비, 건축지도, 산림, 수납) ·(방역) ·(가족보건, 예방의약) ·상수도관리사업소(관리, 시설) ·중앙, 원곡, 원초 ·고잔 1, 고잔 2, 성포, 원곡 1, 원곡 2, 초지, 공단
1989	1실3국	·본청 : 담당관 3, 과 18, 계 64 ·직속기관 : 1(3계) (보건소) ·사업소 : 3(6계) ·동사무소 : 11		
1990	1실3국	·본청 : 담당관 3, 과 20, 계 67 ·직속기관 : 1(4계) (보건소) ·사업소 : 4(9계) ·동사무소 : 11	·본청 : 신설-2과, 3계 ·직속기관 : 신설-1계(보건소) ·사업소 : 1(3계)	·지적과, 하수과(전산통신, 지정, 토지관리) ·(검사) ·공영개발사업소(관리, 건축, 설비)
1991	1실4국	·본청 : 담당관 3, 과 21, 계 74 ·직속기관 : 1(4계) (보건소) ·사업소 : 5(12계) ·동사무소 : 14 ·의회 : 1계	·본청 : 신설-1과, 1과, 7계 ·사업소 : 신설-1(3계) ·동사무소 : 신설-3 ·의회 : 신설 1계	·사회경제국, 교통행정과(법무, 영선, 위생감시, 환경미화, 교통지도, 공원, 보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시험, 관리, 운영) ·본오, 월피, 선부 2 ·의회사무기구(의사)
1992	1실4국	·본청 : 담당관 3, 과 22, 계 77	·본청 : 신설-1과, 3계	·청소과(상장, 교통기획, 공과금)

표 5-7 행정기구의 변천 상황(계속)

연도	실·국	과·사업소·동	변경 사항	비 고
1992	1실4국	·직속기관 : 1 (4계) (보건소) ·사업소 : 7(2과, 17계) ·동사무소 : 14 ·의회 : 1국, 1계	·사업소 : 폐지-1/ 신설-3(2과, 5계) ·의회 : 신설-1국	·공영개발사업소 ·노동복지회관, 동시개발지원사업소, 관산 도서관, 관리과, 사업과(관리, 용지, 이주 대책, 관리, 운영) ·의회사무국
1993	1실4국	·본청 : 담당관 3, 과 22, 계 78 ·직속기관 : 1 (4계) ·사업소 : 8(2과, 18계) ·동사무소 : 16 ·의회 : 1국, 1계	·본청 : 신설-1계 ·사업소 : 신설-1 (1계) ·동사무소 : 신설-2	·(차량등록) ·여성회관(관리) ·사동, 선부 3동
1994	1실4국	·본청 : 담당관 3, 과 22, 계 80 ·직속기관 : 1 (4계) (보건소) ·사업소 : 8(2과, 17계) ·동사무소 : 19 ·출장소 : 1 (4계) ·의회 : 1국, 1계	·본청 : 신설-2계 ·사업소 : 폐지-1계 ·동사무소 : 신설-3 ·출장소 : 신설-1 (4계)	·(조사, 전산) ·(올림픽, 운영) ·본오 2, 반월, 대부 ·대부출장소(충무, 재무, 호병, 산업)
1995	1실4국	·본청 : 담당관 3, 과 23, 계 83 ·직속기관 : 1 (5계) (보건소) ·사업소 : 10(2과, 19계) ·동사무소 : 23 ·출장소 : 1 (3계) ·의회 : 1국, 1계	·본청 : 폐지-2계/ 신설-1과, 6계 ·직속기관 : 신설-1계 (보건소) ·사업소 : 신설-2 (2계) ·동사무소 : 신설-4 ·출장소 : 폐지-2계 /신설 1계	·(차량등록, 의료보장) ·정수과(인사, 정수 1, 정수 2, 재난관리, 재활용, 기술지원) ·(복리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관리, 운영) ·사 2, 본오 3, 부곡, 안산 ·(호병, 상업) ·(산업개발)



사진 5-5 안산시청 민원실. 정직한 행정, 신뢰받는 업무 처리로 시민 생활 향상에 봉사하고 있다.

표 5-7에 의거해 각 연도별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80년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가 개청하면서 본청에 1개 담당관(개발담당관), 8개 실·과(기획실·총무·재무·보건사회·산업·관리·도시·건축), 22계의 부서가 만들어지고, 1980년 4월 1일 지소 설치에 의거해 화성군 반월면 일부 지역과 시흥군 수암면·군자면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반월·수암·군자 지소로 관할케 하였다.

• 1981년

본청의 기획실 및 재무·관리·건축과 등의 1실 3과를 폐지하고, 새마을과·세무과·회계과·주택과와 보건소를 신설하였다.

• 1982년

본청의 주택과를 폐지하고 건설과·수도과를 신설하여 1담당관, 9과, 28계를 운영하였다.

• 1983년

안산은 공업지역인 관계로 공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전담부서인 공해방지계·공업계가 신설되었다.

• 1984년

1984년도에 민방위과가 생기면서 본청은 1담당관(개발담당관), 10과(총무·새마을·세무·회계·보건사회·산업·민방위·수도·도시·건설), 1개 보건소, 3개 지소(반월·군자·수암)로 운영하였다. 1985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체제를 유지하다가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의 역할은 중지부를 찍고, 1986년 1월 1일자로 안산시로 발족하여 새로운 시(市)의 체제를 이루었다.

• 1985년

아무 변동이 없었다.

• 1986년

1986년 1월 1일자로 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안산시는 본청에 시장·부시장을 비롯하여 1담당관(개발), 2실(문공실·감사실), 13개 과(총무·새마을·세무·회계·시민·민방위·사회·산업·상공·건설·도시·주택·수도), 44계, 1개 보건소, 2개 사업소(근로청소년회관·하수종말처리장), 7개 동사무소(반월·수암·중앙·군자·원곡·원초·선부)로 행정기구를 구성하여 안산시의 시정을 맞았다.

• 1987년

본청에 1개 과(환경관리과)가 신설되었다.

• 1988년

시 승격 2년이 지나면서 시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여 1담당관(개발담당)과 2실(문공실·감사실)이 폐지되고 1실(기획실), 3국(총무국·사회경제국·도시국)이 설치되었으며, 3담당관(기획·문화공보·감사)과 5과(가정복지·공업·지역경제·건축·녹지)의 신설, 1개 사업소(상수도관리사업소)의 신설, 그리고 3개 동사무소의 폐지(중앙·원곡·원초), 7개 동사무소 신설(고잔 1·고잔 2·성포·원곡 1·원곡 2·초지·공단)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장·부시장 밑에 1실, 3국, 3담당관, 18과, 1보건소, 3사업소, 그리고 11동사무소로 구성되었다.

• 1989년

아무 변동이 없었다.

• 1990년

본청 2개 과(지적과·하수과)가 신설되었고 1개 사업소(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본청에는 1실, 3국, 3담당관, 20개 과, 1보건소, 그리고 4개 사업소가 구성되었다.

• 1991년

본청에 1국(사회경제국)과 1과(교통행정) 및 1개사업소(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가 신설되고, 기타 3개 동사무소(본오·월파·선부 2동)가 신설되어 1실, 4국, 3담당관, 21과, 1보건소, 5개 사업소, 14개 동사무소로 구성되었다.

• 1992년

1과(청소년), 1사업소(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3사업소(관산도서관·노동복지회관·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3담당관, 22실·과, 1개 보건소, 7사업소, 14개 동사무소, 1개 의회사무국이 구성되었다.

• 1993년

1개 사업소(여성회관)가 신설되고 2개 동사무소(사동·선부 3동)가 신설되어 1실, 4국, 3담당관, 22과, 1보건소, 8사업소, 16동사무소, 1의회사무국이 구성되었다.

• 1994년

1994년에는 웅진군 대부분 일부와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안산시로 편입하였다. 이 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3개 동사무소(본오 2·반월·대부)가 신설되고 1개 출장소(대부지구출장소)가 신설되어 1실, 4국, 3담당관, 22과, 1보건소, 8사업소, 19개 동사무소, 1출장소, 1의회사무국이 구성되었다.

• 1995년

1개 사업소(농산물도매시장)와 시흥시 3개 법정동(수암·장상·화정)이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4개 동사무소(사 2·본오 3·부곡·안산)가 신설됨으로써 1실, 4국, 3담당관, 23과, 1보건소, 10사업소, 23개 동사무소, 1출장소, 1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었다.

• 1996년/1997년

아무 변동이 없었다.

4. 공무원 정원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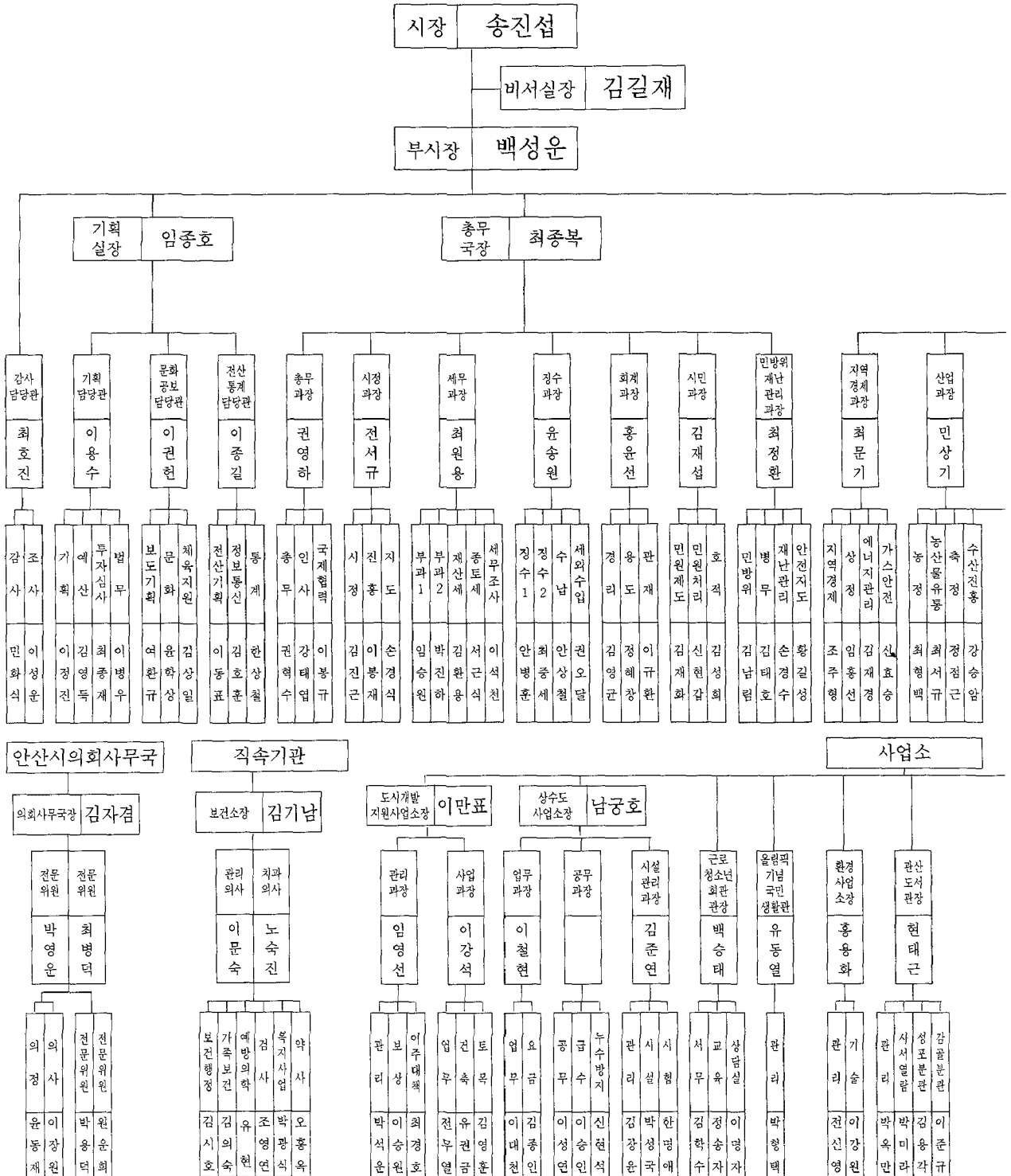
안산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여러 측면에 걸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정원(표 5-8), 본청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5-9), 지소와 동(洞)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5-10), 1996년 현재의 본청 실·국·과별 공무원 정원(표 5-11), 1996년 현재의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5-12)을 비교·분석하고, 경기도 반월출장소 시절(1980년 전후), 시 승격 전(1985년경), 그리고 1990년·1995년 및 현재의 상황을 나열하여 인원의 변천 과정을 통해 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표 5-8 안산시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출장소	80년도	85년도	90년도	95년도	현 재	비 고
본	일반직-행정		140	142	335	514	536	
	일반직-기술							
	소 방 직			13	96			
	기 능 직			5	158	286	292	
	별 정 직			7	13	30	29	
	고 용 직		22	27	16	13	13	
합 계			162	194	618	843	870	
지 소 동	일반직-행정		39	45	145	280	297	
	일반직-기술							
	소 방 직							
	기 능 직				13	57	57	
	별 정 직		3	3	14	3	3	
	고 용 직		3	3				
합 계			45	51	172	340	357	
총	일반직-행정		179	187	480	794	833	
	일반직-기술							
	소 방 직			13	96			
	기 능 직			5	171	343	349	
	별 정 직		3	10	27	33	32	
	고 용 직		25	30	16	13	13	
합 계			207	245	790	1,183	1,227	

안산시 직위표



기구	실 · 국 · 과						의회
	1실 · 5국 · 4담당관 · 23과 · 89계						
정원	합계	본청	직속기관 (1)	출장소 (1)	사업소 (11)	동사무소 (23)	2계
	1,412	1,412	1,412	1,412	1,412	1,41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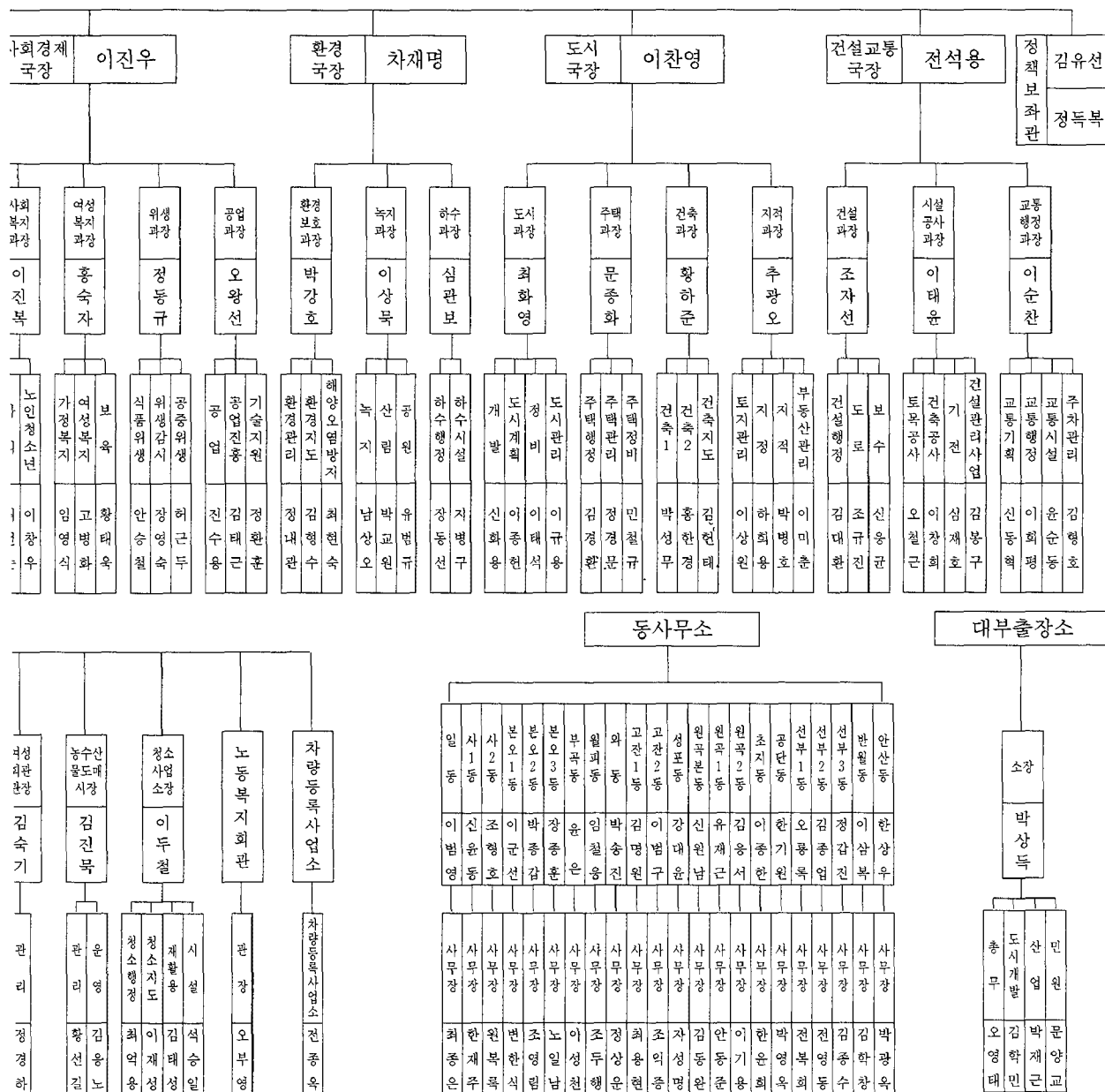


표 5-9 본청 공무원 직급별 정원

(단위 : 명)

연 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총 계
	일반직				합	일반직										별 정	전 고	기 정	합			
	2급	3급	8급	소방		정무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소계							
80		1			1			2	9	27	57	42	2		139			22			162	
85		1			1			2	12	35	46	43	3	13	154	7		27	5		194	
90		1	1	7	9			5	29	82	98	86	32	89	422	13	47	16	111		618	
95		1			1			8	39	114	164	140	47		513	30		13	286	1	843	
96		1			1	1		8	39	119	172	148	48		535	29		13	292	1	870	

자료 : 안산시 총무과 제공.

표 5-10 지소 및 동 공무원 직급별 정원

(단위 : 명)

연 도	일 반 직						별 정	공 용	기 능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1980		3	6	19	11	39	3	3		45
1985		3	12	20	10	45	3	3		51
1990		11	53	56	25	145	14		13	172
1995	21	21	92	93	53	280	3		57	340
현재 (96)	23	23	95	99	57	297	3		57	357

자료 : 안산시 총무과 제공.

표 5-11 1996년 현재의 안산시 본청·실·국·과별 공무원 정원

(단위 : 명)

실 국	담당관실, 과, 사업소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정무직	합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1	8	39	119	172	148	48	29	292	13	1	870
기 획 실	기획담당관실		1	1	4	5	3	1		4			19
	문화공보담당관실			1	2	2	3	1	1	5			15
	감시담당관실			1	2	4	2			1			10
총 무 부	총 무 과	1	1	1	6	10	8	2	2	19		1	51
	사회진흥과			1	3	5	4	3		2			18
	세 무 과			1	4	7	10	6		3			31
	징 수 과			1	3	5	3	4		4			20
	회 계 과			1	4	5	2	1		33			46
	지 적 과			1	4	3	3	3		1			15
	시 민 과			1	3	3	5	1		3			16
	민방위재난관리과			1	4	5	4	2	1	5			25
보 건	시 회 과		1	1	4	5	5	3	3	3			25
	가정복지과			1	2	1	2	1	3	2			12
	환경보호과			1	3	7	4			2			17
	청 소 과			1	3	4	6	2		16	11		43
지 역	지역경제과		1	1	5	6	5	1		2			21
	공 업 과			1	3	3	4			6			17

표 5-11 1996년 현재의 안산시 본청·실·국·과별 공무원 정원(계속)

(단위 : 명)

별·국·과	담당관실, 과, 사업소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정무직	합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국·과	교통행정과			1	3	4	4	1		13	2		28
	산업과			1	3	3	4	1		1			13
도시국	도시과		1	1	3	4	2	1		2			14
	주택과			1	3	3	3			2			12
	건축과			1	2	2	3	1		1			11
	녹지과			1	3	4	2	2		2			14
	건설과			1	3	5	2	1		4			16
	수도과			1	5	7	2	1	1	34			51
	하수과			1	2	5	5	1		4			18
의회사무국			1	2	3	3	3			8			20
보건소			1	2	6	9	15	6	12	5			56
대부출장소					3	2	2	1					8
사업소	근청회관			1	2	3	1		4	7			18
	환경			1	2	3	4			31			41
	상수도			1	3	9	3			2			38
	도시개발		1	2	6	10	11			5			35
	올림픽기념관			1	1	2			2	11			17
	관산도서관			1	2	3	1			9			16
	여성회관			1	1	4	2	1		5			14
	노동복지회관				1	1				5			7
	농수산물도매시장			1	2	4	4			6			17
	차량등록				1	2	1			4			8

자료 : 안산시 총무과 제공.

사진 5-6 농수산물도매시장 기공식.
994년 3월, 싱싱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착공하였다.



표 5-12 1996년 현재의 안산시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

(단위 : 명)

구분	직 종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정무직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동 명	합 계	23	23	95	99	57	3	57			357
	일 동	1	1	5	5	3		3			18
	사 1동	1	1	4	3	3		1			13
	사 2동	1	1	6	6	2		1			17
	본오 1동	1	1	5	3	4		23			16
	본오 2동	1	1	4	4	4		1			15
	본오 3동	1	1	3	5	3		1			14
	부 곡 동	1	1	3	5	1		2			13
	월 피 동	1	1	5	7	2		2			18
	와 동	1	1	5	6	3		3			19
	고잔 1동	1	1	5	6	2		3			18
	고잔 2동	1	1	5	5	1	1	3			17
	성 포 동	1	1	5	5	3		3			18
	원곡본동	1	1	4	5	2	1	3			17
	원곡 1동	1	1	4	1	3	1	3			14
	원곡 2동	1	1	2	3	2		3			12
	초 지 동	1	1	3	2	2		3			12
	공 단 동	1	1	3	2	1		2			10
	선부 1동	1	1	4	6	2		3			17
	선부 2동	1	1	5	5	2		3			17
	선부 3동	1	1	7	5	4		2			20
	만 월 동	1	1	2	3	3		3			13
	대 부 동	1	1	3	4	3		5			17
	안 산 동	1	1	3	3	2		2			12

자료 : 안산시 총무과 제공.

제2절 재정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작용의 성질을 보아 조세의 부과, 징수와 같이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주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과 그 취득한 재력을 관리하기 위한 작용인 것이다. 근대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이 작용이 국민경제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지방자치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재정은 헌법에 의해 국유재산법 및 각종 조세법·감사원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지방세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가정에는 가계에 의하여, 사회의 각 단체는 각종 규약으로 통제·작용하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면 기차가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연료(석탄·디젤·전기 등)뿐만 아니라 각종 통신원이라든가 기관수 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각각의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재정의 운영방침이다. 이것이 잘 활용될 때 기차 내 여러 손님을 아무 이상 없이 수송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원활히 부과·징수·집행될 때 시의 행정이 윤택해진다.

1. 국세 징수 현황

표 5-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1994년의 국세 징수 총액은 2710억 4575만 원이고, 1995년은 전년보다 676억 7325만 원 증액(25%)된 3387억 1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5-13 안산시 재정 규모(1994~95년)

(단위 : 천 원)

구 분		1994년	1995년	비 고
합 계		271,045,750	338,719,000	
직 접 세	소 계	158,592,251	208,766,000	
	소 득 세	86,969,901	121,944,000	
	법 인 세	68,356,900	84,164,000	
	상 속 세	2,090,209	1,739,000	
	재산평가세	422,025	149,000	
	도지촌과이득세	744,216	770,000	
	부당이득세			
간 접 세	소 계	97,782,533	110,229,000	
	부가가치세	66,62,420	85,922,000	
	특별소비세	29,846,204	23,034,000	
	주 세	1,240,988	1,149,000	
	증권거래세	65,921	124,000	
	전 화 세			
기 타	소 계	14,670,886	19,723,000	
	인 지 세	64,260	165,000	
	과년도 수입세	177,555	3,830,000	
	방 위 세	357,125	524,000	
	교 육 세	9,261,889	6,987,000	
	농어촌특별세	4,810,057	8,217,000	
	교 통 세			

자료 : 「안산시 통계연보(1996년)」

이 국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직접세로서 1995년의 경우 국세 징수 총액의 62%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직접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소득세로서 국세 징수 총액의 36% 정도를 차지하였다. 한편 간접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것은 1995년의 경우 1억 2400만 원의 증권거래세로서 국세 징수 총액의 0.3% 정도를 차지하였다.



사진 5-7 안산세무서 전경.

2. 지방세 징수 현황

(1) 지방세 부담

표 5-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의 지방세 부담액은 1991년에 비하여 50% 정도 증가한 1665억 1671만 원이었고, 1994년과 비교하면 14억 3237만 원이 증가하여 0.8%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1995년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9,988원으로 산출되었다.

(2) 지방세 징수(세목별)

표 5-15의 세목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에 지방세 총액이 729억 883만 원이던 것이 1995년에는 1701억 8446만 원으로 972억 7562만 원의 증가를 보여 안산시의 발전을 확인케 하였다. 특히 등록세가 전체 지방세의 25%를 차지하였다.

또한 보통세 중 특이한 점은 자동차세가 1990년에 비해 1995년에는 무려 164억 6705만 원의 증가를 보여 자동차 보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고, 지방세 전체에서 자동차세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1995년의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방세 총액 1701억 8446만 원의 10% 정도인 170억 4272만 원이나 되어 재정 운영상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14 연도별 지방세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지방세	계	110,482,810	112,237,021	134,119,084	165,084,344	166,516,714
	보통세	97,484,301	97,524,295	118,225,533	144,280,317	149,473,993
	목적세	12,998,497	14,712,736	15,893,451	208,804,027	17,042,721
인 구				399,822명	457,910명	504,615명
1인당 부담액				335,446원	360,517원	329,988원

표 5-15 세목별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합 계		72,908,836	101,694,503	102,267,301	121,566,618	149,109,291	170,184,464
보 통 세	취득세	17,241,841	26,118,110	19,047,554	23,044,708	28,351,288	28,612,674
	등록세	23,223,574	35,276,990	29,119,967	34,516,432	39,234,159	42,645,085
	면허세	216,507	405,306	586,660	790,701	1,243,567	1,800,561
	마권세						1,155,839
	주민세	6,306,403	6,248,181	9,535,798	10,005,066	13,064,890	17,586,046
	재산세	2,135,316	3,187,706	4,033,088	6,959,715	6,285,734	6,641,975
	자동차세	2,501,785	4,761,659	7,439,277	10,316,852	14,319,321	18,968,838
	종합토지세	2,318,870	3,242,212	4,353,621	5,646,836	8,470,056	7,605,675
	농지세	1,062	1,810	3,495	2,220	2,046	2,190
	담배소비세	10,049,954	12,998,497	14,712,736	15,893,453	20,804,027	24,465,110
	도축세	2,506	3,302				
소 계		63,997,418	92,243,773	88,832,496	107,175,983	131,774,988	149,473,993
목 적 세	도시계획세	2,530,558	3,234,104	4,428,589	5,298,604	6,329,433	6,948,81
	공동시설세	1,329,289	1,672,995	2,105,727	2,527,789	3,244,346	3,617,696
	사업소세	3,310,866	4,007,809	4,769,445	5,168,057	5,666,444	6,476,213
	지역개발세						
소 계		7,170,713	8,914,908	11,303,761	12,994,450	15,240,223	17,042,721
과년도 수입		1,222,218	535,827	2,221,344	1,396,185	2,184,080	3,669,750

(3) 예산 결산 총괄

표 5-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도 예산액은 5466억 9232만 원이었으나 세입이 4602억 2044만 원으로 864억 7187만 원의 미달을 가져 왔지만, 세출이 3060억 1341만 원의 실적을 보여 오히려 1542억 730만 원의 이월금을 남겼다.

표 5-16 안산시의 예산 결산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1979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예산액	계	390,618	2,545,834	38,762,530	144,296,843	546,692,321
	일반회계	293,884	2,515,724	4,858,800	70,364,220	230,039,708
	특별회계	551,776	7,534,934	33,903,730	73,932,623	316,652,613
세 입	계	5,805,661	10,050,658	40,792,006	130,065,255	460,220,448
	일반회계	293,885	2,515,724	5,024,809	72,914,425	248,585,170
	특별회계	5,511,776	7,534,934	35,767,137	57,150,830	211,635,278
세 출	계	5,398,140	10,043,257	37,494,996	74,996,057	306,013,418
	일반회계	293,885	2,515,724	3,591,266	39,838,029	139,899,541
	특별회계	5,104,255	7,527,543	33,903,730	35,158,028	166,113,877

(4) 일반회계 세입 결산

표 5-17에서 보듯이 1979년 총세입이 2억 9388만 원, 1980년에는 25억 1572만 원으로 22억 2184만 원의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자체 세입에 의한 것보다 도 중앙의 보조분에 의존한 세입이었다. 그러나 1985년 출장소 말에는 세입이 50억 2486만 원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무려 729억 1442만 원, 5년 뒤인 1995년에는 2485억 8517만 원에 이르러 경기도에서 자립도가 부천 다음으로 좋은 도시가 되었다.

(5) 일반회계 세출 결산

표 5-18에 나타난 것처럼 반월출장소 시절인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일반행정비에 온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세입을 도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산시로 승격된 후 1995년까지 10년간 지방재정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1985년의 일반행정비가 21억 8162원인 데 비해 1995년에는 무려 321억 7332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사업복지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가 총 세출액의 65%나 투자되어 바람직한 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7 안산시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 원)

구 분	1979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계	293,884	2,515,724	5,024,869	72,914,425	248,585,170
지방세	106,358	395,892	3,971,256	30,742,564	90,148,965
재산 수입	218	773		10,285	
과년도 수입	96			3,090	
세외 수입	96	5,558	243,182	65,539,370	119,546,468
지방 교부세		1,875,000		30,000	300,000
지정 재원					13,249,158
보조금	186,471	238,501	810,431	2,509,217	23,266,578
지방양도금					2,074,000
자체 수입				70,375,208	
경상적세외수입				14,638,007	
기 타				15,176,102	
이월금				22,736,103	
잡수금				253,723	
의존 수입				2,539,217	
재산매각수입				541,254	

표 5-18 안산시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천 원)

구 분	1979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계	293,884	2,515,724	3,591,266	39,838,028	139,899,641
일반행정비	97,806	721,843	2,181,627	12,332,903	32,173,329
사회복지비		68,541	605,404	6,812,003	28,824,254
산업경제비			54,890	4,657,400	
지역개발비				9,011,189	52,493,682
문화 및 체육 진흥비				4,742,962	9,064,710
의회비				189,605	1,005,434
자산취득비	18,428				
시설비	173,130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지원	4,520				
지역방위비			97,176	2,007,890	274,216
지원 및 기타			31,064	94,076	178,443
재정비		1,318,588			
농업비		14,823			
도시계획비		55,608			
건설비		243,272			
소방비		93,039			
공익사업비			621,105		

표 5-19 안산시의 특별회계 결산

(단위 : 천 원)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계	35,767,137	33,903,730	57,150,830	35,158,028	211,635,000	166,114,000
상수도사업	3,841,016	2,319,438	20,152,339	8,488,108	31,829,000	20,344,000
하수도사업			14,245,877	4,043,767	28,653,000	15,486,000
공기업개발사업			1,330,032	1,058,189	9,211,000	3,042,000
안산시도시개발사업	31,926,121	31,584,292	20,993,123	20,863,525	131,255,000	122,044,000
주택사업			106,291	83,686	24,000	22,000
새마을소득사업			57,732	43,000	178,000	75,000
의료보험사업			207,268	198,752	873,000	865,000
영세민보증기금			58,108	27,000	451,000	78,000
토지구획정비사업			20,993,123	20,863,525	1,159,000	1,049,000
교통사업					5,449,000	637,000
경영수입사업					2,562,000	2,450,000



사진 5-8 안산시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기공식. 1993년 3월
23일 공사 현장에서 거행되었다.

(6) 특별회계 결산

표 5-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공기업개발사업·안산시도시개발사업·주택사업·새마을소득사업·의료보험사업·영세민보증기금사업·토지구획정비사업·교통사업·경영수입사업 등 모두 11개 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상·하수도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5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29%에 달하여 특별회계 세출면에서도 22%를 차지하였다.

표 5-19의 세입 대 세출 비율을 통해 안산 시정의 순조로운 진행 모습을 수치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개발 소지가 있는 희망의 도시 안산을 알리는 지표이기도 하다.

제3절 실, 국, 과 행정

이 장에서는 안산시 직제규칙 제494호(1996.12.6. 개정)에 의거 실·국·소별의 사업개요, 주요 업무, 주요 시책,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직무를 보면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담당관 과장은 실·국장을, 계장은 담당관 및 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감사담당관실

(1) 개요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여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 변화의 흐름에 걸맞는 새로운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고, 시정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고 고질적인 병폐와 구조적 부조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지방행정’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물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 실현에 노력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달성키 위하여 감사계·조사계 2개 계를 두어 업무를 추진한다.

(2) 주요 업무

1) 감사계

감사계에서는 시행정의 감사, 상급기관(도·중앙)의 수감 및 감사 결과 지시사항 처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민원서류의 검열, 그 밖의 기타 사항을 감사한다.

2) 조사계

조사계에서는 비위예방대책과 시행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복무기강 감찰 등을 실시하며, 상급기관 이첩 및 하수인 관련 민원 처리, 망실·훼손 사고의 조사 처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① 정기감사(시·도의 정기·수시 감사) 수검 및 실시

② 10대 취약 분야 감사 실시

회계, 보건, 공사, 건축, 재산관리, 세무, 토지, 환경, 위생, 도시.

③ 공직자 부조리 사전 예방

공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민원 부조리 취약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척결을 위한 ‘예방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의로운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도모한다.

④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한 공직자를 발굴·표창하는 등 공직자상 정립에 이바지한다.

2. 기획실

기획실에서는 시 행정 전반을 기획·통제하고,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와 분석, 예산의 편성과 운영, 지방채기채(地方債起債)의 일시 차입 등을 관리하며, 노동업무 등을 관장하고 문화·체육 부문 및 정보통신 업무 등을 담당한다. 기획실 산하에는 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실을 설치·운영한다.

(1) 기획담당관실

1) 개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전반의 기획과 각종의 지시사항 처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독, 예산 배정, 재정 운영의 감독, 예비비 관리, 지방재정 분석, 지방교부세 업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투융자사업, 주요 투자사업,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법령·자치법규를 비롯한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통제, 훈령·예규·조례·규칙의 사전 보고 및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데, 위 업무를 신속·정확히 관장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산하에 기획·예산·투자심사·법무의 4계를 설치·운영한다.

2) 주요 업무

기획담당관실의 중요 업무 추진은 '열린 시장실 운영'으로서, 안산시 전 주민 누구나 시장실을 찾아 궁금증 및 고충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선진 지방의 운영, 재해 예방 대책, 종합관찰제 운영,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법무행정기반 구축, 올바른 법질서의 유지, 정확한 기술, 투융자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심사·분석 등 명실공히 시정의 기획업무를 총괄한다.

3) 업무 추진 실적

2000년대 복지도시 건설과 안정·번영의 지방화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7대 역점사업(주민단합, 신뢰행정 구현, 지역안정,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주민복지, 향토문화 육성, 균형개발)을 세우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 배양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6년의 재정규모를 일반회계 2582억 원, 특별회계 1615억 원, 총 4197억 원을 책정하였다. 특히 1997년에는 재정규모를 4347억 원으로 3.6% 증가시켜 도시행정기반 구축, 대외 경쟁력 제고, 도로망 확충

사진 5-9 상록수역 도로공원. 이 같은
공원들은 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따뜻한
거리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및 새 질서 확립,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 범죄 예방, 교통·거리질서 정비, 문화 정착의 따뜻한 거리 조성, 환경오염 정비, 도시공원화 촉진, 농·어촌의 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2) 문화공보담당관실

1) 개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각종 여론 조사, 시정홍보·보도업무 관장, 문화재 보호, 관광업무 등을 총괄하며, 그 밖에 안산신문·시보·방송실 등의 운영과 유선방송의 지도·감독, 체육 진흥 업무 관장,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 체육시설 설치·관리, 기타 체육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하는데, 이를 폭넓게 운영키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도기획계·문화계·체육지원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추진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안산시의 시정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안산시 신문 발행, 건전한 영화 상영, 문화·예술의 창달과 기회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숨쉬는 도시를 건설키 위한 시립국악단 창단 운영, 학생 및 주민의 학습편의 제공과 연구를 위한 도서관 건립, 체육 진흥 사업을 위한 안산시 체육회 육성,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위한 건전한 문화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3) 업무 추진 실적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실적은 여러 가지 있으나 두드러진 업적은 건전 영화 상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 창달, 시립국악단 창단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예술단체 육성 및 전통문화 보급,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육성 등이다. 특히 시민·학생들을 위한 관산도서관을 비롯한 성포도서관(부지면적 4400㎡〈1331평〉, 건축면적 2811.47㎡〈806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열람실 660석, 도서소장능력 서고 25,000권) 및 감자골도서관(부지면적 86,800㎡〈26,232평〉, 건축면적 3351㎡〈1013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열람실 1000석, 도서소장능력 서고 60,000권)을 건립하여 안산시의 문화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5-20 안산시의 공공도서관

도서관명	좌석 수	기본장서	장서 수	장서율	관외대출	이용자 수	비 고
계							
관 산	1,100석	75,000권	4,415권	61.5%	122,948권	458,423명	
성 포	660	25,000					
감자골	1,000	60,000					

표 5-21 안산시의 종교단체

(단위 명)

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비 고
연도	교장	교직자	교장	교직자	교장	교직자	교장	교직자	교장	교직자	
1992	240	390	3	9	15	29	1	1			
1993	323	543	4	12	15	28	1	2	1	1	
1994	392	729	4	20	20	44	1	3	1	8	
1995	417	796	8	20	20	47	1	3		7	

자료 「안산시통계연보(1996)」



사진 5-10 관산도서관 개관. 1993년 7월 30일 개관해 학생·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총무국

안산시 총무국은 안산시 전반 업무를 관장하고 통제하며 전 공무원의 임명·해임, 자체 총무계획 수립, 문서 통제, 행정구역 조정, 동행정 조정·통제, 통반조직 관리·운영·지도, 각 협의회 운영·지도, 새마을운동 종합계획 지원·운영, 새마을금고 관리, 새마을 특별회계 운영, 자연보호 추진, 환경 개선 사업, 지방자치업무, 지방세 부과·징수, 각종 조세업무 관장, 체납세 독려, 각종 처분행위, 세외수입 관리, 경리사무, 용도업무 및 시재산 관리, 민원업무, 호적사무 관장, 민방위계획 수립, 훈련교육 실시, 병무행정 계획 및 총괄, 재난 예방과 처리, 안보문제 등을 담당한다. 총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시정·세무·징수·회계·시민·민방위재난관리과 등 7개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총무과

1) 개요

총무과에서는 일반서무, 공무원 복무, 보안, 공무원 후생복지, 여론, 시책, 직제, 정원, 인사, 공무원 교육, 국제교류 등을 담당하며, 총무·인사·국제협력의 3계를 두어 행정을 수행한다.

2) 업무 추진

총무과에서는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촉진, 보안의 생활화, 보존문서의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 지역사회 안전 대책,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 외국어 회화 교육의 내실화, 4대 중점업무 전산화 추진, 공무원 전산교육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3) 업무 실적

총무과는 1987년 11월 9일 안산시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시(市) 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 두 시는 대표단 상호방문 및 공동노력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 왔으며, 향후 경제·문화·환경·기술·정보 등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표단 방문(두 도시 우호증진), 학생 교류(교육 비교), 상공인 교류(상공 정보 교환, 기업 육성, 금융 지원, 해외시장 개척, 우리 상품 판매

등), 문화예술 교류(두 도시 합창단·국악단, 상호 홍보교육), 환경 기술 및 정보 교류(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처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어 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국·일본과의 자매결연도 체결되면 국제협력 및 우호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2) 시정과

1) 개요

시정과의 업무는 1986년 말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관장하였으나 1987년 1월부터 시정과로 분리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정과의 주요 업무는 동 행정의 조정·통제, 행정기구의 조정, 지역 안정과 동향 관리, 총무계획, 새마을운동, 자연보호, 행락질서 확립, 환경 개선, 선거업무, 지방자치업무의 총괄 및 행정연수대회 추진, 한국방송대학생 선발·운영 등으로, 이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시정과 내에 시정·진흥·지도의 3계를 두고 있다.

2) 업무 추진

시정과에서는 업무 촉진, 행정구역경계 조정 및 동(법정동) 명칭 변경, 공직자 위탁교육, 반사회 운영의 내실화, 이동시장실 운영, 건전한 국토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시종합개발사업, 국토대청소운동 전개, 직장체육팀 육성, 초지동 다목적복지회관 추진, 종합운동장 건립 등 업무 실적이 다양하다.

(3) 세무과

1) 개요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업무의 계획, 지방세의 부과·조정·홍보, 조세(취득·등록·면허·마권세) 관장, 주민세·자동차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도축세 등의 모든 행위와 재산세의 모든 부과 행위까지 관장하며, 종합토지세·농지세에 관한 사항 및 법인·단체의 세무조사, 음성 세원의 발굴 등을 총괄한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세무과 내에 부과1계·부과2계·재산세계·종토세계·세무조사계를 두어 세무과 업무를 관장한다.

2) 업무 추진

세무과의 중요 업무 실적은 신뢰받는 세정운영 구축,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 및 부과 목표의 달성, 지방세의 공정한 관리 및 합리적인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 방지 및 공평한 과세 등 누수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5-11 안산시와 라스베이거스 시
자매결연 10주년 환영 만찬. 국제
협력, 우호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3) 업무 실적

세무과의 업무 실적은 많으나 재정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신뢰받는 세정운영 사업’ 한 가지만 기술하고자 한다.

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방세는 납세자로부터 대가없이 강제징수하는 것이므로 한 치의 착오라도 곧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평·합리적인 세정, 신뢰받는 세정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 사업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사전 예고로 지방세 부과 업무에 공정을 기하고 있으며, 이증부과 등 불합리한 사례를 조절하며 관세자료에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③ 신뢰받는 세무행정 운영 구현에 이바지하여 납세자의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4) 징수과

1) 개요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업무의 종합 기획, 홍보 및 사무지도, 도세 및 지방세의 수납·체납·가산금·공매 업무, 시세 체납자 관허사항 중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 증명서 발행, 세외 수입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징수과에 징수1계·징수2계·수납계·세외수입계를 두고 있다.

2) 업무 추진

징수과 업무 중 세수 증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납자·체납자 처분을 위한 경매 혹은 법적 수속보다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고의적 혹은 기타에 의거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압류·경매 등의 강제집행 방법을 시행한다. 징수과의 업무 추진 상황을 몇 가지 나열하면 미래지향적 징수행정 구축 업무 수행, 지방제 징수 전망, 부녀징세원제도 운영, 수수료·사용료 단계별 현실화로 세외 수입 증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계획 수립·운영, 세외수입 징수 및 목표 달성에 최대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

3) 업무 실적

징수과 업무 실적 중 중요한 ‘미래지향적 징수행정 구축 업무’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① **방침** :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 징수 목표를 달성하며,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주 재원 확충 및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

② **추진** : 징수실명제로 책임징수제 실시, 동별 책임 직원 2개반 편성 8명 독려,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압류·경매 방법), 납세자 중심지방에 상임 및 홍보 강화로 목적을 달성한다.

③ **기대효과** : 부과된 지방세의 체납행위 감소, 재원 확보 및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 업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회계과

1) 개요

회계과에서는 시 예산의 각종 지출 등에 관한 경리, 물품 조달 및 계약 체결, 영선관리와 관제업무, 국·도·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납, 결산 및 세입·세출 관리, 현금 관리, 수입·지출 관리, 일상경비 지출 및 정산의 심사,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각종 지출의 발의, 각종 지출 증빙서 심사, 결산서 작성,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 불입, 공무원 저축 상황 관장, 공사·물품·용역 등 입찰계약, 공사의 착공 및 준공계 처리, 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및 물품 검수, 공사·용역 등의 실적증명 발급, 공사의 관급자재 수급, 물품의 구입, 수선 및 제조의 계약, 물품관리 종합계획 수립, 물품 조달 및 출납, 물품 불용 결의 및 불용품 매각, 물품 정수, 재물조사 관리,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수행, 실태조사, 대부 사용 허가, 대부료 부과·징수, 실·국·소 공유재산 취득·처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국유재산 권리보전, 차량운행과 차량 대폐차 및 보험 관리, 차량 수리·유지 관리, 영선관리, 통합계획 수립, 청사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상의 업무를 분장 추진키 위하여 회계과에 경리계·용도계·관제계를 설치·관장한다.

2) 주요 업무

회계과의 업무를 모두 소개할 수 없어 두 가지 중요 업무만 소개한다.

① 예산 집행 상황 실태 조사

예산 집행 상황의 형태 개선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회계질서의 확립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한다.

② **추진 방향** : 사업소와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회계과 과장 외 3명이 연

중 조사를 실시하며, 내용은 기존 경리지침에 의한 예산집행을 적정히 확행하고 있는지, 재무규칙에 의한 장부 및 대장 비치 여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사전 집행 및 전용·이체 상황은 어떤지 등의 실태를 조사한다.

④ **기대효과** : 회계 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이 이루어지고 회계 질서 확립 및 담당자의 실무 능력이 배양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이 확보되어 누수없는 회계업무가 수행된다.

② 정기 재물조사 실시

모든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조사하여 보유 물품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재고 조정 및 손·망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진다.

(6) 시민과

1) 개요

시민과의 주업무는 전반적인 민원사무(주민등록사무·인감사무 및 각종 증명)관장, 외국인 등록 사무, 공인 관리, 민원실 설치·운영 사무, 복합민원 접수 처리, 열린시장실 운영, 민원 1회방문처리제에 관한 상황과 호적사무(신고·제적) 관리, 인구동태 조사, 본적지 신원조회, 수형인 명부 및 파산자 명부 관리 등이다. 시민과 내에 민원제도계·민원처리계·호적계를 두어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시민과의 업무는 각종 증명 발급 등 상당히 많으나 여기서는 ‘동성동본 혼인 특례 신고 업무’ 한 가지만을 소개한다.

① 동성동본으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민법에 서 정한 동성동본간 혼인 금지규정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아니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기간은 1995년 12월 27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이고,

③ 대상은 특례법 시행 당시 민법의 동성동본간 혼인 규정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닌 자이며,

④ 입증 서류는 호적(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족보 사본,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적부심사 후 해당 업무 신고·처리케 하고 있다.

(7) 민방위과

1) 개요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업무(조직·편성·운영, 교육훈련·인력동원), 비상대책업무(충무계획·을지연습), 상급 민방위학교 입교, 민방위날 훈련 실시 등의 업무와 병사에 관한 업무(제1국민역 자원 관리, 징·소집 자원 병적 관리, 병력동원 지정 자원 관리, 각종 징·소집, 병력 동원 훈련소집, 공익 근무요원 관리, 병역기피자 색출 및 병무사범 단속), 국외 여행 및 출·귀국자 관리 등의 업무와 재난종합관리업무(기획, 운영, 평가, 총괄)를 담당하며, 그 밖에 지역안전관리업무(교량·공공시설물·지하도·지하철·궤도·삭도·유희시설물·건축물 및 노후 몰락주택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민방위과 내에 민방위·병무·재난관리·안전지도의 4계를 설치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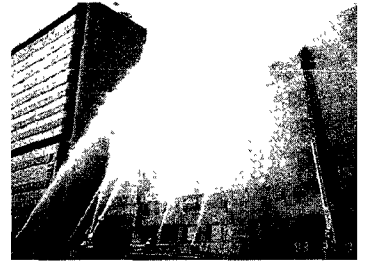


사진 5-12 민방위의 날 훈련 모습.

2) 주요 업무

① 민방위 조직 및 교육의 실효성 제고

㉠ **민방위 편성** :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기동조직으로 육성하고, 전·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한다.

㉡ **추진 방향** : 민방위날(매월 15일)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재난으로부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에 역점을 둔다. 분기별 3회 연 1회의 비상소집훈련 실시, 연 7회의 사태 수습 및 지역방재훈련(풍수해, 산불 진화, 대형교통사고, 지진, 설해대책, 화생방훈련)을 실시하며,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 **기대효과** : 이러한 방재훈련 실시로 현장대응능력의 강화와 재난으로부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며, 범시민적인 참여의식 제고로 자위적 방위능력이 향상된다.

②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

㉠ **목적** : 전시 사태하에서의 신속한 병력동원 집행 능력 배양, 사전 임무수행 능력 제고를 통해 예비병력의 정예화를 이룬다.

㉡ **추진 방향** :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사전에 통보하고, 병력동원 상설집행반 4개반 20명 조직을 운영하며, 소집 대상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집단동원시 차량을 제공한다.

㉢ **기대효과** : 전시 병력동원태세가 확립되어 전시동원령 선포시 소요 병력의 즉각 동원이 이루어진다.

4. 사회경제국

사회경제국은 종전의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을 폐지하고 환경국을 증설하면서 보건사회국 소관 중에서 사회부문과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1997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기구이다. 사회경제국에서는 사회복지(노인·청소년 문제), 여성복지(가정·여성·보육 문제), 위생(식품·위생검사·공동위생 문제) 등을 비롯해 지역경제(상권·노점·연료·가스 문제), 공업(공업진흥 및 기술 문제) 등 산업분야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사회경제국 내에는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공업과·산업과 등 6개 과가 설치되어 있다.

(1) 사회복지과

1) 개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구호·후생·의료보호에 관한 업무, 노인과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복지과 내에는 사회계·노인청소년계가 설치되어 사회복지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차원의 치료, 난민구호사업,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과 감독, 국가보훈단체의 지원, 의료보험 대상자 책정 및 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현충탑의 유지와 관리,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과 관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활성화 사업, 행려환자 및 부랑인 보호,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대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여기서는 행려환자 및 부랑인 보호대책사업(1996) 한 가지만 소개한다.

① 목적 : 연고자 등이 없는 행려환자 및 부랑인을 치료 또는 귀향조치하여 다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연고자 확인을 통해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한다.

② 방침 : 유관기관(경찰관서)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게 연고자를 파악하고, 파악 후 즉시 인계해 준다. 연고자 추적이 곤란한 자는 즉시 입원조치 또는 사업소(교아원·양로원 등)에 의료 보호케 한다.



사진 5-13 현충탑 참배. 원곡동 원곡고등학교 앞 현충탑에서 시 주최의 현충일 기념식을 갖고 있다.

표 5-2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가구)

구분 연도	합 계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시설 수	대상자
1991	520	1,467	208	321	311	1,112	1	34
1992	791	2,133	330	543	460	1,553	1	37
1993	995	2,957	352	716	642	2,053	1	188
1994	1,238	3,077	494	783	743	2,224	1	70
1995	1,238	3,088	494	788	743	2,224	1	70



사진 5-14 큰고개노인정 준공식. 안산시에서는 1995년 현재 총 119개의 노인정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5-23 노인정(경로당) 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합 계		공 립		사 립	
	개 소	인 원	개 소	인 원	개 소	인 원
1991	61	3,050	61	3,050		
1992	66	3,274	66	3,274		
1993	78	3,904	78	3,904		
1994	93	4,786	93	4,786		
1995	119	6,069	119	6,069		

자료 : 「안산시통계연보」 참고.

③ 연도별 발생 추이

• 1993년 45명→1994년 48명→1995년 151명.

위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④ 향후 관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입원조치하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연고자를 확인하고 각 연고자의 시·군에 신속히 협조요청해 찾아 준다.

⑤ 기대 효과

이와 같은 사회복지 차원의 행려환자 및 부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사회 분위기도 향상되고, 점차 그 숫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여성복지과

1) 개요

여성복지과는 어린이를 위한 가정복지행정과 가정의례 보급 및 아동문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며, 여성의 복지 특히 여성단체 및 여성의 지휘 향상 문제, 의식주 생활 문제, 미혼모 문제, 여성 취업 알선 등에 관한 업무, 보육사업(양로원·고아원)·보육시설 설치 및 국립·공립·사립 보육시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여성복지과 내에는 가정복지계·여성복지계·보육계의 3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 주요 업무

여성복지과는 가정복지 특히 어린이 보호 업무 및 가정의례 업무를 관장하며, 여성의 지위 문제, 가정의 의식주 생활 문제, 각종 여성단체의 관리,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성복지과 내에 가정복지계·여성복지계·보육계의 3계를 두고 있다.

3) 주요 사업(1996)

여성복지과의 사업은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이나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소개한다.

① 부녀지도사업(협의회)

㉠ 목적 : 여성 의식 함양과 능력 개발을 통해 화목하고 예절 바른 가정을 가꾸어 나가며, 아울러 건전한 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 추진 방향

-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 가정복지대학(1회 120명)
- 동화구현대회(1회 100명)
- 식생활 개선 요리경연대회(1회 30명)

㉢ 지도협의회 운영 및 평가

- 부녀협의회 4회에 걸쳐 실시
- 1996년 소비절약 실천 평가 및 시상(13개 여성단체)

㉣ 기대 효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활문화 조성, 여성 의식 향상, 잠재력 개발, 여성단체의 자긍심이 함양된다.

② 여성 자원봉사활동 사업

㉠ 목적 : 지역사회의 개발 문제를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성숙된 사회발전을 도모한다.

㉡ 현황

- 여성 지원 활동 센터 1개소
- 부녀 자원봉사요원 230개소
- 주부 취업알선 센터 1개소

표 5-24 부녀상담실 현황

구분 연도	상담자수	상담자수	상 담 자			조치 결과			
			선도귀가	시설입소	생계보조	직업알선	치료의뢰	교육및조언	기 타
1991	1	1,362	6	3	268	71	2	1,012	·
1992	1	1,310	7	·	401	123	6	768	5
1993	1	1,103	7	6	369	107	17	584	13
1994	1	862	·	·	274	129	·	459	·
1995	1	1,330	5	1	81	332	·	911	·

표 5-25 소년소녀 가장 현황

연 도	합 계	세대 수	세대원	재 학			기 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92	25	15	10	6	8	5	5
1993	34	20	14	6	14	10	4
1994	45	26	19	5	15	13	12
1995	57	31	26	8	16	16	17

㉔ 방침

- 자원봉사활동 기초 및 분야별 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체계화
- 각종 행사 동참으로 결속력 강화

㉕ 추진 상황

- 주부 취업 알선(수시)
- 자원봉사대 편성(230명)
- 자원봉사대 교육(1회 230명)
- 우수 봉사자 표창(5명)

㉖ 기대 효과

여성 인력자원의 사회 참여 확대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이 이루어진다.

(3) 위생과

1) 개요

위생과는 식품제조, 축산물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첨가물, 식품보존, 용기, 포장류 제조업, 접객업의 신고 및 숙박, 목욕, 전자유기, 세탁, 위생관리, 용역업, 공공이용시설의 계획 수립, 조리사 면허증 발급,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

깊은 사항을 비롯해 식품위생업소 지도, 불량업소 식품 단속 및 고발 업무를 관장하며, 그 밖에 묘지 관리, 매·화장 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불량행위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전 예방, 사후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생과 내에는 위생계·위생감시계·공중위생계의 3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위생과의 주요 업무는 식품위생에 관한 행위, 즉 제조·가공·판매 행위까지로서 위생행위 중에서 특히 불량상품이나 불법행위는 가차없이 지도·단속·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증 접객업소(숙박, 목욕, 유키, 이·미용)는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3) 주요 사업

위생과의 주요 사업 중 '위생업소 관리(1996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와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보건 향상 및 건전한 사회를 조성함에 있다.

② **위생업소 단속**(심야, 퇴폐, 변태영업의 지도·단속)

- 연중(주 3~4회) 단속을 실시하며
- 업소 5334업소를 대상으로
- 5개반 50명을 편성하여(경찰·소방원 합동)
- 시간외 영업, 퇴폐·변태 영업, 미성년자 고용 주류 제공자, 단란주점, 불법시설물,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위법사항을 지도·단속하여 범죄없는 도시, 아름다운 안산시로 변모시킨다.

③ **기대 효과** : 표 5-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년에 20~40%까지의 위생업

표 5-26 위생업소 현황(1994~95년)

구분		연도	1994년	1995년	증가율(%)	비 고
총 업소 수			6,371	7,788	22.2	
식품위생업소	식품접객업		3,322	4,110	21.8	
	식품제조가공업		282	398	41.1	
	식품소분판매업		988	1,216	23.1	
	집단급식소		360	362	.	
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접객업		976	1,224	25.4	
	위생관련 영업		302	274	23.8	
	위생용품제조업		7	7	.	
	공중이용 시설		89	97	9	

표 5-27 식품위생업소 현황

구분 연도	합 계	부 문						식품가공 및 식품제조업	판매운반업 기타업
		휴게음식			일반음식	단란주점	집단급식		
		다방	제과	기타					
1990	2,466	164	58	6	1,241		323	식품제조업 97	식품판매 1,177
1991	2,996	498	81	6	1,586		322	식품가공 157	기타 3
1992	3,617	213	104	6	2,041		338	식품첨가물 21	
1993	4,380	243	162	6	2,397	32	347	식품소분업 26	
1994	5,001	257	182	66	2,669	126	366	육성판매 67	
1995	5,991	298	218	76	3,229	182	362	408	1,216

표 5-28 공중위생업소 현황

구분 연도	계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유기장	위생관리	위생용품 제조업
1990	540	58	306	30	58	88	3
1991	690	60	390	35	56	149	5
1992	882	65	500	37	63	206	6
1993	1,075	67	637	42	67	254	7
1994	1,292	77	787	49	63	302	14
1995	1,605	107	994	55	68	374	7

소 증가로 범죄행위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행위·위법행위 없는 쾌적한 안산시 건설에 이바지한다.

(4) 지역경제과

1) 개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물가안정·경제교육과 시장경제를 관장하며, 노사화합 시책 강구 및 직업소개소 관리, 체불임금 해소, 연료의 원활한 수요·공급 관리 및 에너지 관리, 특히 가스(고압가스·도시가스)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계·상정계·노정계·연료계·가스안전계 등의 5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지역경제과는 실생활의 중심인 생활민원의 운영 및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익 보호와 물가안정대책 등 가장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열거하면 물가안정대책, 저축 증대, 소비자 보호, 시정 개설, 상거래 질서, 노사화합 시책, 노정 동향, 체불노임 예방대책, 취업정보 및 직업안내



사진 5-15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기업경영의 활성화와 노동자의 생활
보호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소 관리, 연료 수급 계획, 석유 판매업 관리, 에너지 관리, 가스(고압가스, 도시가스) 관리 등 다양하다.

3) 주요 사업

주요 사업은 지방물가 안정대책, 저축 증대 사업, 소비자 보호, 상거래 질서 확립, 고용촉진 훈련사업, 노사화합 안전대책, 취업정보, 가스안전관리, 에너지 소비 절약 등이다. 그 중 상거래 질서 확립과 노사화합 안전대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거래 질서 확립

㉞ **목적** :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한다.

㉞ **기본 방향** : 상거래 질서를 위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가격표시제의 정착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대형 소매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단속으로 중소 상인을 보호하며,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 구제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㉞ **추진 상황** : 상거래 단속반(1개반 6명 ; 정기·수시 단속)을 구성하여 공정거래 위반 행위, 위조·변조 상품 유통 행위, 가격표시위반 행위, 부정계량기 사용 행위, 불법상품권 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계량기 1만7천 대를 정기검사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㉞ **기대 효과** : 건전한 상거래 확립으로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노사화합 안전대책

㉞ **목적** : 노사협조 및 이해 증진에 힘써 노사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며, 개방화·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㉞ **기본 방향** : 경제 현실에 대한 노사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노사분규 최소화로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㉞ **추진 계획** : 노·사·정 합동연수회(2회 2백 명) 노·정 간담회(수시), 모범근로자 발굴·표창(수시), 노사분규 및 임금 교섭·지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일본·중국 10명, 유럽 8명) 등을 실시한다

㉞ **기대 효과** : 노사의 화합·안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시 전역의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 5-29 가스 공급 현황

연 도	도시가스(1,000m ³)		프로판가스(t)		부탄가스(+)		비 고
	판매도수	판 매 량	판매도수	판 매 량	판매도수	판 매 량	
1994	1	90,547	32	129,976	4	9,000	
1995	1	132,534	35	160,723	4	108,489	

표 5-30 도시가스 이용 가구

연 도	계	주 택	영 업	업무용	산 업	비 고
1990	19,475	18,247	1,143	31	54	
1991	27,690	26,314	1,268	43	65	
1992	38,257	36,756	1,368	59	74	
1993	47,874	45,350	1,561	71	92	
1994	58,355	56,420	1,739	81	115	
1995	69,548	67,502	1,829	95	131	

(5) 공업과

1) 개요

공업과는 안산시 행정 중 비중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로서 공업시책 수립과 공장 관리, 공업발전에 관한 업무 일체 및 통상산업부문을 관장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해외시장 업무, 유통구조 개선 및 불법 공산품의 유통 단속, 중소기업 기술지원책 수립 및 품질 우수성 인정과 관리, 승강기 사후 관리, 전기용품 제조업체 관리 및 각종 국가기술고시 자격 관리, 자가발전기 관리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공업과 내에는 공업계·공업진흥계·기술지원계의 3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공업과의 업무는 위의 개요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이나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업은 중소기업자금 융자 사업, 승강기 사후 관리,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전기용품 안전관리 등이다.

3)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중 승강기 사후 관리 사업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① 목적: 설치·운영 중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를 보호한다.

② 추진 방법: 승강기 관리에 따른 지도·점검을 정확히 실시하고 관계 법

규 및 관리 요령을 널리 홍보해 안전 운행과 사용 요령을 숙지케 한다.

③ **추진 계획** : 연 2회(제조회사·설치회사, 유지 및 보수 업체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 2회 승강기 관리자교육을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체의 관리 실태 점검 및 단속을 연 3회 전지역 11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연중 계속적으로 완전 정기검사와 지도를 철저히 추진하여 한 건의 승강기 사고도 없도록 한다.

④ **기대 효과** : 승강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6) 산업과

1) 개요

산업과는 농정업무를 총괄하고 농지원부 등 각종 원부를 보관·관리하고, 농약·토양개량·농작물 등을 관리하며, 농수부 소관 국유재산 업무를 취급한다. 또한 농·수·축산물 유통시책, 가공 처리, 수급계획, 채소·과수·화훼·원예 등의 생산량 제고, 축정 일반 상황 및 축산물 관리, 물가안정대책, 사료 수급 관리, 동물병원 지도·감독, 육류 유통 관리, 토지 조성의 효율화와 수산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도·관리, 특히 각종 어장·양식어장의 관리 및 내수면 어업 지도, 어선 관리 등도 산업과에서 관장한다. 산업과 내에는 농정계·농산물유통계·축정계·수산진흥계의 4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산업과의 주요 업무는 농정 전반에 걸친 업무와 재해대책(농작물 병충해, 한해대책),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농민들을 위한 생산·유통 정책, 가축의 질병 및 축산 일반 육류 수급, 수입 육류의 유통 업무를 관장한다. 그 밖에 수산 진흥 사업으로 양식업·양어 사업을 관장하고, 해난사고 및 어업지도에 힘쓰며, 수산 기술 지도와 어업인의 관리·교육·훈련에 주력한다.

3) 주요 사업

‘지역 1명품 지역 특화사업’ 육성,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농작물 경쟁력 대책 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4대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지역 1명품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소개한다.

① **목적** :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포도를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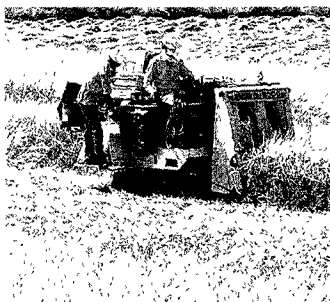


사진 5-16 안산 들녘의 가을걷이.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표 5-31 제조업종 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명/자료 : 「안산시통계연보」)

구 분 연 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비 고
합 계	업 체 수	1,146	1,297	1,463	1,807	
	종사자수	88,924	90,205	6,824	100,087	
음식료품	업 체 수	25	32	32	43	
	종사자수	2,830	2,826	3,253	2,982	
섬유제품	업 체 수	117	122	127	141	
	종사자수	1,094	11,048	10,665	10,819	
의복, 피혁	업 체 수	11	12	15	15	
	종사자수	529	577	1,181	698	
가죽가방, 신발	업 체 수	38	35	39	39	
	종사자수	4,042	3,649	4,665	3,849	
목재, 나무류	업 체 수	12	17	26	37	
	종사자수	369	602	1,135	1,058	
펄프, 종이	업 체 수	43	48	66	83	
	종사자수	2,684	2,702	3,339	3,822	
출판, 인쇄	업 체 수	17	26	33	40	
	종사자수	784	995	1,104	926	
코르크, 석유	업 체 수	2	1	3	2	
	종사자수			114	.	
화 합 물	업 체 수	141	145	158	162	
	종사자수	9,905	9,000	10,596	10,510	
고무, 플라스틱	업 체 수	63	74	84	108	
	종사자수	4,640	5,627	5,346	5,288	
비 금 속	업 체 수	21	26	27	44	
	종사자수	1,330	1,348	1,371	1,560	
제1금속	업 체 수	75	89	84	92	
	종사자수	4,790	5,077	4,721	4,807	
조강금속제품	업 체 수	188	211	301	382	
	종사자수	9,472	9,816	11,920	1,315	
기타 기계	업 체 수	143	193	197	264	
	종사자수	9,277	10,398	10,150	12,245	
사무, 계산용	업 체 수	8	11	10	14	
	종사자수	2,490	2,173	2,650	2,780	
전기기계	업 체 수	57	64	73	75	
	종사자수	4,871	5,486	7,417	8,356	
영상, 음향	업 체 수	50	50	55	72	
	종사자수	5,035	4,792	4,939	4,781	
의료, 시계	업 체 수	13	16	22	18	
	종사자수	574	807	1,308	887	
자동차, 트럭	업 체 수	90	73	64	73	
	종사자수	10,427	8,755	7,030	6,870	
기타 운동장비	업 체 수	6	5	6	7	
	종사자수	276	381	440	455	
가구기타제조	업 체 수	25	35	37	55	
	종사자수	3,556	4,038	3,888	3,881	
재생산가공	업 체 수	1	2	4	6	
	종사자수			103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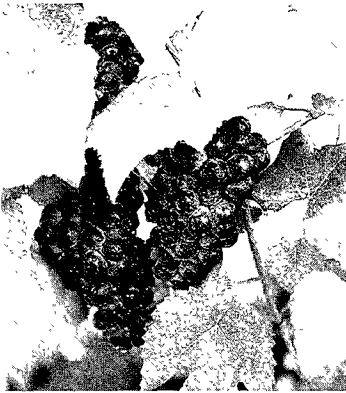


사진 5-17 안산 대부도의 포도.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대부도 포도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특산물이다.

② 추진 방침 : 포도 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③ 추진 계획 : 포도 점적관수(點滴灌水; 정량의 물을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것) 213ha를 재배케 하고, 583농가에서 396ha의 관정을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④ 기대 효과 : 천혜의 해양성기후와 양질의 붉은 점토로 점적관수 시설을 하여 제일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으며, 갈수기에 자동화된 점적관수 시설로 재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표 5-32 식량작물 생산량 현황

(단위 ha M/T)

구분 연도	합계		쌀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0	975.0	3,929.0	900	3,780	6.0	13.2	62.0	92.3	7.0	43.5
1991	960.5	3,887.8	900	3,780	6.0	13.2	50.0	77.6	4.6	17.0
1992	950.0	3,922.2	900	3,825	6.0	13.2	39.0	60.0	5.0	24.0
1993	920.0	4,006.6	900	3,960	5.0	14.6	12.0	19.0	3.0	13.0
1994	1,871.5	8,162.4	1,836	8,078	6.5	21.6	23.0	36.0	6.0	25.0
1995	1,479.0	6,386.0	1,447	6,307	8.0	28.0	17.0	24.0	7.0	27.0

표 5-33 농업용 기구·기계 보유 현황

구분 연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계			분무기		양수기	탈곡기	건조기	파종기
				계	바인더	콤바인		과수	수도	분무기	살분기				
1992	278	46	96	54	7	47	246	5	3	178	60	139	24	6	4
1993	2	52	110	60	7	53	235	3	2	166	64	138	14	8	4
1994	303	68	159	84	14	70	248	2		198	48	239	21	27	5
1995	1,171	166	409	195	38	157	656	1		655		456	46	176	7

표 5-34 가축 사육 현황

구분 연도	한우		젖소		돼지		닭		산양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호수	마리
1990	10	176	64	931	20	7,664	6	2,945	3	45
1991	14	64	55	905	16	5,954	17	220		
1992	12	47	55	1,099	18	6,789	17	723		
1993	41	463	43	810	10	1,249	41	1,313		
1994	173	1,005	50	1,059	26	3,607	123	3,833		
1995	242	1,869	118	2,575	38	3,465	364	3,857		1,068

5. 환경국

20세기 말 산업화사회의 물결로 인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공장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환경국을 설치하여 시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국의 업무는 환경보존 업무, 대기오염 업무(특히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소음·진동·매연), 수질오염 업무 등이다. 특히 축산업으로 인한 강물오염과 산업생산으로 인한 공장의 매연과 오·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은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국에서는 녹지 관리 업무인 양묘(養苗) 및 공원 조성, 조경, 관상수 식재(植栽), 산림보호를 위한 조림, 보호수 관리, 산림 병충해 방제, 산화 방지, 산림 형질변경 관리,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및 관리, 그 밖에 생활오수인 하수 처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환경국 내에는 환경보호과·녹지과·하수과의 3과가 설치되어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사진 5-18 성포공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녹지공간의 확보이다.

(1) 환경보호과

1) 개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오염 방지, 소음·진동·매연 단속, 수질오염·해양오염(오·폐수) 방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 산하에는 환경관리계·환경지도계·해양오염방지계의 3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환경보호과의 주요 업무는 환경 보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환경 개선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비산(砒酸) 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단속, 명예환경통신원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환경보호과의 주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단속’ 사업을 설명하기로 한다.

① **목적** : 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의 흙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비산 먼지 억제 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및 관리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순찰과 감시로 흙먼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한다.

② **추진 계획** : 연 2회 대상업종(건물건설회사, 토목공 등)을 정기 점검하고,

우천 후의 사업장 및 민원발생지역인 흙먼지 사업장을 특별 관리한다.

③ 기대 효과

먼지오염으로 인한 시정장애(視程障礙)와 우천시 강하하는 흙먼지 감소가 기대된다.

(2) 녹지과

1) 개요

녹지과는 환경미화 업무와 더불어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 도시공간 녹화 및 공원 조성, 화단·공원의 유지와 관리, 임산물 수급과 조림, 사방(砂防) 임업기술의 개량과 지도,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단속, 산불 방지 및 산지정화와 단속, 임업단체지도,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관리, 육림·산림 훼손 방지와 토석 채취 단속, 거수목 보호, 보호수 지정 및 보전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녹지과의 주요 업무는 직영 양묘장 설치운영, 공원 조성, 절개지 복구사업,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사업 등이며, 녹지과에는 녹지계·산림계·공원계의 3계가 설치되어 녹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① 직영 양묘장 설치·운영

㉞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목을 자급 생산하여 녹지업무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㉞ 현황

- 위치—부곡동 도로공원 부지 외 4개소
- 면적—75,900m²
- 사업 내역—느티나무 외 전종(32종)
- 규모(본수)—155천 본
- 수급 실적—1991~95년(은행나무 외 29종 316천 본)

㉞ 추진 계획

- 양묘사업—수종 ; 해송 외 5종/수량 ; 1만2천 본
- 수종—단풍나무 외 6종
- 본수—33,354본

표 5-35 가로수 식재 현황

(단위 연장-Km/수량-천 본)

구 분	계		시 청		수자원공사		비 고
	연 장	수 량	연 장	수 량	연 장	수 량	
계	239	47.6	46	9.4	193	38.2	12개 수종
기식재	223.4	45.2	38.4	8.0	185	37.2	
미식재	15.5	2.4	7.6	1.4	8	1.0	

㉠ 기대 효과

- 규모-스트롭 잣나무 외 17종
- 수량-14, 291본
- 수급처-공원, 녹지, 절개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량·수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조기 녹화를 이루며, 예산 53%를 절감할 수 있다.

㉡ 가로수 식재·관리

㉡ 목적: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각종 공해의 방지 등 공공이익을 도모한다.

㉢ 추진 방침

- 지역별로 특색 있는 수종 선택
- 잔여 구간 연결 원칙으로 식재
- 결주 가로수 보수
-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실시

사진 5-19 원곡공원. 주택과 공원이 잘 조화돼 있어 휴식처, 체력단련장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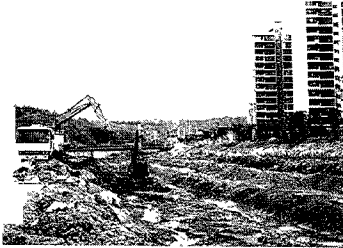


사진 5-20 안산천 보수공사.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하수·치수가 중요하다.

(3) 하수과

1) 개요

하수과는 하수·치수 행정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하천과 하수도의 보수·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하천과 하수도 공사의 시공 감독, 공유수면 관리,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유지·관리, 재해방지대책, 그 밖의 하수·치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를 추진키 위해 하수과 내에 하수행정계·하수시설계의 2계를 설치·운영한다.

2) 주요 업무

하수과에서는 안산 하수종말처리장(2차) 확장공사, 화정천 정비 및 우수(雨水) 토구(土口) 오수차집관로(污水差集管路) 시설공사,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수(污水)·우수 관전 확장공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안산천 공원화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안산 하수종말처리장(2차) 확장공사’ 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① 목적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연도인 1999년의 하수발생량 385천/일을 대비한 1단계 확장 사업이다.

② 현황

㉠ 위치 및 기존용량 : 성곡동 621, 121톤/일(1차처리)

㉡ 사업 개요

- 목표연도—1999년
- 시설용량—385톤/일(중설 264톤/일)
- 처리방법—표준 활성 슬리지법 BODIO, SS 20
- 오수간선관리—28.5km
- 오수 증계 펌프장—9개소
- 공사기간—1993. 3. 3.~1997. 12. 31.
- 공사비—102,486백만 원
 - 국비 42,114백만 원
 - 도비 18,220백만 원
 - 시비 18,220백만 원
 - 원인자부담 23,932백만 원

㉔ **기대 효과** : 이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안산의 하수시설은 거의 완전해지며, 시화호의 생태계도 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도시국

도시국은 도시의 일반행정을 총괄한다. 도시계획·도시정비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감독, 불법 옥외광고물의 관리·단속, 가로환경 정비,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 관리,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계획과 관리, 지적(地籍) 업무인 토지 관리, 그 밖에 외국인 토지 권리 및 지적공부(地籍公簿)와 부동산 업무를 총괄한다. 도시국 내에는 도시과·주택과·건축과·지적과의 4과가 설치되어 있다.

(1) 도시과

1) 개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시가지계획을 비롯해 도시시설의 quantity와 확충, 토지구획정리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토지거래 규제, 허가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과 내에는 도시관리계·도시계획계·정비계·개발계의 4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도시과에서는 화랑유원지 조성 사업, 반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상록수역 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신길동·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주단지 조성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 옥외광고물 단속, 낙도종합개발, 가도시설물 설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개발제한구역(GB 지역) 관리 강화’ 사업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 ① **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일반음식점)의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 ② **외지인의 투기행위 방지대책 강구 후 선별 허가**
 - 용도변경시 세무서 통보.
 - 허가 신청자의 개별면담으로 투기 여부 판단.
 - 식품영업허가시 본인 여부 확인.
 - 독립지역 이축은 절대 금지.

표 5-36 개발제한구역(면적) 현황

(단위 : km²)

연도	구분	동 수	가 구	인 구	계	대 지	임 야	전	답	기 타
1990		4	1,012	3,059	16.58	0.36	6.78	1.75	5.84	1.85
1991		5	863	2,666	16.58	0.36	6.78	1.75	5.84	1.85
1992		5	832	2,579	16.58	0.36	6.78	1.75	5.84	1.85
1993		5	639	2,425	16.58	0.21	6.93	7.68	5.84	1.85
1994		7	1,452	5,296	39.91	0.58	20.03	5.04	10.09	4.17
1995		7	1,452	5,296	39.91	0.58	20.03	5.04	10.09	4.17

자료 : 「안산시통계연보(1996)」

표 5-37 개발제한구역(건물) 현황

(단위 : m²)

연도	구분	계	주거시설	농수산부 시설	공공시설	마을공동 시설	광공업 시설	사회복지 시설	기 타
1990		1,802	639	404	47	22	24		660
1991		1,802	639	407	47	25	24		667
1992		1,722	610	393	47	25	24		623
1993		1,072	697	276	38	13	24	14	10
1994		3,908	2,685	991	71	40	47	53	21
1995		3,908	2,685	991	71	40	47	53	21

표 5-38 도시계획 현황

(단위 : km²)

연도	구분	계획인구	계획면적	주 거	상 업	공 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미지정
1990		412	352.74	23.92	1.95	10.72				
1991		385	79.29	14.46	1.61	14.73				
1992		385	79.29	18.79	2.38	14.26				
1993		401	79.30	18.79	2.24	14.79	33.92			
1994		635	359.19	29.13	2.71	15.51	302.79			8.05
1995		679	356.41 (103.30)	28.97 (19.74)	2.72 (2.29)	15.53 (14.94)	291.57 (56.899)		9.56 (9.56)	8.05

주 : 도시계획 면적은 화성, 시흥, 군포 포함. 팔호만 안산시임.

㉔ 생활오수 처리시설 완비, 완벽한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㉔ 부속사의 불법행위 및 불법 증축행위 단속 강화

(불법행위 발생시 즉시 행정조치 및 사법당국 고발)

② 향후 계획

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은 근본적으로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 신청시 최소한의 면적범위 내에서 허가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권고하는 등 철저를 기한다.

㉔ 시에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2) 주택과

1) 개요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축 및 건축물의 방재,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사에 관한 사항, 택지조정의 통합계획 및 설계,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및 설계, 건축물 부설 관리, 시영주택의 분양금 조정 및 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주택과 내에는 주택행정계·주택관리계·주택정비계의 3계가 있다.

2) 주요 업무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집단민원 관리, 위법건축행위 단속, 주택·점포 등 소규모 건축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① 공동주택 안전관리

㉠ 목적 :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곧 도시의 안전관리이므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교정한다.

㉡ 추진 계획

- 대상은 239단지(아파트 58, 연립 1812/65, 974 세대)
- 연 2회 안전점검 실시.
- 주민 요구시 수시점검 실시.
- 점검반 4개반으로 나누어 8명(공무원 4명과 건축사 4명)이 2인 1조로 편성하여 점검 실시.

㉢ 기타 사항 :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소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한다.

② 주택·점포 등 소규모 건축물 관리

㉠ 목적 : 투명하고 발전지향적인 행정으로 위법 시공행위가 근절되어 적법하고 견고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추진 계획 : 연대책임제를 실시한다.

- 실시시기—연중 내내(1월 1일~12월 31일).
- 실시방법—건축물 착공시~사용할 때(신청시 수임건축사와 현장 점검).

㉢ 공무원·건축사 합동 현지 점검(연 2회)

- 1차는 3월 중, 2차는 9월 중.
- 점검 대상—1996년 기간 중 사용 검사된 건축물.

㉣ 조치 사항 : 위반행위 발생시 관계자 행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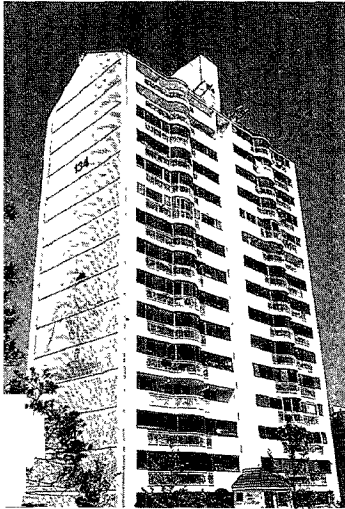


사진 5-21 최신 공법의 고층 아파트.
최적의 주거환경은 균형 잡힌
주택건설계획을 필요로 한다.

표 5-39 주택 현황

연도	구분	합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내 건물주택	비 고
1990		42,023	7,655	24,550	9,408	31	379	
1991		58,593	11,271	33,675	10,647	-	-	
1992		63,690	12,411	36,419	11,502	398	1,960	
1993		77,160	18,791	45,127	12,822	420	-	
1994		80,839	20,367	47,317	13,155	-	-	
1995		86,019	16,156	52,463	16,005	340	1,055	

자료 「안산시통계연보(1996)」

(3) 건축과

1) 개요

건축과에서는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 건축 및 건축물의 방제, 무허가 건물의 단속, 건축사에 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건축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1계·건축2계·건축지도계의 3개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건축과의 주요 사업으로는 감자골도서관 건립 사업과 안산 신도시 2단계 도시설계 용역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주요 사업

‘감자골도서관 건립’ 사업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① 건물 개요

- 위치 : 사동 368-8 외 6필지
- 면적 : 86,800
- 건축면적 : 868.17
- 연면적 : 3351.96
-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② 추진 계획

- 1995년 12월 16일 공원조성계획 실시, 사업인가 완료
- 1996년 12월 완공 예정(1997년 3월 완공 지연)
- 1997년 7월경 개관 예정

③ 기대 효과

완성되면 관산도서관·성포도서관과 함께 안산의 3대 도서관으로서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에게 문화적인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다.

(4) 지적과

1) 개요

지적과에서는 외국인 토지 관리, 취득 업무, 지적장비의 운영·관리, 지적 통계, 토지분할 허가 업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지적공부 보전·관리, 지적 민원처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전·관리, 지도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부지증명 발급 등을 관장한다. 지적과 내에는 토지 관리계·지정계·지적계·부동산관리계의 4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지적과의 주요 업무는 개별토지가격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 관리, 지적민원창구 운영, 부동산 등기과태료 부과·징수, 지적 불부합 토지정리 등 다양하다.

3) 주요 사업

여기서는 ‘개별토지가격 조사’ 사업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① **목적** : 공시지가를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각종 부담금 및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1996년부터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지방세 과표가 ‘토지등급’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공평과세 기틀을 마련한다.

② 추진 방향

- 총 필지 수—79,742 필지
- 조사 필지 수—71,100 필지(89%)
- 표준지수—1427 필지(1.8%)
- 조사 기간—연중 실시
- 경과 공고—연말

③ **기대 효과** : 지가 전산화 추진으로 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고, 지가 심의 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통한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며, 토지가격 확인 및 전산발급으로 민원 편의가 도모된다.

7.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은 1997년 1월 1일자 기구 확대에 따라 중전의 건설과 업무와 교통행정 업무를 한데 묶어 국으로 승격시켜 설립되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업무 전반을 비롯해 도로에 관한 행정, 증장비 관리, 국토 자연자원 보존과 이용,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건설장비 및 업체 동원 등을 관장하며, 또한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관리,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관리, 시내 버스 노선 책정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건설교통국 내에는 건설과·시설공사와 교통행정과의 3과가 설치되어 있다.

(1) 건설과

1) 개요

건설과에서는 건설사업 및 도로 국유재산 관계 업무, 도로시설 보수 업무 등을 처리하며, 건설과 내에는 건설행정계·도로계의 2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공용·공공용 공사(건축·토목) 설계 및 감독, 시설공사 하자 보수, 도로·교량 사업 및 유지·보수·관리,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지도·감독, 도로시설물(지하도·육교 등)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건설과 내에는 건설행정계·도로계·보수계의 3계가 설치되어 있다.

표 5-40 도로시설물 현황

(단위 : 거리 m, /면적 m²)

구분 연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입체시설			가로등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개소	연장	면적	
1990				2	96	710	2	240	3,027	2	1,200	20,000				8,717
1991				2	96	710	2	240	3,027	3	1,200	20,000				8,773
1992	1	30	120	3	210	2,100	2	240	3,027	3	1,200	20,000				8,973
1993	2	50	220	3	210	2,100	2	240	3,027	3	1,200	20,000	2	800	1,600	9,405
1994	3	122	388	3	160	1,437	2	595	8,298	3	1,200	20,000	2	537	8,638	9,981
1995	4	172	688	4	222	1,708	2	595	8,298	3	1,200	20,000	2	537	8,638	10,505

표 5-41 교량 현황

(단위 : 거리 m, /면적 m²)

구분 연도	합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군도				비 고
	계		가 설		사 설		계		가 설		계		가 설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1990	19	1,565	19	1,566			4	141	4	141	15	1,424	15	1,424	
1991	20	1,626	20	1,626			5	202	5	202	15	1,424	15	1,424	
1992	21	1,656	21	1,656			5	202	5	202	16	1,454	16	1,464	
1993	20	1,650	20	1,650			4	181	4	181	16	1,469	16	1,469	
1994	50	3,928.7	50	3,928	19	1,298.1	4	181	4	181	27	2,449.6	27	2,449.6	
1995	55	4,125.7	55	4,125	19	1,298.1	9	378.6	9	378.6	27	2,449.0	27	2,449.0	

(2) 시설공사와

1) 개요

시설공사과는 공용·공공용 공사, 시설공사 하자 보수, 각급 관급자재 수급 및 조달, 도로·교량 사업 및 유지·보수·관리,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적차량 및 설해대책 업무, 그 밖에 시청사의 시설 관리 및 전기·위생·난방·소방·청소 관리, 시청 각 동의 신축 업무 등을 관장한다. 시설공사과 내에는 시설공사계·보수계·영선계의 3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시설공사과의 주요 업무는 시설공사 하자 보수, 소관공사 업무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및 조달, 공사 준공 후 관련 실·과 업무 인수인계, 가로등·보안등 관리, 시청사 시설물의 유지·신설·관리 등이다.

(3) 교통행정과

1) 개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운송 업무, 교통시설·교통지도에 관한 업무, 각종 차량(화물자동차·승용차, 기타) 업무, 여객자동차 및 화물창고업 관련 업무, 교통체계 관리·개선 업무, 교통안전과 도시철도 및 삭도궤도에 관한 업무, 기타 주차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다. 교통행정과 내에는 교통기획계·교통행정계·교통시설계·주차관리계의 4계가 설치되어 있다.

2) 주요 업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 대중교통체계 의 합리적 개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교통법규 위반 차량 관리, 영업제 운영, 이면도로 정비, 공용주차장 시설 확충, 불법주차 단속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3) 주요 사업

여기에서는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만을 설명한다.

① 목적 : 유희공한지 임시주차장을 확충·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난 해소로 시민 편의 도모 및 교통질서의식을 확립한다.

② 사업 개요

• 공영주차장 확충—11개소 9,727m²

표 5-42 주차장 현황

(단위 면적 : m²)

구분 연도	합 계			노 상			노상 외			건축부설물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1994	4,428	32,151	873	62	2,249	26	36	4,124	112	4,330	25,778	735
1995	7,552	79,872	2,127	62	2,249	31	41	5,117	138	7,443	42,506	1,958

- 임시주차장—1개소 5227m², 2백 면
- 개구리주차장—10개소 4500m², 3백 면

③ **추진 계획** : 대상 선정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④ **기대 효과** :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다.

제4절 사업소 행정

본 절에서는 안산시 사업소에 대하여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환경사업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산도서관, 여성회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청소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도시개발지원사업소

① **연혁** : 1992년 6월 1일 안산시 시 규칙 제 282호에 의거 안산시 도시개발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다.

②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산시 신도시 2단계 건설보상 및 이주대책을 위해 관리과,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사업과를 두어 업무를 관장케 하고 있다.

③ 안산시 건설사업 현황

- 위치 :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
- 가구 및 인구 : 1,595동, 2729세대, 7948명
- 개발 면적 : 7,58km²(229만 평)

④ 사업 계획

- 기간 : 1992~98년(7개년간)
- 계획 인구 : 13만 명

⑤ 토지이용계획 : 7.58km² (229만 평 100%)

- 주거지역 : 4.48km² (134만 평 58.6%)
- 상업지역 : 0.63km² (19만 평 8.4%)
- 녹지지역 : 2.50km² (76만 평 33.0%)

⑥ 사업비 : 12,177억 원추정 (보상비 7852억 원, 건설비 4325억 원)

⑦ 개발 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⑧ 업무 분담

- 시 :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입주
- 수공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 분양 업무

(※ 위수탁협약 : 1992년 7월 8일)

(1) 관리과

1) 업무 개요

소관 업무를 총 조정·관리하며 도시계획 특별회계, 예산운영 및 심사 분석,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운영 및 심사·분석, 개발사업 보상에 따른 직접·간접 보상금 지출, 수용 결재 신청 및 협의, 이주대책 등의 업무를 분장케 하고 있다. 이 업무를 분장키 위하여 관리·보상·용지·이주 대책계의 4개 계를 두어 업무를 관장케 하고 있다.

2) 주요 업무

관리과의 주요 업무는 용지 매수, 국공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권 보상, 이주 및 생활안정대책, 안산 신도시 1단계 보상가옥 철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사업인 안산 신도시 1단계 보상가옥 철거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산신도시 1단계 보상가옥 철거사업

① 현황

- 보상가옥 수 : 2589동
- 철거동 수 : 2577동 (99.5%)
- 잔여동 수 : 12동 (초지동 7, 고잔동 4, 사동 1)

② 추진 실태

동절기 이사 등을 고려하여 1997월 3월 한 자진철거 실시.

③ 대책

1997년 3월 31일 이전 자진 이주하며, 만일 철거 불응시 강제철거조치함.

(2) 사업과

1) 업무 개요

아파트 분양 및 사후 하자 관리, 지장가옥과 지장불철거 및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건축물 관리, 관급 제재 수급 관리, 설비공사 설계용역 및 설계 변경, 도시계획, 각종 공공시설물의 시설계획, 기타 건축 및 설비사업을 비롯해 부수적 사무를 총괄케 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분장키 위하여 건축·설비 2개 계를 두어 업무를 관장케 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사업과의 주요 사업은 정부 공영 아파트 건립공사, 고잔지구 공동주택건립사업,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고잔지구 공동주택건립사업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고잔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① 필요성 : 안산 신도시 2단계사업지구에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다.

② 사업 개요

- 위치 : 안산 신도시 건설사업지구 B/L(블럭)
- 면적 : 65,951m²(19,950평)
- 주택규모 : 6m²~85m²(국민주택규모 이하)
- 사업 규모 : 1238세대
- 사업 기간 : 1997년 3월~2000년 10월
- 총사업비 : 91,861백만 원

③ 자원 조달

(단위 : 백만 원)

계	시비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분양선수금
91,861 (100%)	22,4000 (24%)	20,000 (22%)	19,856 (16%)	34,605 (38%)



사진 5-22 고잔별 정비 사업.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고잔별 정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④ 부지 매입 : 총 24,630,588천 원

- 계약금(28.4%) : 7,000,000천 원
- 중도금(31.6%) : 7,778,352천 원
- 잔금(40.0%) : 9,852,236천 원

⑤ 추진 계획

- 1997년 4월 7일~1997년 10월 :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 1997년 12월 : 건설기술심의 신청
- 1998년 9월 : 사업 승인
- 1998년 10월~2000년 10월 : 아파트 공사
- 1999년 3월 : 입주자 모집 공고
- 2000년 10월 : 입주 예정

※ 부지준공전사용검사 : 1998년 3월 예정

⑥ 사업 수지 분석

수 입(A)		지 출(B)		이익금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계	108,120	계	91,861	
분양수익금	108,120	부지매입비	24,630	(A-B) 16,259
(평당분양가 350만 원)		공사비	62,524	
		용역비	3,264	
		기타	1,443	

⑦ 기대 효과 : 이 사업에 의해 공영개발사업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케 되며, 무주택주민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2. 상수도사업소

(1) 연혁

상수도사업소는 안산 시청이 발족한 이래 도시국 수도과에서 업무를 관장해 오다, 기구 증설에 의거 1996년 12월 6일(안산시 규칙 제496호)에 안산시 상수도사업소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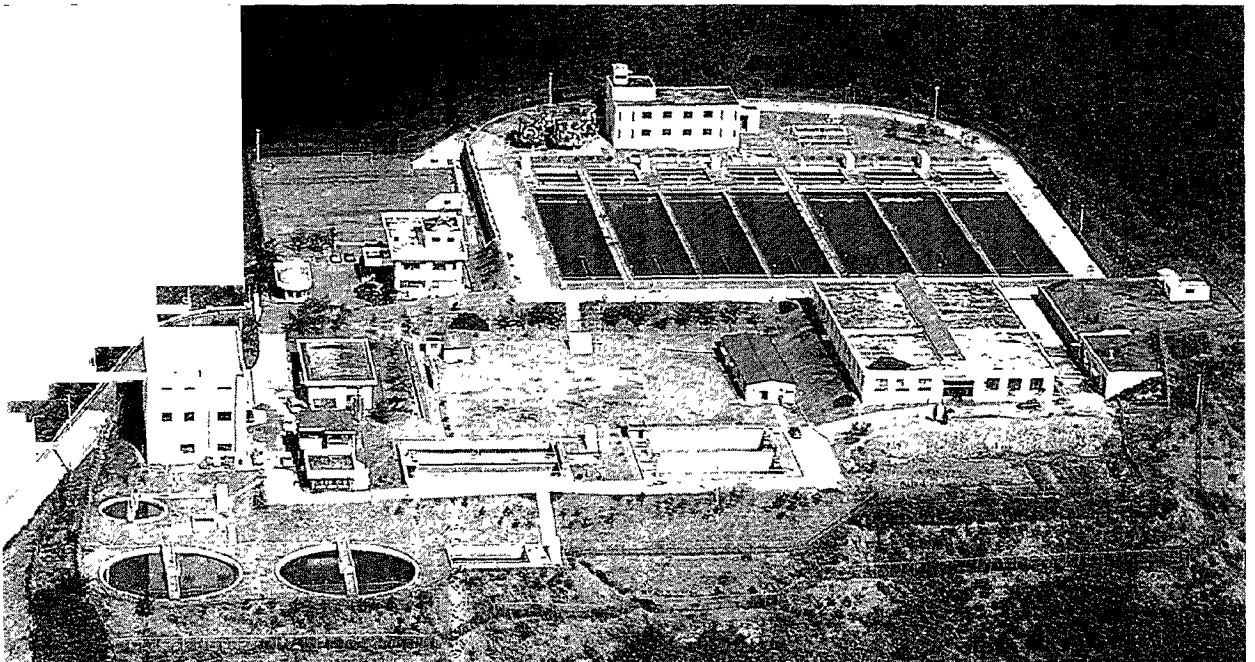
(2) 업무 분장

이 업무를 수행키 위해 업무과·공무과·시설관리과를 두었는데, 업무과는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상수도사업 경영의 종합 관리, 상수도사업용 재산 취득·평가·관리 및 처분, 급수사용료 징수·부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집행·관리, 기타 상수도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공무과는 급수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급수에 관한 기술적 문제 처리, 시설자재·기구·기계의 검사,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송배수관 유지·관리를 관장한다. 그리고 시설관리과는 정수장 시설 운영, 유지 관리원 정수의 가압 및 송수 정수에 관한 업무, 원수와 정수의 수질 시험, 검사 배수지 및 가압펌프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3) 사업 내용(시설 개요 및 내용)

일 시	시설 개요	내 용
80. 08. 03	Q=150,000톤/일	반월정수장 준공(용수 공급 개시)
81. 03. 06	Q=12,000톤/일	생활용수 최초 공급 계약
87. 12. 21	Q=60,000톤/일 ※ 공업용수 건의	안산정수장(광역 3단계) 사업 착공 (전용 공업용수 : 염색단지 60개)
89. 04. 15	Q=60,000톤/일	안산정수장(광역 3단계) 사업 준공
89. 12. 31	Q=40,000톤/일	반월정수장(광역 3단계) 확장사업 준공
92. 07. 31	83천 톤/일 중 30천 톤/일 공급	안산정수장(광역 4단계) 확장사업 통수
92. 08. 25	Q=250천 톤/일 (안산 배분 45.2천 톤/일)	시흥정수장(광역 4단계) 통수
92. 12. 29 현재	Q=83,000톤/일 Q=398,200톤/일	안산정수장(광역4단계) 확장사업 준공 반월정수장 : 190천 톤/일(정수) 안산정수장 : 143천 톤/일 정수 : 83천 톤/일 공업용수 : 60천 톤/일 시흥정수장 : 65.2천 톤/일 정수 : 25.2천 톤/일 공업용수 : 40.4천 톤/일 ※ 광역 5단계 통수시까지 시흥 정수장에서 20천 톤/일 할애

사진 5-23 안산정수장. 안산정수장의
1일 생산능력은 143천 톤/일(정수 83천
톤/일, 공업용수 60천 톤/일)이다.



(4) 주요 사업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사업은 여러 가지이나 당면 사업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로시설공사, 하절기 급수대책, 수도민원봉사처리반 설치·운영, 수질검사 대민순회봉사, 정수장 시민견학계획 등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민이 직접 요망하는 수도민원봉사처리반 설치·운영 사업, 수질검사 대민순회봉사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수도민원봉사처리반 설치·운영

① 목적

수도민원봉사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각종 상수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신뢰받는 지방행정 제고를 기하기 위함이다.

② 추진 개요

- 수도민원봉사처리반 편성(3반 10명) : 급수민원처리반, 누수처리반, 누수탐사반(생활민원봉사)
- 장비 확보 : 기동민원차량 3대(화물 2대, 배스타 1대), 누수탐사장비 : 전자 누수탐지기 외 12종

③ 추진 계획

- 민원 접수 : 상수도사업소(09:00~22:00)
- 처리 방법
 - 사소한 민원사항은 현장 즉시 보수.
 - 가정집 내부배관 누수시 : 누수 지점 탐사하여 수용가 비용 부담으로 수리토록 조치.

④ 기대 효과

수도민원봉사처리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방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게 되며, 누수로 낭비되는 수돗물 방지 및 누수로 인한 요금 과다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수질검사 대민순회봉사

① 목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순회봉사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② 추진 계획

- 공동주택 저수조 및 옥내 수도전(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 대상 : 대형 건물, 공동주택 및 학교 공동급식시설 저수시설
 - 방법 : 지역별 순회검사(2개 반 6명, 주 1회)
 - 항목 : 검사 4개 항목(잔유염도, 냄새, 맛, PH)
 - 추가검사 2개 항목(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 민원인 요청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한다.

③ 기대 효과

- 수질검사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감 해소.
- 정기수질검사 순회서비스 실시로 수돗물에 대한 민원처리 신속 이행.
- 수돗물 생산부터 수용가 공급까지 완벽한 수질관리로 안전성을 제고.

3. 안산시보건소

(1) 연혁

1979. 08. 10. 반월지구출장소 개소와 동시 시흥군보건소 반월지소 개소.
 1986. 01. 01. 안산시보건소 승격과 동시 보건행정계, 방역계 설치.
 1987. 08. 27. 보건소건물신축(현 위치) 준공.
 1987. 11. 25. 안산시 규칙 제97호에 의거 안산시 보건소직제 개편으로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설치.
 1989. 10. 10. 청사 2층 증축(대지 837평, 연면적 354평).
 1990. 06. 14. 안산시 기구 증설로 검사계 신설.
 1993. 04. 01. 보건소장 직급 조정(5급→4급)
 1994. 12. 26. 대부보건소 남동보건진료소 안산시 편입.
 1995. 04. 20. 수암보건지소 안산시 편입.
 1995. 07. 01. 시범보건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계 신설.

(2) 기본 현황

1) 보건소 직원 현황

합 계	소 장	의 사	치 과 의 사	약 사	의료기사			간호직					보 건 직	행 정	고 용 원 기 타
					방사 선기 사	임상 병리 과	치과 위생 과	진료 실	결핵 관리	모자 보건	가족 계획	나 관 리	기 타		
57	1	1	1	1	1	2	1	3	2	1	1	.	6	6	28

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 현황

합 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계	의사	치과 의사	치과 위생 실	통합 보건 요원	진료 보조 원	계	보건 진료 원	마을 건강 원
8	7	1	1	1	2	2	1	1	

자료 : 「안산시통계연보」, 1996. 위 표와 같이 보건소에 57명,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8명 모두 65명이 안산시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의료기관 현황

연 도	합 계		종합병원		병 원		특수병원		의 원		치과	한방	조산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1990	114	250	1	150	1	100			73		27	10	1
1991	149	640	1	150	1	100			95	390	37	14	1
1992	167	769	1	150	1	200			107	419	42	15	
1993	210	730	1	150	1	200			126	380	53	28	
1994	230	1,018	2	356	1	30			134	632	60	33	
1995	274	1,072	2	356	1	52			162	664	72	37	

자료 : 「안산시통계연보」, 1996.

(3) 주요 업무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가족보건계·예방의약계·검사계·복지사업계가 있는데, 보건행정계에서는 보건행정 전반의 관리를 비롯해 장비·비품의 관리 및 일반업무, 예산운영 및 전도금 관리 등 모든 보건행정을 관리하며, 가족보건계에서는 모자보건·학교보건, 가족계획, 국민영양실태 파악, 주민건강 관리, 영·육아 관리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 수립, 방역기구 및 약품 관리, 급성전염병환자 관리, 급·만성 전염병에 관한 사항, 음료수 소독 및 관리,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 상황 파악, 마약사범과 양속경작 단속, 무허가 부정의약품업자 단속·고발, 기생충 관리, 나병 및 성병 환자 관리·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또한 검사계에서는 각종 질병 검사(결핵 검사, x-레이 촬영, 임질·매독 등 성병 검사, 기생충 검사, 일본뇌염 검사, 간염 검사, AIDS 검사 등), 노인건강 관리, 모자보건 및 여러 가지 질병의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복지사업계에서는 생활보호 관련 업무, 아동·노인·장애인·모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복지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사진 5-24 안산시보건소 청사. 1987 8월 신축하였고, 1989년 10월 현 위치에서 2층으로 증축하였다.



사진 5-25 안산시보건소 진료실.
안산시민의 건강관리와 치료, 그리고
예방의학과 정신보건에 힘쓰고 있다.

(4) 주요 사업

보건소의 주요 사업으로 일차진료실 운영, 보건소 청사 이전 공사,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방문보건사업, 조기 암 발견 홍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전염병예방대책, 의·약업소 지도·관리 검사업무추진사업, 시범복지사무소 특별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추진,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시범복지사무소 특별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특별사업

① 필요성

경제적·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요보호대상자에게 특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훈훈한 이웃의 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갖도록 하며, 보다 나은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② 사업 개요

- 소요 예산 : 28,804천 원(국비 23,043천 원, 도비 5,761천 원)
- 사업 내역 : 노인복지사업(4개 사업), 아동복지사업(1개 사업), 일반복지사업(2개사업)

③ 추진 계획

㉑ 노인복지사업

- 독거노인 일일건강체크 방문사업
 - 기간 및 대상 : 연중, 생활보호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170명
 - 추진 사항 : 1일 야쿠르트 1개씩 지급
- 생활보호노인 효도관광
 - 일시 및 대상 : 5월 중, 125명(생활보호노인 65세 이상)
 - 장소 : 추후 결정
- 홀로 사는 노인 생신축하사업
 - 기간 및 대상 : 연중, 생보노인 219명
 - 추진 사항 : 거택보호노인 중 독거노인 생신일(생신일에 케이크 전달)
- 생활보호노인 영정사진 촬영
 - 기간 및 대상 : 연 2회, 생보대상독거노인 30명(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㉒ 아동복지사업

- 저소득층자녀 학습견학
 - 기간 및 대상 : 연 1회(방학중), 생활보호대상 자녀(초, 중학생), 소년소

내가장(초, 중학생), 모자가정 자녀(초, 중학생)

㉡ 일반 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하카드 발송
 - 기간 및 대상 : 연중, 1496명
 - 추진 사항 : 생보대상자 세대주 및 배우자, 소년소녀 가장
-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
 - 기간 및 대상 : 연중, 20명
 - 추진 사항 : 사망시 30만 원 장제비 지원

④ 기대 효과

소외되어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특수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요보호대상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 근로청소년복지회관

(1) 연혁

- 1981. 03. 10. 대통령 분부에 의하여 설립.
- 1984. 09. 29.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착공.
- 1985. 06. 08.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준공.
- 1985. 09. 17.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개관.
- 1986. 01. 01. 안산시 규칙 제39호 업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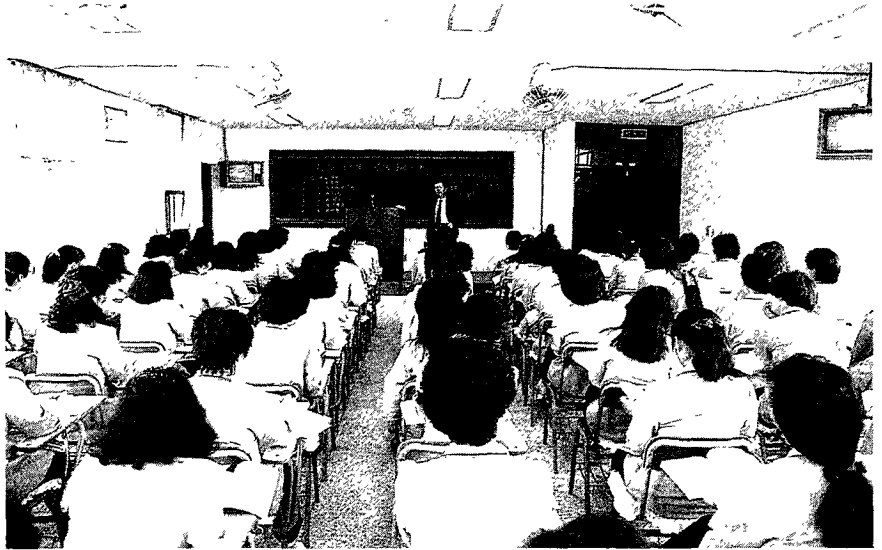
(2) 기본 현황

- 기구 : 2계 1실 15명
- 규모 : 대지 4152m²(1,256평), 건물 2177m²(618평)
- 교육기재 : 영사기 외 23종(수량 178대)

(3) 업무 분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직업관 정립을 공고히 하고 건전한 시민 자질의 배양을 위하여 도덕·윤리·일반기술·취미생활 등의 단기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의 안산 시민의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해 일반교양교육, 정서함양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후생복지시설을 제공하

사진 5-26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육.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 직업관 정립,
자질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 있다. 주요 업무로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종합 행정, 피교육생 관리·지도, 복지시설·교재 및 이용시설 관리, 근로청소년의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 업무를 관장기 위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안에 서무계·교육계·상담실의 2계 1실을 두고 있다.

(4) 주요 사업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교양교육·정서함양교육(취미교육, 그룹활동교육, 소양교육), 근로자연찬회 운영, 외국어강좌교실 운영, 직장여성교양대학 운영, 상담실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교육이수자 다짐의 밤 및 작품발표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 시책 사업 : 우리춤교실 운영(탈춤·국악·민요)

① 목적

근로청소년에게 건전한 우리 문화를 익히게 하여 밝고 명량한 놀이문화와 생활습관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탈선 예방 및 직장생활에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키 위함이다.

② 추진 방법

- 방학기간 중 건전놀이마당 운영
- 리더십 획득
- 바람직한 인간관계 및 적극적·다각적 사고방식 유도.
- 전문가를 초빙해 지도.

③ 추진 계획

- 기간 : 연중 일정 결정(여름철 19 : 00~21 : 00)
- 대상 및 인원 : 근로청소년 및 직장인(희망자), 30명(1주일간)
- 내용 : 우리춤 이론과 실제, 우리가락 및 탈춤 기법
- 강사 : 전문가 초빙

④ 기대 효과

근로청소년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 환경사업소

(1) 연혁

- 1997. 11. 28. 사업 승인(건설부).
- 1981. 12. 29. 하수처리장 착공.
- 1986. 08. 06. 조례 공포.
- 1986. 08. 07. 조례(직제) 공포(정원 35명).
- 1986. 11. 07. 사업소 개소.
- 1987. 02. 28. 준공 및 운영.
- 1991. 11. 18. 직제 증원(정원 45명).
- 1992. 09. 15. 직제 증원(정원 52명).
- 1994. 01. 03. 환경사업소로 명칭 변경.
- 1994. 04. 20. 직제 증원(정원 54명).

(2) 기본 현황

- 부지 면적 : 164,025m²(49,617평)
- 건물, 구조물 : 27동 11,783m²(3564평)
- 인원 현황 : 2계(관리, 기술계), 51명의 공무원
- 처리 능력 : 총 179,000m³/일(공장폐수 119,000m³/일, 가정하수 60,000m³/일)
- 처리 방법 : 요준활성왜법
- 방류수질 기준(현수질) : B.O.D=20PPM(38), C.O.D=40PPM(52), O.S.S=20PPM(36)

※ 1995년 8월 23일부터 시흥시 환경사업소 전량 이송, 2차 처리 후(20PPM 정도) 방류.

(3) 업무 분장

환경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만월공단 폐수와 안산시 가정하수를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질을 정화(하수처리)·개선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의 증설·보수 및 유지·관리, 환경사업소의 모든 행정행위 관장, 하수처리장의 각종 시설물 증설·보수 및 유지·관리, 수질시험, 공해방지, 수질개선방법 연구, 각종 시험기재 및 약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환경사업소 내에 관리계·기술계 2계를 두어 업무를 관장케 하고 있다.

(4) 주요 사업

환경사업소의 주요 사업은 발생 하수의 완벽한 처리와 수질 보전,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 그리고 전직원 하수처리기술 함양, 2차처리시설 운영 준비 철저이다.

특수 시책 사업 : 안산시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① 현황

- 위치 : 안산시 성곡동 621
- 부지 면적 : 164,717m²(49,827평)
- 처리 면적 : 2863ha
- 하수 처리 방법 : 표준 활성 슬러지법
- 규모 : 용량 385천 톤/일
- 기간 : 1993년~97년(4년간)

②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기존시설		1시설	
목표 연도				1999년	
투자 계획		17,100백만 원		101,303백만 원	
처리 면적		2,360ha		2,863ha	
처리 인구		267,000명		554,000명	
처리 용량		121천 톤/일		385천 톤/일	
(톤/일)	생활	47천 톤/일		179천 톤/일	
	공장	74천 톤/일		206천 톤/일	
방류 수질 (mg/l)		생활	공장	생활	공장
	B.O.D	150	150	13	20
	S.S	150	150	1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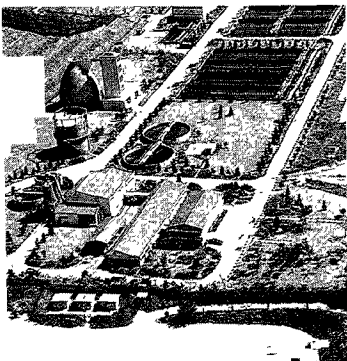


사진 5-27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1일 385천 톤의
오수를 깨끗한 물로 처리하게 된다.

③ 기대 효과

시화방조제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용 담수호의 수질을 보전케 되고, 수질오염 방지 및 수중생태계 기초환경을 개선·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중보건위생의 향상 및 도시생활환경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토지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6.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 건립 경위(연혁)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후대에 영원히 전승·기념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1989년 12월 30일 다목적 시설로 착공, 1992년 5월 7일 개관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2) 기본 현황

① 시설 개요

- 위치 : 안산시 고잔동 604
- 규모 : 부지 12,786평, 건축 연면적 4,950평
- 생활관(지하 1층, 지상 3층) 3273m²(990평)/체육관(1092석) 4674m²(144평)
- 지하경기장(탁구장) 621m²(188평)/공연장(522석) 2489m²(753평)
- 수영장(50M×10레인) 5306m²(1605평)/야외공연장 1320m²(400평)
- 야외주차장 3개소(200대)/테니스 코트 1632m²(49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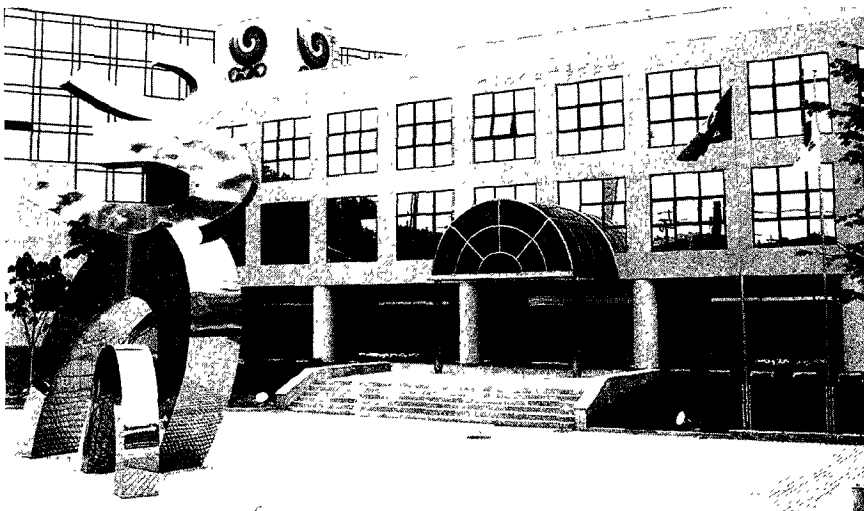


사진 5-28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조형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동시에 안산 시의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건립되었다.

② 행정 조직

- 공무원 수 : 25명 (일반직 3, 별정직 2, 기능직 9명, 고용직(일용) 11명)

(3) 업무 분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업무는 88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국민의 성원에 보답키 위하여 건립된 국민생활관이기에 그 업무도 다양하다. 국민생활관의 모든 행사와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각종 시설물(공연장, 각 경기장, 수영장, 연주장)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 청소년의 정서 함양, 유아실·취미교실, 도서실 운영·지도, 기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이 사업을 위하여 관리계 1계를 두고 있다.

(4) 주요 업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주요 업무는 각종 시설물 운영의 내실화, 스포츠 및 취미교실 운영, 한글교실 운영, 야외결혼식장 운영 등인데, 이 중 ‘야외결혼식장 운영’과 ‘한글교실 운영’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야외결혼식장 운영

① 필요성

시민에게 야외결혼식장을 개방하여 허례허식을 추방하고 검소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② 현황

- 면적 및 수용 인원 : 660m²(200평), 500명

③ 운영 계획

- 운영 기간 : 연중 실시(특히 4, 5, 9, 10월 토·일요일)
- 장소 :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앞 야외무대
- 대상 및 사용료 : 시민 누구나(희망자), 무료(결혼집기 일체, 드레스)

④ 기대 효과

검소한 결혼문화의 조성과 아울러 문화시설 공간의 적극 활용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케 된다.

2) 한글교실 운영

① 필요성

문맹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긍심을 함양시켜 주고, 문맹으로 고심

하는 부녀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해 준다.

② 추진 방법

- 후발 선진국으로서 문맹자 퇴치를 위한 기본교육 중심으로 운영.
-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위촉 내실 있게 운영.

③ 운영 방법

- 기간 및 장소 : 연중, 국민생활관 2층(한글교실 24평)
- 대상 및 인원 : 문맹자 노인 및 주부, 150명
- 운영 방법 : 초급·중급 2개반 교육
- 강사 : 외부강사 초빙

④ 기대 효과

문맹으로 고심하는 문맹 노인·부녀자에게 문명의 혜택을 받게 함과 아울러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한다.



사진 5-29 국민생활관의 한글교실.
문맹으로 고심하는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 관산도서관

(1) 연혁

- 1991. 03. 30. 관산공공도서관 설계 완료.
- 1991. 10. 18. 관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건설부).
- 1991. 11. 08. 건설기술심의 의결(경기도).
- 1991. 11. 15.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1991. 12. 30. 공사 착공(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130평).
- 1992. 12. 29. 안산시 관산도서관 설치 조례 공포(제475호).
- 1993. 03. 25. 관산도서관 설치 조례에 의거 직원 18명 배치.
- 1993. 04. 09. 공사 완공.
- 1993. 07. 30. 관산도서관 개관.

(2) 기본 현황

- 공무원 수 : 2계(관리계, 사서열람계) 16명(일반직 7명, 기능직 9명)
- 대지 : 6910m²(2090평)
- 건물 : 3,737.5m²(1130평)
- 구조 :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 주요 설치 내용 : 28실, 1100석(표 5-41 참조)
- 도서자료보유 현황 : 도서 51,580권, 비도서 745종 1350개(표 5-42 참조)



사진 5-30 관산도서관 개관.
1993년 7월 30일 지하 1층 지상 3층,
28실 1,100석 규모로 개관하였다.

표 5-43 관산도서관 주요 설치 내용

구 분	실 별	좌석 수	비 고
계	28	1,100	
참고자료실	1	24	1층
정기간행물실	1	18	1층
장애자열람실	1	24	1층
주부, 어린이열람실	1	87	1층
사무실	2	-	1층(관리계·사서열람계)
당직실	1	-	1층
학생열람실	2	424	지하 1층(124석), 3층(30석)
일반자료실	1	99	2층
시청각실	1	100	2층
소회의실	1	20	2층
컴퓨터실	1	-	1층
휴게실	2	-	2층(35석), 3층(26석)
일반인열람실	1	304	3층
식당	1	-	지하 1층(72석)
기계보일러실	1	-	지하 1층
전기실	1	-	지하 1층
기타	8	-	창고 외 7실

표 5-44 관산도서관 도서자료 보유 현황(도서 51,580권)

주제별 실별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51,580	2,918	2,503	1,719	8,711	2,779	4,269	2,320	1,441	18,325	3,867
일반 열람실	33,077	1,514	2,266	1,254	6,450	1,044	3,133	1,456	1,030	13,109	1,821
참고 열람실	5,167	784	70	163	1,238	168	751	683	282	177	851
주부·어 린이교실	10,608	620	167	302	1,023	1,567	385	181	129	5,039	1,195

참고 : 정리 중인 도서 총 2,728권

표 5-45 관산도서관 도서자료 보유 현황(비도서 745종 1,350개)

유별 계	계	정기간행물		수험 정보 자료	계	시청각자료		
		신문	잡지			비디오	음반자료	어학자료
745종 1,350개	375종	35종	301종	39종	370종 1350개	101종 575개	167종 575개	102종 598개

(3) 업무 분장

관산도서관의 업무는 행정사무의 총괄, 각종 자재·장서의 관리, 도서 열람 및 자료실 운영, 도서 대출, 순회이동문고 운영 등 주민의 독서열고취와 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전 시민의 참여와 학생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계와 사서열람계를 두고 있다.

(4) 주요 업무

관산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독서운동 적극 추진, 독학학습센터 운영, 어학 강좌 실시, 성포도서관 및 감자골도서관 건립 등인데, 이 중 ‘독학학습센터 운영’과 ‘어학강좌 실시’를 소개하기로 한다.

1) 독학학습센터 운영

① 목적

평생교육이념의 구현과 개인의 자아 실현, 그리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학취득제도를 활성화하여 배움의 기회를 시민에게 널리 확대하기 위함이다.

② 추진 방침

- 독학회원을 위한 수험정보자료 확보.
-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교재 관리·대출.
- 분기별 모임을 통한 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 수렴.

③ 추진 계획

- 간담회 실시 : 정보교환 및 건의사항 수렴(1회).
- 학위 취득 : 방송통신대생 위주 독학생.
- 독학학습자료 보완·구입 : 500권 정도.
- 회원관리 및 모집 확대 : 홍보매체 이용(유선방송, 지역신문).
- 신속·정확한 학습정보 제공 : 제도안내서 및 학습안내서.
- 각 과별 스터디 그룹 결성 유도 : 12학과.
- 학위 취득을 위한 각종 안내 및 상담.

④ 기대 효과

이 학습센터 운영으로 평생교육이념의 구현과 아울러 시민에게 폭넓게 교육 기회를 제공케 되며, 개인의 자아 성취 및 국가사회의 인재 양성에 기여케 되는 효과를 갖는다.

2) 어학강좌 실시

① 목적

국제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어학 능력 배양과 각종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키 위함이다.

② 추진 방법

국제화 시대에의 적응을 위한 어학능력 배양과 아울러 어학교육을 통하여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소양을 키운다.

③ 추진 계획(영어회화 ‘초급’ 강좌)

- 기간 : 12주간(주 4회—화~금/1일 2시간—13:00~15:00)
- 장소 및 교육인원 : 시청각실, 100명(A, B반 각 50명)
- 강사 : 브렌다, 메이클라(임청일어학원)

④ 기대 효과

이 어학강좌 실시로 시민의 어학능력이 배양되고 각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조성되며, 아울러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8. 안산시여성회관

(1) 연혁

- 1992. 08. 24. 안산시여성회관 착공.
- 1993. 11. 18. 안산시여성회관 설치조례 공포(조례 제508호).
- 1993. 11. 23. 안산시여성회관 준공.
- 1993. 12. 01. 안산시여성회관 직제규칙 공포(규칙 제370호).
- 1994. 03. 04. 안산시여성회관 운영조례 공포(조례 제533호).
- 1994. 03. 28. 1994년 제1기 여성회관 교육 개강.

(2) 기본 현황

- 공무원 수 : 1계 15명(별정 6, 행정 5, 기능 4)
- 위치 : 안산시 고잔동 525번지

표 5-46 여성회관 시설 내용(총 1,298평)

(단위 : 평)

층별	면적	시설 내용
4층	240	대강당, 미용실, 예절교육실, 서고 등
3층	240	조리실(제과제빵), 피부미용실, 컴퓨터실, 어학실(영어, 일어), 꽃꽂이실(한지공예), 홈페이지실(한복실), 자료실
2층	240	미용실, 서예실(한글, 한문), 사진실(비디오촬영), 양재실, 도배실, 휴게실, 관장실 및 강사대기실, 상담실
1층	240	사무실, 강의실(전시실), 유아실, 로비, 여성단체협의회실
지하	338	지하주차장,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사진 5-31 여성회관 개관 테이프 커팅.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부지 : 1,848,9m²(559평)
- 건물구조 : 지하 1층 지상 4층 44,291m²(1298평), 철근 콘크리트
- 기본시설 : 11개소(사무실, 유아실, 기계실 등)
- 교육시설 : 12개소(미용실, 서예실, 컴퓨터실, 미용실 등)

(3) 업무 분장

여성회관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교양 교육, 적극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부업교육 등을 실시하며, 취업알선 및 고충상담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 지도에 힘쓴다.

또한 수강생 자녀를 위한 유아실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리계 1계를 두고 있다.

(4) 주요 업무

기술 및 취미교육과정 운영, 교양 및 부업교육과정 운영, 단기교육과정 운영, 야간교육 개설 등을 비롯해 편의시설 이용 사업, 수강생 기능 자원봉사 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단기교육과정 운영’과 ‘교양 및 부업교육과정 운영’을 소개한다.

1) 단기교육과정 운영

① 목적

여성을 위한 각종 생활기술 및 정보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함에 있다.

② 추진 방침

수강생을 포함한 일반 여성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생활기술 및 정보 습득을 위한 폭넓은 교육을 실시한다.

③ 추진 계획(연간 계획-6개 과정 495명)

- 자동차 자가정비교육 : 2회 100명
- 예절교양교실 : 2회 60명
- 노래교실 : 2회 200명
- 어머니글짓기교실 : 2회 60명
- 출장요리반교육 : 2회 50명
- 비디오촬영기법 : 1회 25명

④ 기대 효과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정보 습득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여가 선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2) 교양 및 부업교육과정 운영

① 목적

교양 및 부업교육과정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교육으로서, 각종 교육으로 사회 적응력 배양 및 시민의식 함양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추진 방침

저소득층을 위한 부업교육을 주제로 하여 실시하며, 현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의식 제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③ 추진 계획(연간 5개 과정 2680명)

- 수강생 교양교육 : 2회 1천 명
- 생활예절교육 : 2회 1천5백 명
- 간병인(看病人) 양성교육 : 1회 30명
- 파출부교육 : 2회 1백 명
- 옷수선교육 : 2회 50명

※ 교양교육교제 발간 : 3천 부

④ 기대 효과

‘교양 및 부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경제현장에 맞는 문화시민을 배출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진 5-32 여성회관 교양 및 부업교육.

9.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1) 연혁

1985. 09. 11.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선정.
 1989. 06. 10.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보고(시장-도지사).
 1994. 02. 28.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착공.
 1996. 01. 01.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개소('97년 12월 31일 한시적).

(2) 기본 현황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는 2계(관리계·운영계)에 공무원 17명(일반직 11명, 기능직 6명), 청원경찰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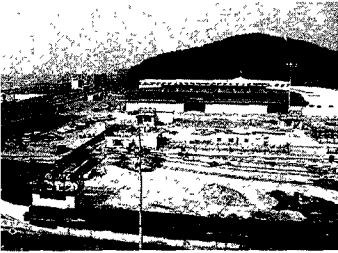
1)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황

- 위치 : 안산시 이동 528번지(한대역 앞)
- 규모 : 부지면적 42,497.47m²(12,856평), 건축면적 19,987.6m²(6,046평)
- 사업비 : 21,227백만 원
- 사업 기간 : 1994년 2월 28일~1996년 10월 30일
- 시설 현황 : 8동 6046평(표 5-47 참조)

표 5-47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황(8동 6,046평)

시설명	동수	규 모(층)	면적(평)	내 용
청과동	1	지하 1, 지상 3	2,180	경매장(1,268), 법인사무실(135), 중도매인 합동사무실(1,160), 저온창고(128), 기계실 및 기타(533)
수산동	1	지하 1, 지상 2	1,964	경매장(912), 법인사무실(212), 중도매인 합동사무실(52), 냉장실(161), 제빙·저빙실(96), 기타(5,310)
농수산물 관련동	1	지하 1	1,090	관련 상품 및 가공식품 점포(854), 공조실 및 기타(236)
관리동	1	지하 1, 지상 2	695	대회의실(83), 사무실(86), 식당(82), 축산물직매장(82), 은행(80), 창고(80), 기타 편의시설 부속업소(202)
폐수처리장	1	지하 1, 지상 1	94	폐수처리장(78), 관리실(8), 기타(8)
기타 시설	3	지상 1	23	수위실(2개소), 공중화장실(13)

참고 : 채소경매장 323평(수산동과 폐수처리장 사이 공간—옥외)/주차장 : 556평(대형 62, 소형 484, 장애자용 10)



진 5-33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등 6046평의 도매시장건설이 완료되어
 일 383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2) 추진 계획

① 공사 분야

- 1985. 09. 11. 도매시장 부지 선정(건설부 고시 399호).
- 1988. 06. 10. 도매시장 건설계획 보고(안산시장 → 경기도지사).
- 1990. 09. 03. 도매시장 기본계획 조사 용역(한국산업개발연구원).
- 1992. 09. 02. ~1993. 11. 13.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 1993. 12. 2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 1994. 02. 28. 도매시장 신축공사 착공(<주>정방 외 2개 업체).
- 1996. 01. 15. 건축시공회사 부도 발생(<주>정방).
- 1996. 06. 17. 연대보증인 입보(한풍종합건설<주>).
- 1996. 07. 19. 도매시장 신축공사 재착공(한풍종합건설<주>).
- 1996. 12. 21. 건축시공회사 부도 발생(한풍종합건설<주>).

② 운영 분야

- 1995. 02. 20. 도매시장 사업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 1995. 06. 08.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정.
- 1995. 06. 26.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공판장 입주 대상 통보.
- 1995. 10. 3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허가(도).
- 1995. 12. 06. 도매시장 법인 지정서 교부(안산수산).
 ※ 지정서 교부 유보 : 안산국제청과(주)
- 1995. 12. 29.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판장 개설 허가 승인(도).
- 1996. 02. 23. 행정심판(의무 이행) 청구(도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 안산국제청과(주)
- 1996. 05. 23. 행정심판 결과 인용 재결.

10. 청소사업소

(1) 연혁

당초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안산시의 인구 증가로 청소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자 별도의 청소사업소를 신설·운영케 되었다. 1996년 12월 6일(안산시 규칙 제 498호)로 공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안산시 청소사업소를 발족하여 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46명(일반직 19명, 기능직 14명, 고용 10명, 청원경찰 3명).

(2) 기본 현황(청소 현황)**1)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 발생량 : 420톤/1일(음식물 140, 재활용 140, 잡쓰레기 140)
- 처리량 : 420톤/1일(매립 280, 재활용 135, 기타 5)

2) 지역 쓰레기 처리 장비 및 인력 현황

항 목	장 비	인 력	비 고
가로청소(시직영)	흡입차 5대 손수레 180대	275명	총 도로 연장 : 527.1km
생활계폐기물처리 (8개 대행업체)	청소차 71대	286명	시 대행
수도권매립지운송 (1개 업체)	11톤 암물트럭 15대 페이로다 1대	26명	시 대행
사업장 내 폐기물 (17개 업체)	청소차 71대	171명	독립채산제
중간처리업 (소각시설)	소각로 1일 총 516톤 처리 규모	132명	독립채산제
오수·분뇨 처리 (6개 업체)	분뇨차 12대	36명	독립채산제

3) 쓰레기 처리 시설 현황**① 쓰레기 적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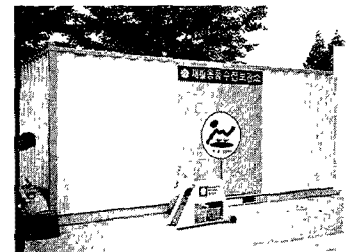
- 부지 면적 : 3,000m²(907평) • 시설 면적 : 570m²(172평)
- 압축 능력 : 600톤/일 • 운영 인력 : 27명

② 쓰레기 매립장

- 위치 : 안산시 본오동 665-55번지
- 부지 면적 : 491,953m²(148,845평)
- 매립 면적 : 447,675m²(135,146평)
- 매립 기간 : 89. 01. 04~92. 02. 09
- 폐쇄일(사용종료일) : 1994. 12. 31
- 주요 시설 : 방조제 1697m, 배수갑문 1개소, 배수로 2440m, 침출수 펌프장 2개소(240톤/일)

③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 면적 : 1천 평(창고 560평, 부대시설 70평, 교육장 70평)
- 총사업비 : 1040백만 원
- 1일 처리량 및 운영 인력 : 약 45톤, 62명

**사진 5-34 재활용품 수집 보관소.**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에서 골라낸 재활용품들을 보관한다.

④ 수도권매립지(인천광역시 서구 검안·검단동)

㉞ 사업 개요

- 부지 면적 및 매립 용량 : 2,075만 m^2 (627만평), 40,962만 m^2 (275,080천 톤)
- 사업 기간 : 1989. 09~2015. 12(약 25년간 사용 예정)
- 사업비 : 187,833백만 원(1988년 기준)
- 사업 추진 : 5개 공구별 구분 단계별 시행

㉟ 폐기물 반입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25개 구), 인천광역시 전 지역(9개 구·군), 경기도 17개 시 4개 군

㊱ 폐기물 반입수수료

구 분	반입수수료				비 고
	1993년	1994~95년	1996년	1997년	
가정계	5,100	5,500	8,290	17,179	
다량(자가 신고)	8,000	8,700	14,470	20,196	
건설폐재류	8,000	8,000	14,470	14,470	
사업계 다량	8,000	8,000	14,470	20,196	
열경화성 고분자화합물		12,000	21,600	21,600	
상하수 오니하수 준설토	6,500	7,000	16,536	20,196	
산업계 다량	29,000	29,000	58,146	84,936	

표 5-48 정화조 관련 업체

구 분	소재지	업소명	대표자	등록일	전화번호
정화조 설계시공업	안산시 신길동 3-9	성심정화조	이송배	85. 07. 24	491-5322
	안산시 고잔동 530-31	반석정화조	김영돌	87. 10. 14	401-9997
	안산시 고잔동 539-3	(주)반도건설	정종수	92. 04. 10	410-0050
	안산시 부곡동 685-11	(주)원진건설	신호린	92. 09. 14	416-8496
	안산시 고잔동 540-8	(주)하나산업	김영배	96. 04. 12	403-6170
	안산시 목내동 434-2	동아제약(주)	유충식	96. 04. 24	495-0855
	안산시 고잔동 520-3	해동종합건설(주)	유금상	96. 06. 05	83-8580
축산폐수설 계시공업	안산시 고잔동 520-3	해동종합건설(주)	유금상	95. 08. 18	83-8580
	안산시 목내동 434-2	동아제약(주)	유충식	96. 04. 24	495-0855
정화조 청소업	안산시 본오동 665-55	성호산업(주)	최현준	95. 02. 08	82-0234
	안산시 원곡동 741-5	원진개발(주)	원규상	95. 02. 08	494-3731
	안산시 사동 1486-10	경진정화산업(주)	김봉식	95. 02. 08	418-3883
	안산시 본오동 878-10	(주)안산환경	홍대선	95. 02. 08	407-7500
	인산시 원곡동 741-5	서진정화조	이창순	95. 02. 08	83-3256
	안산시 건전동 894-10	성진환경	임명희	95. 03. 15	80-5806
	안산시 북동 1848-128	(주)대부환경	채택웅	95. 11. 06	032)883-4496~7
	안산시 수암동 427-18	우성환경	안봉순	96. 03. 29	85-9911



사진 5-35 청소사업소 재활용품판매장
“아직도 길에 돈을 버리십니까?”
가전제품·가구 등을 열가판매한다

(3) 업무 분장

청소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가로 청소 및 환경 관리, 적환장 운영,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공중변소 관리, 자원재활용 관리, 음식쓰레기 처리, 소각장·매립장 관리, 중간처리장 허가·신고 업무 등을 관장하며, 이를 위하여 5개 계를 두어 관장한다.

11. 안산시노동복지회관

(1) 연혁

- 1989. 04. 25. 노동복지회관 사업계획 확정.
- 1991. 07. 14. 노동복지회관 공사 착공.
- 1992. 10. 15. 노동복지회관 설치조례 공포(안산시 조례 제463호).
- 1992. 10. 15. 노동복지회관 공사 준공.
- 1992. 11. 27.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공포(안산시 조례 제470호)
- 1993. 02. 16. 노동복지회관 개관.

(2) 기본 현황

① 시설 규모

- 위치 :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4리 601호
- 대지 : 1,990m²(600평)

사진 5-36 노동복지회관. 1992년 10월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회관이
준공되어 선진 노동복지 사대를 열었다.



- 건축 연면적 : 2,051m²(620평)
- 건축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② 주요 시설

- 지하 1층 : 구내식당, 기계실
- 지상 1층 : 구판장, 사무실, 관리실, 휴게실
- 지상 2층 : 2층 사무실(금속지부, 화학본부, 상담실), 독서실, 강의실
- 지상 3층 : 대회의실(예식장), 귀빈실, 대기실, 신랑·신부 대기실, 폐백실, 음향실, 휴게실
- 지상 4층 : 체육실

③ 투자사업비 :

- 총 1,122,533천 원(국비 277,666천 원/시비 844,887천 원)

④ 운영 현황

- 시설 운영 : 노동복지회관 직영
- 직원 현황 : 10명(일반직 2, 기능직 5, 기타 3)

(3) 업무 분장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산업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업무 내용은 건전한 노조활동 및 근로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집회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구판사업 및 예식장 사업, 기타 근로자를 위한 제반 사업을 관장한다.

12. 차량등록사업소

(1) 연혁

- 1992. 11. 01. 차량등록업무 개시(시민과).
- 1996. 01. 12.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공포).
- 1996. 02. 05.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내 사무소 설치.

(2) 기본 현황

- ① 청사 규모 : 사무실 89평, 주차장 469평(주차 능력 80대)
 - ② 창구 수 : 15개 창구, 29명
 - 차량등록사업소 : 8개 창구, 18명
 - 세무과 · 징수과 : 4개 창구, 5명
 - 농협 : 3개 창구, 3명
 - 번호판 교부 대행 설치 : 1개 창구, 3명
 - ③ 공무원 현황 : 18명(일반직 6명, 기능직 6명, 기타직 6명)
 - ④ 자동차등록 현황(총 차량 수 127,496대)
 - 승용차 94,299대 • 승합차 9496대
 - 화물차 23,533대 • 특수차 195대
- ※ 자동차 연평균 증가율 : 17%(전년 대비 : 15%)



사진 5-37 차량등록사업소 창구 업무

(3) 주요 업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다음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 신규등록업무
- 이전등록업무
- 말소등록업무
- 변경등록업무
- 저당등록업무
- 압류등록업무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검사
- 책임보험관리
- 자가용자동차 사용 신고

제5절 동행정

여기에서는 안산시 23개 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 순서는 우선 동사무소의 연혁, 지역 특성, 기본 현황을 소개한 후, 각 동의 특수 시책 하나씩만 소개하기로 한다. 현황은 「안산시통계연보」와 각 동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1. 일동

(1) 연혁

- 1979. 08. 이전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의 한적한 농어촌 지역.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와 함께 반월지소 업무 관장.
- 1986. 01. 01.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시 승격과 함께 반월동 개소.
- 1991. 11. 18.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조례 제416호 분동.

(2) 지역 특성

일동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된 전원주택지역으로서 시 면적의 3.55%인 514km²(안산시 144,729km²)를 차지하고 있으나 거주 시민의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안산-군포간 전철을 경계로 본오동과 접하고 있고, 관할구역인 일동과 이동 사이에 46번 국도(수인산업도로)로 양분되어 있는 지역이다.

(3) 기본 현황

일동의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3.55%(?)인 5.14km²로, 12,162세대 34,370명(남자 17,860명/여자 16,51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 18명이 1인당 관장하는 주민 수는 1870명이다.

행정조직은 48통 165반으로 초등학교 2개교, 대학교 1개교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복지관 1개소, 경로당 6개소, 어린이집 1개소 등 모두 8개소의 복지 시설이 있다. 지역방위조직은 예비군 3583명, 민방위 4868명 합계 854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7가구 35명의 거택보호자, 그리고 31가구 73명의 자활보호자가 있다.

(4) 주요 업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생활개혁 적극 추진, 도시환경 정비), 국민숙원사업의 적극 해결, 친절하고 친숙한 동정 운영, 지역안전과 주민화합 구현,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주민 불편 건의사항 적극 해소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구룡체육관 무료 개방

1) 필요성

관내에 건립된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친근한 관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주민본위의 지방행정을 실현한다.

2) 방침

- 예식장·연회장 등 일부 목적에 한해 무료 개방.
- 생계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개방 원칙.
-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과 연계 추진.

3) 기대 효과

민관의 화합을 통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시설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2. 사1동

(1) 연혁

1986. 01. 01. 안산시 승격과 동시에 반월동사무소에서 관할.
 1991. 11. 18. 반월동에서 분동된 본오동에서 관할.
 1993. 12. 01. 본오동에서 분동되어 사동으로 개칭.
 1996. 01. 22. 사1동, 사2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름.

(2) 지역 특성

대단위 아파트 단지과 다가구주택의 병존 지역으로 사리포구가 관할구역 내에 있으며, 국내 유일의 해양연구소와 농공기술연구소, 그리고 한양대 안산 캠퍼스가 지역 내에 있다. 사리포구 이주 및 신도시 2단계개발에 따른 토취장 이용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3) 기본 현황

사1동의 면적은 4.68km², 35통 151반, 5819세대 15,990명(남자 8990명/여자 7694명)의 인구를 가진 행정구역이다. 공무원 19명이 1인당 관장하는 주민 수는 2087명이고, 예비군 2340명, 민방위대원 5840명 합계 8180명의 지역방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관 5개교(초등학교 2, 중학교 1, 대학교 1, 특수학교 1), 정부투자기관 2개소(농공기술연구소·해양연구소), 금융기관 8개소(신협 2, 새마을금고 2, 시중은행 4), 그리고 84개 기업체(1545명의 종업원)가 있다.

(4) 주요 업무

주민편의위주 행정 실천,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생활개혁 추진, 지역안정관리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하절기 새마을방역봉사단 운영

1) 필요성

쓰레기 적환장과 사리포구가 있어 자체 방역대를 조직·운영해 하절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 요소가 되는 파리·모기 등의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사진 5-38 사동복지회관. 안산시 시범 2건복지사무소로서, 사동대학경로당을 비롯해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있다.

2) 운영 방법

새마을조직으로 운영 후 주민자율조직으로 확대하며, 방역은 관내 전역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소독기 및 약품은 동에서 지원(보건소 협조) 한다.

3) 추진 계획

- 기간 및 대상 : 주 1회 실시, 관내 전역(쓰레기 적환장 주변, 사리포구).
- 방역단 : 3개소 11명(새마을 단체 구성)
- 장비 : 소독기 1대, 차량(자체 확보), 약품(보건소)

4) 기대 효과

새마을조직의 자원봉사를 통한 자율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전염병 예방으로 주민 보건의 향상된다.

3. 사2동

(1) 연혁

- 1986. 01. 01. 안산시 승격과 동시에 반월동사무소에서 관할.
- 1991. 11. 18. 반월동에서 분동된 본오동에서 관할.
- 1993. 12. 01. 본오동에서 분동한 사동에서 개청(開廳).
- 1996. 01. 02. 사동에서 사1동, 사2동으로 분동해 현재 사2동에서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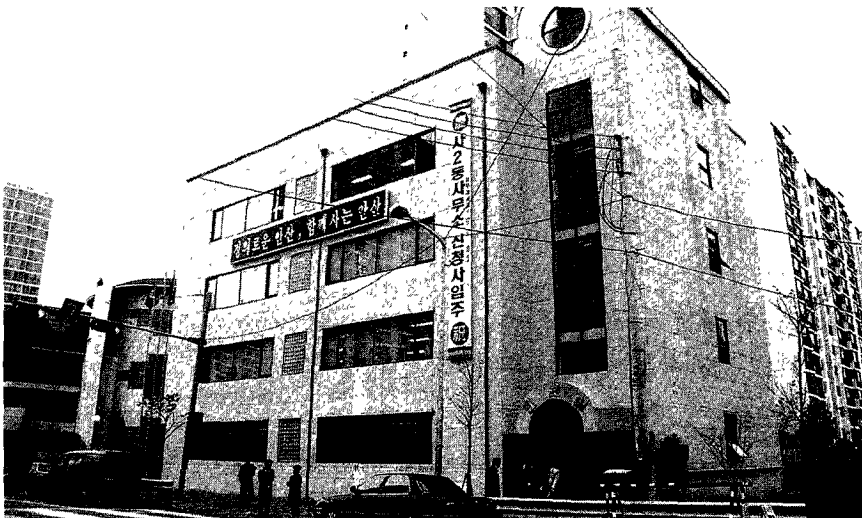


사진 5-39 사2동 동사무소 청사 완공.
1997년 11월 10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2) 지역 특성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다가구주택 병존 지역으로 향가울산 등 주변 경관이 좋아 최근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시화담수호와 접해 있다.

(3) 기본 현황

사2동의 면적은 3.87km²이며, 9499세대 30,917명(남자 15,739명/여자 15,17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48통 225반의 행정구역, 17명의 공무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84기업체에 1545명의 종업원이 있고, 경로당 10개소, 어린이집 4개소가 있으며, 18세대 23명의 영세민(거택보호자 12세대 15명, 자활보호자 6세대 8명)이 있다.

4. 본오 1동

(1) 연혁

1977. 01. 01. 경기도 반월지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소.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1980. 09. 25.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반월지소 개소.

(반월면 5개 법정리 행정 수행)

1986. 01. 01. 안산시 승격으로 반월동사무소 개소.

1991. 11. 18. 안산시 기구 증설에 따라 본오동 분리.

(본오동, 팔곡 2동 관할)

1993. 12. 01. 안산시 기구 증설에 따라 사동 분리.

1994. 07. 15. 안산시 기구 증설에 따라 본오 1동 분리.

(2) 지역 특성

본오 1동은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행정수행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10%가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이다. 도금조합 50여 중소기업체가 있고,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3) 기본 현황

본오 1동의 면적은 시 전체의 4.9%인 6.52km²이며, 10,501세대 30,214명(남자 15,472명/여자 14,74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44통 196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명의 공무원(1인당 주민 1855명 담당)이 있다. 6개의 기관(교육기관 4, 금융기관 2), 기업체 48개에 2천 명의 종업원, 종교단체 30개 교단에 4천 명의 교인, 지역방위조직 6750명(예비군 1천8백 명, 민방위 4950명), 복지시설 13개소(노인정 4개소 3백 명, 어린이집 1개소 120명, 어린이놀이터 8개소)가 있다.

(4) 특수 시책

▶준공업지역 민원 대행의 집 운영

1) 목적

준공업지역 도금조합에 영세 중소기업체를 위한 민원 대행의 집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2) 추진 방법

- 시기 : 연중
- 장소 : 팔곡 2동 49번지(반월도금조합)
- 대상 : 반월도금조합 48개 중소기업체 2천 명
- 대상 민원 : 14종(시 8종, Fax 이용, 동 6종)
- 방법 : 도금조합으로 전화 접수 후 익일 배부

3) 기대 효과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민원실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1) 목적

관내 은행이 없어 주민 불편이 많은 점에 착안, 동사무소 민원실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2) 추진 방법

- 시기 : 연중
- 장소 : 민원실 내
- 장비 : 현금자동입출금기(CD기) 1대

- 인원 : 1명(대동은행직원 배치)
- 취급 업무 : 현금 입·출금, 신용카드 이용, 기타 공과금 수납.

3) 기대 효과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민원실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

5. 본오 2동

(1) 연혁

1977. 01. 01. 경기도 반월지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소.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1980. 09. 25.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반월지소 개소.
 (화성군 반월면 법정 5개리 행정 수행)
 1986. 01. 01. 안산시 승격과 동시 반월동사무소 개소(5개 법정동 관할).
 1993. 12. 01. 안산시 기구 증설에 따라 사동 분동(본오동, 팔곡 2동, 법정동 관할)
 1994. 07. 15. 안산시 기구 증설에 따라 본오 1동 분리(본오 2동 관할).
 1996. 01. 22. 안산시 기구 증설로 본오 3동 분동.

(2) 지역 특성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상록수 상권 중심지역이며,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상록수역 및 산업도로(수인선)가 위치한 교통요충지로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어 성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3) 기본 현황

본오 2동은 0.81km²의 면적, 9087세대 27,597명(남자 13,857명/여자 13,740명)의 인구, 37통 149반의 행정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5명의 공무원이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중요 단체는 15개소(행정 4, 교육 3, 정부투자기관 1, 금융기관 7)가 있고, 기업체 27개에 480명의 종업원, 종교단체 26개에 4018명(기독교 25개소 3868명, 불교 1개소 150명)의 교인이 있다. 그 밖에 지역방위조직의 인원은 9017명(예비군 3078명, 민방위대원 5939명)이고, 노인정은 7개소에 880명의 인원이 있다.



사진 5-40 상록수역 앞 거리청소.
 본오 2동은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4) 주요 업무

‘참봉사’ 행정의 내실화,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생활개혁 실현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5) 특수 시책

▶준주거지역 주차시설 확충

1) 필요성

이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중심지구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단독상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안산시 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해 상가 앞 도로의 가로화단 및 넓은 보도가 굴곡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의 불법주차로 교통정체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설계를 변경하여 보도를 직선화하고, 도로 차선 확충과 아울러 가로주차장 등을 설치해 가로질서를 유지함에 있다.

2) 현황

- 위치 : 안산시 본오동 879, 880번지 내 상가로
- 상가건물 수 : 1개 노선 61동(1.5km²)
- 도로 규모 : 2차선(5개)
- 보도폭 : 2~7m



사진 5-41 본오 1·2동 동사무소 개청
1994년 7월 15일,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3) 기대 효과

상록수 전철역을 기점으로 대단위 아파트 지구까지 상권 형성 및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전철역 환승주차장 확충

1) 필요성

수도권 출퇴근 인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지속적 건립 및 사동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전철역 주변의 주차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차질서·가로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차장 확장사업이 매우 절실하다.

2) 추진 방법

- 대상 : 상록수 전철역
- 이용객 : 1일 3만여 명
- 주차 능력 : 5개소 490대 (유료 ; 2개소 140대, 무료 ; 3개소 350대)
- 기간 : 연중
- 대책 : 상록수역 철도교각 하단에 주차장 조성 추진(시설면적 1개소 360대).

3) 기대 효과

상록수 상가지역의 주차질서 확립 및 수도권 출퇴근자의 전철 이용 유도와 주민 편의에 기여한다.

6. 본오 3동

(1) 연혁

- 1986. 01. 01. 안산시 반월동사무소 개소와 함께 관할.
- 1991. 11. 18. 안산시 기구 증설로 인한 본오동 분리 개소로 본오동사무소에서 관할.
- 1993. 12. 01. 안산시 기구 증설로 본오동, 사동 분동으로 본오동에서 관할.
- 1994. 07. 15. 안산시 기구 증설로 본오 1동, 본오 2동 분동(본오 2동 관할).
- 1996. 01. 22. 안산시 기구 증설로 본오 3동으로 분동해 현재에 이름.

(2) 지역 특성

본오 3동은 단독주택 신축 및 수도권 연결 교통이 편리하여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지역이며, 상업지역이 번성하여 병원 및 종교단체 등이 많은 지역이다. 모든 지역이 개발·완성되면 안산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기본 현황

면적은 1.1km²(주거지역 0.7km², 상업지역 0.11km², 기타 0.29km²)이며, 인구는 7803세대 23,285명(남자 11,727명/여자 11,558명)이 살고 있다. 행정구역은 48통 173반이고 14명의 공무원이 1인당 839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3개교(초등학교 1, 중학교 1, 정보교 1)이다. 기타 공공기관 5개소, 금융기관 9개소, 병원 45개소, 종교단체 10개소가 있고, 몇 개의 복지시설(공원 1, 노인정 4, 운동장 1, 놀이터 2, 주차장 8)도 마련되어 있다.

7. 부곡동

(1) 연혁

- 1977. 01. 10.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소.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 1980. 03. 03. 반월·수암·군자 통합지소를 개소하면서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수암지소 관할.
- 1986. 01. 01. 안산시 승격에 따라 수암동 관할.
- 1991. 11. 18. 안산시 기구 증설로 조례 제416호에 의거해 월피동으로 분장 관할.
- 1995. 03. 02. 안산시 기구 증설로 조례 605호에 의거해 부곡동으로 분동 개칭해 현재에 이름.

(2) 지역 특성

부곡동은 안산시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암산업도로(수인선 산업도로), 안산-신갈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요충지대이다. 도시개발에 따라 이주민단지로 조성된 다가구 주거지역인 도시개발지역, 도로 건설로 자연부락이 일부 훼손된 농촌취락(1·2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젊은 맞벌이부부들인 유동층이 많아 애항정신이 희박하고 주민 화합이 다소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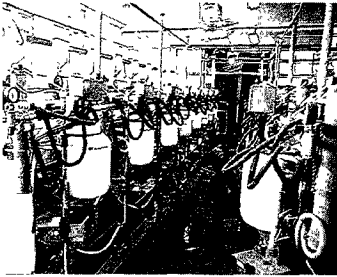


사진 5-42 부곡동 집단축산사육농장.
곡동은 안산 동북부에 위치하며, 도시
개발지역과 농촌취락지역이 공존한다.

은 지역이다. 반면 제일스포츠 센터와 넓고 쾌적한 도로공원이 이웃하고 있어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가족나들이를 겸한 여가 선용에 좋은 지역이다.

(3) 기본 현황

부곡동의 면적은 5.90km²(개발지역 3.4km², 개발외 지역 1.78km²)이며, 6604세대 18,936명(남자 9886명/여자 90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행정구역은 32통 135반이고 13명의 공무원이 1인당 1329명의 주민을 관장하고 있다. 교육기관 2개소(초등학교 1, 중학교 1), 금융기관 2개소, 노인정 2개소, 의료 및 위생업소 108개소(병의원 4, 약국 4, 식품위생업체 102개소)이고, 지역방위조직의 인원은 4757명(예비군 1698명, 민방위 3059명),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대상자는 8세대 12명, 자활보호대상자는 11세대 14명, 장애자는 86세대 86명이다.

(4) 주요 업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참봉사 행정 실천, 쾌적한 생활 조성으로 주민 복지 향상, 함께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부곡동 건설, 열심히 일하는 사회 풍토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부곡 자율방범대 운영

1) 필요성

부곡동은 비교적 외곽지역으로 경찰관 파출소도 1996년에 비로소 설치되었기 때문에 방범과 안보가 중요시되는 지역이며,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2) 추진 방향

- 대원 수 : 부곡 새마을협의회 회원 28명(7개조 4명)
- 기동력 : 봉고 1대(방법용)
- 임무 : 우범지역 ·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기타 전지역 순찰.
- 조치 : 범법자 발견시 즉시 사직당국에 인계 혹은 고발.

3) 기대 효과

관내 취약지역 방범순찰 및 범죄 예방, 그리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8. 월피동

(1) 연혁

- 1977. 01. 10. 경기도 반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소.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합동민원실 운영).
- 1980. 03.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반월·수암·군자지소 설치(수암지소에서 관할).
- 1986. 01. 01. 안산시 승격에 따라 수암동으로 개칭.
- 1991. 11. 18. 안산시 기구 증설로 조례 416호에 의거 월피동으로 분동.
- 1995. 03. 02.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605호에 의거해 관할구역 변경(부곡동).

(2) 지역 특성

월피동은 안산시 동북부에 위치한 관문으로 수인산업도로, 안산-신갈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요충지역이며, 법정 3개동 중 양상동은 전형적인 농촌취락지역이다. 월피동은 다세대주택, 상가, 4개의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인구밀집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G.B 지역)인 농촌지역과 도시개발지역을 함께 관리하는 도·농 병합지이다. 주택 신축 지역에 수도권 유입 인구와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 수요가 날로 증



사진 5-43 월피동 동사무소. 월피동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행정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대되고 있으며, 아파트주택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는 생활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3) 기본 현황

월피동의 면적은 5.57km²(개발지역 2.6km², 개발제한구역 2.97km²), 인구는 29,976명(남자 15,265명/여자 14,711명), 세대수는 9642세대(일반주택 5563명, 아파트 4079명), 행정조직은 법정동 3동(41통, 194반)에 18명의 공무원이 있다. 주민자생조직의 인원은 119명(동정자문위원회 25명, 방위협의회 20명, 새마을지도자 15명, 새마을부녀회 21명, 바르게 살기 위원회 20명, 체육진흥회 18명)이고, 지역 방위조직에는 예비군 2373명과 민방위 5154명이 있다. 또한 교육기관 3개교(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 종교단체 27개소(기독교 22, 불교 3, 천주교 1, 기타 1), 의료기관 16개소, 관공서 2개소, 금융기관 3개소가 있고, 그 밖에 요식업 182개소, 미용업 7개소, 숙박업 1개소, 체육시설 12개소가 있다.

(4) 주요 업무

생활개혁 추진,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자립지원, 가로환경 정비, 주민숙원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민원창구 모니터 설치·운영

1) 목적

민원을 접수함에 있어 민원인들이 모두 창구 앞으로 모여들어 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환경분위기 개선을 위해 창구 모니터 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봉사 행정을 구현한다.

2) 추진 방법

- 대상 : 규모 면적 58평, 민원인 1일 5백 명
- 대상 종류 : 민원서류 15종류
- 창구 모니터 설치 : 책상 5대
- 대기석 설치 : 책상 10개, 의자 15개

3) 운영 방법

- 방문 순서대로 자동접수번호를 발급받아 대기.

- 호출기에 의거해 창구의 번호판에 접수번호 표시.
- 모니터의 설치로 창구직원 모두가 민원을 처리.

4) 기대 효과

분위기의 안정으로 민원사의 소음이 감소되고, 앉아서 전광판을 주시하게 됨으로써 먼지 발생이 줄어든다. 또한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로 민원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9. 외동

(1) 연혁

- 1976. 10. 02.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 발표.
- 1977. 03. 28.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에 의거 수암면 일부 지역이 반월 공업도시에 편입.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설치.
- 1980. 03.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통합지소 설치(반월·수암·군자 통합지소).
- 1980. 05. 01. 3개지소 분리 사무(수암지소 관할).
- 1980. 05. 23. 지소청사(3개 지소; 반월·수암·군자) 기공.
- 1980. 09. 25. 지소청사 준공과 동시 수암지소 이전 개소(일반행정 업무개시).
- 1986. 01. 01. 법률 제3798호에 의거 경기도 안산시 승격과 동시에 안산시 수암동으로 개칭.
- 1991. 11. 18. 안산시 조례 제416호에 의거 경기도 안산시 와동으로 개칭.

(2) 지역 특성

안산시 외곽지역으로 대부분 도시 시민층이 주거하고 있으며, 유통상가지역·일반주거지역·공원묘지지역으로 대분된다. 특히 아파트가 없는 단독 및 연립주택지역으로서 나대지의 주택 신축으로 인구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주위에 광덕산 등 야산이 많아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3) 기본 현황

와동의 면적은 시의 3.1%인 3.23km²(임야 1.43km², 대지 1.7km², 기타 0.1km²), 인구는 14,087세대 39,558명(남자 20,645명/여자 18,913명), 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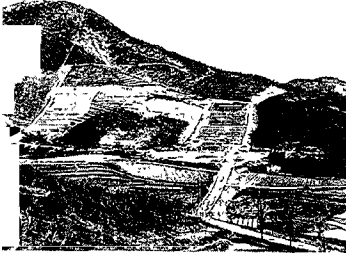


사진 5-44 광덕산과 공설공원묘지공사.
와동은 크게 유통상가지역, 일반주거
지역, 공원묘지지역으로 대분된다.

은 55통 230반, 공무원 수는 17명, 교육기관은 2개소(초등학교 1, 고등학교 1)이다. 그 밖에 운전면허시험장 1개소, 종교단체 47개소(기독교 44, 천주교 1, 불교 2개소), 노인정 4개소, 유통상가 8개동 315점포, 주민편의시설 2개소(신촌운동장·와동공원)가 있다.

(4) 주요 업무

생활개혁 및 4대질서운동 추진, 친절봉사행정 구현, 주민화합과 서민생활 보호, 주민숙원사업 추진,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 와동 건설,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수암복지관 다목적 편익시설 활용

1) 필요성

사회체육시설 활용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주민 및 각 단체의 회의 장소로, 그리고 시·동정의 홍보관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한다.

2) 현황

- 위치 : 와동 102번지
- 규모 : 연면적 120평(회의실·사무실·강당)
- 이용자 : 단체, 주민, 생활보호대상자

3) 기대 효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며, 각 단체 및 주민의 여가 선용에 크게 이바지한다.

10. 고잔 1동

(1) 연혁

- 1977. 01. 10. 경기 반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소.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 1986. 01. 01. 경기도 안산시 승격으로 중앙동 개칭.
- 1988. 10. 01. 안산시 조례에 따라 중앙동을 고잔 1, 2동으로 분동.
- 1991. 06. 01. 고잔 1동 청사 신축으로 현 동사무소로 이전 동행정 수행.

(2) 지역 특성

고잔 1동은 안산시 중앙에 위치한 행정의 중심지(경찰서·우체국·전화국·등기소·세무서·교육청·노동청 등)이며, 단독주택·연립주택 형성 지역이다. 1.2km²의 생산녹지지역이 있으나 안산시 2단계 개발사업지구로 이 지역이 개발되면 유입인구 10~20만 명의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는 특수지역이다.

(3) 기본 현황

고잔 1동의 면적은 3.90km²이며, 10,029세대 31,145명(남자 15,955명/여자 15,190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 56통 311반을 20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중요 기관으로는 세무서·교육청·한전·전화국·우체국·농어촌진흥공사·안산등기소·여성회관·노동부안산사무소·경찰서 등이 이 지역에 들어서 있다. 그 밖에 파출소 1, 소방서 1, 교육기관 1, 금융기관 8개소가 있고, 사회단체로는 노인단체 8개소, 종교단체 24개소가 있다. 기타 유아원·양로원 2개소, 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약국 8개소, 식품위생업소 121개소가 있다. 지역방위조직으로 예비군 2444명, 민방위 4737명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인 거택보호는 68세대 80명이 거주하고 있다.

(4) 주요 업무

고잔 1동은 내실 있는 생활개혁 추진, 복지시책의 추진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 생활개혁으로 깨끗한 동행정 실현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5) 특수 시책

▶이면도로 내(일반주택) 주차선 설치

1) 필요성

고잔 1동은 일반 연립주택가로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주차시설이 난립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질서 있게 주차시설을 정돈하기 위한 것이다.

2) 방침

이 지역 7개 이면도로(4~6m)의 양면 주차방지를 위하여 편도 주차선을 표시하여 개별주차를 유도하며, 주·정차 안내표지판 및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시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한다.

3) 기대 효과

질서 있는 이면도로 주차로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주민의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주민생활이 안정된다.

11. 고잔 2동

(1) 연혁

- 1977. 01. 10. 경기도 반월지구 개발지원사업소 설치.
- 1978. 08.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 1980. 03.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반월·수암·군자) 통합지소 개소로 수암지소에서 관장.
- 1986. 01. 01.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승격과 동시에 중앙동사무소 개소.
- 1988. 10. 01. 안산조례 제213호에 의거 중앙동이 고잔 1동, 고잔 2동, 성포동으로 분동.

(2) 지역 특성

안산시 중앙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중심지로서 시 단위의 각급 기관을 비롯해 대형 상가, 고밀도 아파트, 연립주택·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다.



사진 5-45 고잔동의 고밀도 아파트와
인시설의 유아원. 고잔 2동은 안산시
안에 위치한 교통·행정 중심지이다.

(3) 기본 현황

고잔 2동의 면적은 1.85km²이고, 8825세대 27,360명(남자 13,861명/여자 13,49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48통 250반이고 20명의 공무원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기관 12개소, 교육기관 4개소, 의료기관 9개소가 있다.

(4) 주요 업무

음식물 쓰레기 저온소멸기(?) 설치·운영, 시장바구니 들기 운동, 쿠폰제 운영, 다세대주택 문패 달아주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다세대주택 문패 달아주기 사업

1) 필요성

다세대주택 현판(입구)에 세대주의 문패를 제작·부착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사실 확인 및 각종 세금고지서·훈련통지서 전달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동행정 활성화에 기여한다.

2) 추진 방향

- 기간 : 연중 부착
- 대상 : 120가구 919세대 (고잔동 632~639번지, 642~647번지)

3) 문패 제작(안)

- 모형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번지 ○○호		
호 수	세대주 명	차량 번호

갈아끼우는 곳.

- 규격 및 부착 위치 : 주택 사정에 맞게 부착.
- 재질 : 아크릴
- 기재 내용 : 주소, 호수, 세대주, 차량번호
- 게재 방법 : 전입신고시 민원인에게 기재 내용을 전달하면서 갈아끼울 것을 유도.

4) 기대 효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 충족과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일반인 누구나 주소를 쉽게 익힐 수 있게 된다.

12. 성포동

(1) 연혁

- 1976. 12. 04.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 결정 고시.
- 1977. 01. 01. 경기도 반월 신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설치.
- 1980. 03.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발족으로 반월·수암·군자의 지소에 통합, 민원 수행 및 지소업무 관장.
- 1986. 01. 01.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안산시 승격으로 중앙동에서 관할.
- 1988. 10. 01. 안산시 조례 213호에 의거 중앙동에서 분동하여 성포동을 설치하고 현재에 이름.

(2) 지역 특성

성포동은 안산시의 관문으로서 수원·안양·인천으로 통하는 삼거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고밀도 아파트 주거지역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2,3차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권 인구와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주택과 직장, 그리고 행정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단조로운 아파트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건전한 취미 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에 관심이 높다. 특히 예술인 아파트 단지에는 선진의를 지닌 고급인력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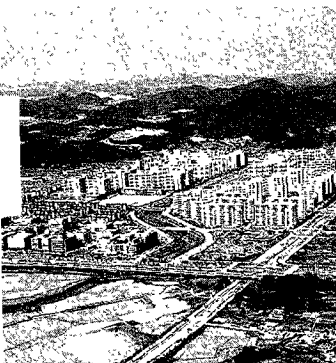


사진 5-46 성포동 주거밀집지역.
성포동은 안산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고밀도 아파트 주거지역이다.

(3) 기본 현황

성포동의 면적은 1.71km²이며, 10,350세대 33,975명(남자 17,022명/여자 16,953명)의 인구, 64통 305반의 행정구역에 2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기관 3개소, 교육기관 2개소, 금융기관 8개소, 사회단체 21개소(노인단체 8, 자생단체 13), 종교단체 5개소(기독교 4, 불교 1)가 있으며, 주택 133동(아파트 112동, 연립주택 21동), 상가 12개소(종합상가 3개소, 복합상가 9개소), 병원 및 위생업소 61개소(병원 13개소, 약국 9개소, 식품 및 위생업소 16개소, 이·미용소 23개소)가 있다.

그 밖에 지역방위조직원 7083명(예비군 1777명, 민방위 5306명), 생활보호대상자 138명(거택보호 9세대 9명, 자활보호대상자 5세대 14명, 장애인 115명)이 거주하고 있다.

(4) 특수 시책

▶농산물 직거래 적극 추진

1) 목적

WTO 가입에 따른 농민의 사기 진작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이 농촌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한다.

2) 현황

화성군 남양면 단위농협의 주관하에 성포 아파트 주민과 직거래를 체결하여 농가의 생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3) 추진 상황

매주 수요일에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아파트 단지별로 순회하여 판매하며, 농촌의 유희공한지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말시범농장을 운영케 한다.

4) 기대 효과

농산물의 적정가격 판매가 이루어져 도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도·농간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다.

▶독서실 운영

1) 목적

동사무소 시설물을 이용한 독서실 운영으로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한다.

2) 현황

- 장소 : 동사무소 3층
- 규모 : 236.5km² (71평)
- 좌석 수 : 90석
- 도서 보유 권수 : 4353권
- 이용 시간 : 09 : 00 ~ 22 : 00

3) 추진 방침

도서 대여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은 물론 공무원의 직무 연구 및 정서 함양 여건을 조성하며, 학생들에 대한 남녀 교실도 운영한다.

4) 기대 효과

독서를 통한 주민 정서 함양의 계기가 마련된다.

▶주부꽃꽂이교실 운영

1) 목적

꽃을 가까이하는 자세를 길러 기본 정서를 함양시키고, 전문기술을 습득시켜 생활의 활력을 제공한다.

2) 방침

자격증 소지 강사에 의한 주 1회 체계적인 연속 교육으로 기본 기술을 습득케 하고, 이를 토대로 꽃꽂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케 한다.

3) 추진 방법

- 장소 : 성포동사무소 3층 주부교실
- 강의 일정 : 매주 월요일 10 : 00 ~ 11 : 00
- 교육 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생 : 23명

4) 기대 효과

주부의 여가 선용으로 취미활동 기회를 갖게 되고, 나아가 소속감을 불어 넣어 주어 주민 화합에 기여하게 된다.



사진 5-47 성포동 동사무소. 1988년 10월 중앙동에서 분동해 성포동을 설치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13. 원곡 본동

(1) 연혁

- 1976. 10. 02.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 발표.
- 1977. 03. 28. 반월 공업도시 건설계획에 의거 군자면의 일부 지역이
반월 공업도시 건설계획지역에 편입.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설치.
- 1980. 03.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반월·수암·군자 통합지소 운영.
- 1980. 05. 01. 3개지소(반월·수암·군자)를 분리해 사무 처리.
- 1980. 09. 25. 지소청사 준공·이전으로 군자지소 개소(일반업무 개시).
- 1986. 01. 01. 법률 제3798호에 의거 경기도 안산시 승격으로 군자동으로
개칭.
- 1995. 01. 01. 안산시 군자동이 원곡 본동으로 명의 변경해 현재에 이름.

(2) 지역 특성

원곡 본동은 반월신공업도시가 발표되면서 공장 후보지인 목내·성곡·초지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형성된 이주지역이다. 안산-서울간 전철역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며, 신길동의 농촌지역과 병행행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단독주택, 유통상가, 공장기숙사, 다가구주택이 많고, 기업에 종사하는 영세가구가 많다. 상권이 먼저 형성되어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원활하고 병의원 등이 고루 갖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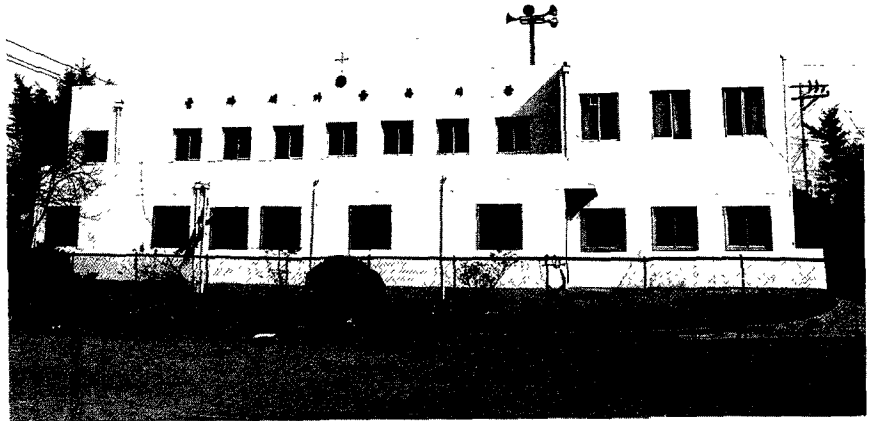
(3) 기본 현황

원곡 본동의 면적은 8.05km²이며, 8709세대 18,629명(남자 10,787명/여자 7842명)의 인구, 52통 190반의 행정구역, 19명의 공무원을 갖추고 있다. 행정기관 2개소, 기업체 145개소, 학교 2개교(중학교 1, 고등학교 1), 의료시설 32개소, 복지시설 6개소(복지관 1개소, 노인정 4개소, 어린이집 1개소)가 있고, 그 밖에 지역방위조직원 5974명(예비군 1844명, 민방위 4,130명), 생활보호대상 54세대(거택보호 24세대, 자활보호 30세대)가 있다.

(4) 주요 업무

생활개혁 추진, 분위기 일신을 위한 특별봉사,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생활

사진 5-48 원곡동의 군자새마을복지관.
원곡 본동은 반월신공업도시 발표 이후
가장 먼저 형성된 이주지역이다.



개혁, 5대시민운동(식생활개선·환경보전·교통안전·도시미화·시민건강)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밝은거리 만들기 운동

1) 필요성

원곡 본동은 근린생활시설 내에 각종 크고 작은 상가가 밀집해 있어 상품의 노상적치물 등으로 항상 거리가 무질서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범시민 차원의 이해와 협조로 이를 바로잡고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추진 방향

- 기간 : 연중 계속
- 반편성 : 3개반 12명(1개반 4명)
- 대상 : 관내 전지역
- 중점 추진 상황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 노상 적치물·불법광고물·벽보 등의 정비.

3) 기대 효과

불법 무질서 추방으로 시민의 질서의식이 향상되고 자율적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된다.

14. 원곡 1동

(1) 연혁

- 1976. 12. 04.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계획 결정 고시.
- 1977. 01. 10. 경기도 반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설치.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 1980. 03.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반월·수암·군자) 지소 개소.
- 1980. 09. 25. 군자지소 청사 준공 및 개소.
- 1986. 01. 01. 안산시 승격과 동시에 군자지소에서 원곡동으로 분리.
- 1987. 10. 14. 원곡동 청사 준공·이전.
- 1988. 10. 01. 안산시 기구 증설로 원곡동에서 원곡 1, 2동으로 분동.

(2) 지역 특성

원곡 1동은 다가구주택·일반주택 및 연립상가 지역으로 주로 공단근로자와 영세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296세대 중 3622세대(48%)가 전·월세 등 세입자 세대이므로 전·출입의 민원행정이 많다.

(3) 기본 현황

면적은 0.95km²이고, 인구는 5980세대 16,431명(남자 8873명/여자 7558명)이며, 행정구역은 40통 178반으로 1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유관기관 1개소(파출소), 교육기관 2개소(원곡초등학교, 대기여자고등학교), 지역방위조직원 4167명(예비군 1187명, 민방위 2980명), 생활보호대상자 37가구 60명(거택보호 19가구 23명, 생활보호대상자 18가구 37명)이 현재의 현황이다.

(4) 주요 업무

생활개선운동, 주민화합 및 신뢰행정 구현, 행정관리시범기관 운영, 주민위주의 민주봉사행정 구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

1) 목적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진 5-49 원곡 1동 동사무소. 원곡 1동은 다가구주택, 일반주택, 연립상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마을 단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해 주민공동체의식을 제고함과 아울러 기금을 조성한다.

2) 현황

재활용품 수집할 수 있는 창고 설치(41개소).

매각은 연중 실시하며, 1회에 27m/t

3) 방법

- 각 통에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
- 매주 토요일 재활용품 재분류 및 집중수거 실시.
- 우수통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
- 매각 대금으로 공동기금 조성.

4) 기대 효과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쓰레기 감량제가 정착되며, 매각 대금의 마을공동기금화를 통해 주민공동체의식이 제고된다.

15. 원곡 2동

(1) 연혁

1986. 01. 01. 안산시 승격과 동시에 원곡동으로 개칭.

1988. 10. 01. 안산시 기구 증설에 의한 조례 제213조에 의거 원곡동에서 원곡 1동, 원곡 2동으로 분류 개칭.

1989. 12. 26. 동청사를 신축해 현재에 이룸.

(2) 지역 특성

원곡 2동은 신도시 초기에 형성된 도심지역으로 교통 및 유통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이 전국 각지로부터 이주해 온 영세서민으로 정주 의식과 애향심이 결여되어 있어 형편이 나아지면 타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식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인구가동에 따른 민원행정이 빈번하다. 특히 노점상 유통구역 유치로 주거환경의 저해 및 질서문란으로 민원팽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동이다.

(3) 기본 현황

원곡 2동은 0.56km²의 면적, 3702세대 9478명(남자 4988명/여자 4490명)의 인구, 14통 86반의 행정구역, 전체 12명의 공무원이 1인당 773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기관 2개교(초등학교 1, 중학교 1), 의료기관 29개소, 복지시설 4개소(노인정 3, 유치원 1)가 있고, 영세민 33세대 50명(거택보호 24세대 36명, 자활보호대상자 9세대 14명)이 현재의 동 상황이다.

(4) 특수 시책

▶하계 어린이교실 운영

1) 목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은 물론,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에 일익을 담당한다.

2) 방침

- 기간 : 7. 22~8. 16(여름방학 기간)
- 장소 : 동사무소 2층 회의실
- 인원 : 60명 정도(초등교생 4~6년, 중학교 1~2년)
- 강사 : 3명(동장, 원곡중학교장, 안산서초교장)
- 내용 : 도덕, 예절, 한문, 일반상식

구 분	과 목	시 간	강 사
초등부	도덕, 예절, 한문	15 : 00~16 : 00	동장, 서교장
중등부	도덕, 예절, 한문, 일반상식	16 : 00~17 : 00	동장, 서교장, 중학교장

3)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유익하게 보내게 되며 정서적으로도 성숙한다.

16. 초지동

(1) 연혁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설치.
- 1980. 03. 03. 군자지소 개소.



사진 5-50 원곡 2동 하계 어린이교실.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한다.

1986. 01. 01. 안산시 승격과 동시 원초동 개소
 1986. 12. 18. 원초동 청사 이전(초지동 606-1)
 1988. 10. 01. 초지동으로 동명 개칭·개소(원곡 2동, 공단동 설치로 관할구역 변경).
 1993. 03. 01. 동 청사 3층 증축.
 1994. 11. 29. 동 청사 1층 민원실 확장.

(2) 기본 현황

초지동의 면적은 시 전체의 2.3%인 6.13km²(거주지역 0.11km², 공단지역 1.06km², 농경지 0.7km²의 2단계개발지역임. 기타지역 4.26km²)이며, 4939세대 13,331명(남자 7164명/여자 6167명)의 인구, 20통 88반의 행정조직에 13명의 공무원이 1인당 104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체는 97개소, 지역방위 인원은 3817명(예비군 1072명, 민방위 2745명), 영세민은 50세대 107명이 있고, 노인이정이 5개소 있다.

(3) 주요 업무

민원인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 공직기강확립 추진, 생활개혁 및 4대 질서운동 적극 추진, 주민화합 및 지역안정 관리, 영세민보호 및 불우이웃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5대시민운동 추진,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 맑은강 가꾸기운동의 지속적 전개, 생활개선의 지속적 추진, 더불어 함께사는 이웃사랑 실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4) 특수 시책

▶재활용품 교환사업 시범 실시

1) 목적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관산초등학교와 합동으로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어린학생들에게 조기교육을 통해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절약정신을 길러줌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

2) 추진

- 기간 : 연중(방학중)
- 대상 : 2014명



사진 5-51 초지동 동사무소.
 1993년 3월 동사무소 청사를
 증축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 방법 : 재활용품 교환사업으로 학용품을 구입·교환하고, 재활용품 판매 대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

3) 기대 효과

버려지는 쓰레기의 재활용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되고, 어린이들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게 된다.

17. 공단동

(1) 연혁

- 1976. 10. 02. 반월공업도시 건설계획 발표.
- 1977. 01. 10. 경기도 반월지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개소.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 1980. 09. 25.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군자지소 개소.
- 1986. 01. 01. 안산시 승격과 동시에 군자동과 원초동 개칭(군자동에서 일부, 원초동에서 일부 관장).
- 1988. 10. 01. 안산시 기구 증설에 따라 공단동 분리 개칭.
- 1990. 02. 08. 공단동사무소 신축 준공.

(2) 지역 특성

공단동은 계획에 의해 조성된 서해안 임해공업단지로서 기업체 중심의 전형적 공업지역이며, 주민 대부분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장근로자들이다.

(3) 기본 현황

공단동의 면적은 시 전체의 10%인 13.37km²이며, 4765세대 4943명(남자 4084명/여자 859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행정조직은 법정 3개동 8개 행정통 32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1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방위조직원은 22,304명(예비군 10,765, 방위병 11,539명), 기관 및 단체는 14개소(행정 4, 교육 2, 금융 4, 법인단체 1, 자생단체 3)이다.

(4) 주요 업무

친절봉사의 내실화, 공장새마을운동 전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근로청소년 체력 향상(축구대회)****1) 목적**

체육대회를 통해 업체를 달리하는 공단근로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노·사화합 및 체력향상을 꾀한다.

2) 추진 방향

- 일시 : 10월 중
- 장소 : 제5지구 운동장
- 대상 : 희망업체 근로청소년

3) 기대 효과

근로자의 사기 앙양으로 근로의식과 생산성이 제고되고,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로 노사화합이 이루어진다.

18. 선부 1동**(1) 연혁**

- 1977. 01. 01. 경기도 반월지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 1980. 03.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반월·수암·군자 통합지소 개소.
- 1980. 09. 25.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군자지소 개소.
- 1986. 01. 01. 안산시 승격과 동시에 선부동으로 개칭.
- 1986. 12. 19. 선부동사무소 준공 이전.
- 1991. 11. 18. 안산시 기구 증설로 선부 1동으로 분리 개칭 현재에 이름.

(2) 지역 특성

안산시 북서부 중심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인구 밀집 주거지역으로 7개 아파트 단지 및 연립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할지역이 협소하여 공공편익시설의 유치가 어려운 지역이다. 특히 주민 대다수가 젊은 계층의 공단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권 등 전국 각지로부터의 유입 주민이 많아 애항심 고취가 필요한 지역이다.

(3) 기본 현황

선부 1동의 면적은 0.86km²이며, 인구는 7954세대 25,294명(남자 12,981명/여자 12,313명), 행정구역은 20통 88반으로 19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 15개소(경찰관서 1, 소방서 1, 우체국 1, 세관 1, 학교 1, 금융기관 2, 노인정 7, 한국마사회 1), 종교시설 6개소(기독교)이며, 지역방위조직원 6847명(예비군 1473명, 민방위 5374명), 생활보호대상자 347세대 1006명(거택보호 96세대 215명, 자활보호 251세대 791명)이다.

(4) 특수 시책

▶현장민원상담실 운영

1) 목적

저소득층 소외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의 고충 상담 및 복지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고, 민원인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찾아나섬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신뢰받는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한다.

2) 방침

맞벌이부부를 위하여 상담시간을 연장 운영(22:00시)하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고충을 상담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각종 민원업무를 대행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사진 5-52 선부 1동 동사무소. 안산
기구 증설로 선부동에서 선부 1동
으로 분리하여 개칭하였다.

3) 추진 계획

- 운영 기간 : 연중
- 장소 : 군자사회복지관 2층(주공 아파트 13단지 내)
- 상담자 : 2명(사회복지전문요원, 자원봉사자)
- 운영 방법 : 주 2회(화요일·목요일)

4) 기대 효과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 편의 위주의 참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한다.

19. 선부 2동

(1) 연혁

- 1978. 08. 10. 경기도 반월출장소 개소.
- 1980. 03. 03.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군자지소 개소.
- 1986. 01. 01. 경기도 안산시 승격으로 선부동 개칭.
- 1991. 11. 18. 안산시 선부동 분동으로 선부 2동 개칭.
- 1993. 12. 01. 안산시 선부 2동이 선부 2,3동으로 분동.
- 1993. 12. 06. 현 선부 2동 청사의 준공으로 이전 개칭.

(2) 지역 특성

선부 2동은 서민용 주공 아파트(14, 17평형) 및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원주민(성곡, 초지, 선부, 정왕<오이도>)이주지역·농촌지역·개발제한구역(GB)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IC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상권 개발 등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안산시의 관문(官門)이다. 특히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 애항심과 주민화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다.

(3) 기본 현황

면적은 2.10km²(개발지역 0.69km², GB 지역 1.4km². 이 중 농지가 0.45km²), 인구는 10,447세대 27,347명(남자 14,756명/여자 12,591명), 행정구역은 52통 235반으로 17명의 공무원이 1인당 161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기관 3개

소(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 금융기관 3개소(농협, 신협, 마을금고), 종교단체 51개소(기독교), 복지시설 7개소(어린이집 1, 노인정 6), 기업체 22개소(80명)이며, 지역방위조직원은 6739명(예비군 2,334명, 민방위 4,405명)이다. 그 밖에 생활보호대상자는 28세대 64명(거택보호 12세대, 자활보호 16세대)이 있다.

(4) 주요 사업

참봉사행정 실천, 생활개혁 정착화로 건강사회 건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변화와 개혁을 통한 위민행정 확립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주부 에어로빅 교실 운영

1) 목적

주부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주민에게 다가서는 민의행정을 구현한다.

2) 추진 내용

- 장소 : 선부 2동사무소 2층
-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11:00
- 운영 방법 : 전문강사 초빙 지도, 개인별 수강료 무료, 자체회원 구성 운영.

3) 기대 효과

주부들의 건강증진·여가선용·문화생활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통해 동정의 전개 및 홍보에 기여한다.

20. 선부 3동

(1) 연혁

- 1979. 08. 10.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개소.
- 1986. 01. 01. 안산시 승격으로 선부동 개칭.
- 1991. 11. 18. 선부동에서 분동하여 선부 2동 개칭.
- 1993. 12. 06. 선부 2동에서 분동하여 선부 3동 개칭.
- 1995. 04. 20. 시·군 및 동 간 경계조정으로 선부 2동 일부와 시흥시 화정 1,2동이 선부 3동에 편입.



사진 5-53 선부 2동의 에어로빅 교실.

주부들의 여가선용,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2) 지역 특성

선부 3동은 서민용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역과 농촌 지역(화정동)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민의 의식구조가 계층별로 다양하다. 핵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지역인 화정동을 제외한 주거지 이면에서 개발지역으로의 다가구주택 신축이 활발하다. 주민의 95% 이상이 외부 유입 인구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행정수요의 증대와 애항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타지역에 비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

(3) 기본 현황

선부 3동의 면적은 5.78km², 인구는 13,470세대 40,891명(남자 21,083명/여자 19,808명), 행정구역은 70통 307반으로 20명의 공무원이 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파출소 1개소, 교육기관 3개교, 금융기관 7개소, 종교시설 18개소(기독교), 사회복지시설 46개소(보육시설 10, 노인정 8, 어린이놀이터 28), 의료기관 34개소(의원 27, 약국 7), 위생업소 165개소(요식업소 135개소, 이용업 13개업소, 숙박업소 17개업소), 체육시설 15개소가 있고, 지역방위조직원은 9013명(예비군 2643명, 민방위 6370명), 생활보호대상자는 65가구 152명(거택보호 21가구 23명, 자활보호 10가구 27명, 모자가정 34가구 102명)이 있다.

(4) 주요 업무

주민 편의 위주의 ‘참봉사행정’ 구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이 넘치는 사회 구현, 내실 있는 생활개혁 추진, 쓰레기 종량제 적극 추진, 주민숙원사업 완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무료 서예교실 운영

1) 필요성

서예를 통한 정신 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 건전한 취미문화를 조성한다.

2) 추진 방법

- 인원 : 60명
- 장소 : 선부 3동 사무소 3층 회의실
- 운영 방법 : 연중 매주 화요일 · 목요일(주 2회)



사진 5-54 선부 3층 사무소. 주민들 계층이 다양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 기대 효과

주부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취미 클럽의 저변이 확대되고 이웃간에 친분이 두터워진다. 또한 주민공익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관(官)과 민(民)의 결속력이 향상된다.

21. 반월동

(1) 연혁

- 1912. 03. 31. 광주군 북방 성곶면·월곡면 안산군으로 편입.
- 1914. 03. 01. 군(郡) 통합(폐)으로 수원군 반월면으로 개칭.
- 1949. 08. 15.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 반월면으로 칭함.
- 1994. 12. 26. 대통령령 제1443호에 의거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안산시로 편입. 안산시 조례에 의거해 반월동으로 개편.

(2) 지역 특성

반월동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지역으로 시 면적의 10.1%를 차지하고 있고, 동 전체 면적의 94.2%가 개발제한구역(GB 지역)으로 개발이 제약되고 있는 지역이다. 전철 4호선, 42번산업도로, 47번국도가 이곳을 관통하고 있어 한 마디로 사통팔달한 안산시의 관문지역이다.

(3) 기본 현황

반월동의 면적은 13.13km²(농경지 44.03km², 대지 0.92km², 임야 0.92km², 잡종지 및 기타 1.48km²)인데 그 중 개발제한구역(GB 지역)이 12.44km²(농경지 4.03km², 대지 0.15km², 임야 6.78km², 잡종지 및 기타 1.48km²)나 된다. 인구는 3944세대(농가 305세대, 비농가 3639세대) 12,543명(남자 6396명/여자 6147명), 행정구역은 24통 89개 반으로 12명의 공무원이 1인당 106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기관 3개소, 교육기관 3개교, 금융기관 3개소, 기업체 37개업체(3170명), 종교단체 17개소 2570명(기독교 14,237명, 불교 2개소 4백여 명, 천주교 1개소 4백여 명), 노인정 7개소 467명이 있다. 또한 지역방위조직원은 2769명(예비군 824명, 민방위 1945명), 생활보호대상자는 50가구 109명(거택보호 35가구 57명, 자활보호대상자 9가구 29명, 특수영세민 6가구 23명)이다.

(4) 주요 업무

서민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 생활개혁 추진, 마을 안 길 진입로 포장, 하수구 설치, 친절봉사행정 구현, 5대시민운동 적극 추진(식생활·환경보전·교통안전·도시미화·시민건강), 지역안정 및 질서확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5) 특수 시책

▶동사무소 내 휴게실 및 도서실 운영

1) 목적

관내에 도서실 및 휴식공간이 없어 이를 통해 주민 정서를 함양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서적을 비치해 기술 향상 및 정보교환 장소로 이용한다. 또한 5대시민운동 홍보 및 활성화의 교육장으로 육성한다.

2) 추진 방향

종전에 민원실로 사용하던 빈 공간을 휴게실 또는 도서실로 활용하여 도서 대출과 열람실로 운영한다. 도서는 주민단체로부터 기증받아 확보한다.

3) 운영 방법

일부 도서는 주민으로부터 기증받아 마련하지만 전문서적 및 비디오 테이프 등은 구입하여 대출한다. 특히 농업기술 습득에 유용한 도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도서는 가급적 비치하도록 한다.



도 5-55 반월동의 휴게실 및 도서실.
소년의 정서 함양, 농민의 기술 향상
및 정보 교환 등의 장소로 이용된다.

4) 기대 효과

이 사업으로 주민간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농업기술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과 주민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 되어 지방행정 전개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22. 대부동

(1) 연혁

통일신라 한주 예속. 조선 시대 방어사 주재(감북관). 조선 말 남양군 예속.
1914. 03. 01. 부천군 대부면.
1973. 07. 01. 웅진군 편입.
1994. 12. 26. 행정구역조정으로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 현재에 이름.

(2) 지역 특성

안산시 서남해안과 접해 있는 도·농 복합의 해양관광 요충지로서 시화지구개발사업에 의한 국토 확장 및 임해관광지 개발의 적지이며, 수도권 농수산물 공급기지로 농수산물 중점육성지역이다. 주민 대부분이 1차산업인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전원도시로의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3) 기본 현황

대부동의 면적은 40.93km²이며, 인구는 2111세대 5958명(남자 3061/여자 2891명), 행정구역은 17통 52반으로 1개출장소가 시 행정을 대행하고 있고, 27명의 공무원이 1인당 17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 6개소(경찰서 1, 학교 5), 복지시설 5개소(복지관 1, 노인정 3, 어린이집 1), 생활보호대상자 110세대 235명(거택보호 50세대 77명, 자활보호 60세대 118명), 선박 287척(동력 57척, 무동력 230척), 종교시설 15개소(기독교 13, 천주교 1, 사찰 1)가 있다.

(4) 특수 시책

▶생명 넘치는 전원도시 조성(깨끗한 대부동 만들기)

1) 목적

급속한 산업사회화로 인하여 배출되는 각종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고 아울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만든다.

사진 5-56 대부동 동사무소. 대부동은
도·농 복합의 해양관광 요충지이자
농수산물 중점 육성지역이다.



2) 추진 방향

- 기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을단위)
- 대상 :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집중 수거.
- 방법 : 비가시권, 유원지 등 취약지 집중 수거. 형식적 전시방법을 지양하고 주민 참여의식 및 자율수거체제 구축.

3) 기대 효과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 인식 제고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가 이루어져 깨끗한 대부동 조성과 주민화합 및 협동심에 기여하게 된다.

23. 안산동

(1) 연혁

- 1914. 시흥군 수암면 개칭.
- 1978. 08. 01. 경기도조례 제969에 의거 법정 6개리 안산시에 편입.
- 1989. 01. 01. 법률 제4050호에 의거 시흥시 승격. 법정 4개동(수암·장상·장하·화정)이 안산동으로 개칭.
- 1991. 01. 15. 시흥시 조례 제230호에 의거 화정동을 연성출장소로 편입.
- 1995. 04. 20.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거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행정구역 개편 변경.

1995. 04. 20. 안산시 안산동(수암·장상·장하·화정 일부) 관장.

(2) 지역 특성

안산동은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복합지역으로 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42번국도, 수인산업도로, 서울-안산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또한 해발 395m의 수암봉이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문화유적의 보고(안산관아; 4품 군수와 70명의 관리 근무/안산읍성; 면적 1만2천 평)이다.

(3) 기본 현황

안산동의 면적은 8.35km²이며, 인구는 2230세대 7109명(남자 3595명/여자 3514명), 행정구역은 17통 52반으로 15명의 공무원이 1인당 473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기관 4개교(초등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2), 생활보호대상자 30가구 54명(거택보호자 19가구 32명, 자활보호자 11가구 22명)이 있다.

(4) 주요 사업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 구현, 경로효친 및 주민화합행사 추진,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류 처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쓰레기 처리 정착, 농가소득향상재정 적극 지원, 주민숙원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밖의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시박 농로 포장.
- 동막골 소교량 설치 공사.
- 약수터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2곳).
- 마을회관 유지·관리.
- 노리울 마을 안 길 재포장 및 하천 정비.
- 동막골 마을 안 길 포장.
- 동막골 마을 농로 포장공사.
- 노리울 농로 포장공사.
- 마을 안 길 포장공사(장상 3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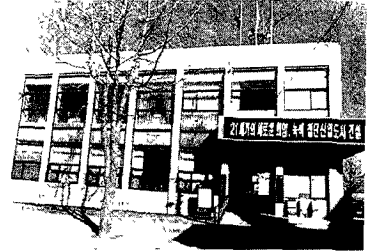


사진 5-57 안산동 등사무소. 안산동은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유서 깊은 곳이다.

박군철(전 원곡본동 동장, 고잔 2동 동장, 현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관장)